


발간 등록 번호
11-B190031-000196-10

2018. 12

2017 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2017년 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2017년 중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글로벌 수요부진 및 전 세계 교역량 증가
세 둔화 속에서도 역대 최대 수준인 437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세계적
으로는 세계 13위의 해외직접투자 규모에 해당됩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무역마찰의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입장에서
해외직접투자는 높아지는 무역장벽을 우회하여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유효한 국제경쟁력
강화방안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관련법령에 따라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통계 작성업무를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해외직접투자 기초통계 산출 및 해외 현지법인의 경영성과
분석은 정부의 해외직접투자 관련 정책입안과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전략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그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금번 2017 회계연도 현지법인 경영분석은 투자잔액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지법인 6,463개
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제1부에서는 분석대상 기업의 경영실적과 투자효과를 정리
하였으며, 제2부에서는 최근 5년간의 경영성과 흐름과 제조업 현지법인의 경영실적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경기회복세의 진전으로 2017 회계연도 중 우리나라 해외 현지
법인의 성장성과 수익성은 전년대비 개선된 추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지역별, 업종별로는
회복세가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 경영실적 개선 추이의 지속 여부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중 우리기업의 현지법인 앞 수출금액은 2,637억 달러로, 우리나라
연간 총 수출액 5,737억 달러의 46%에 해당하며, 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 및
로열티, 대부이자 수입 등을 고려할 때, 해외직접투자가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썸 본 책자가 우리 해외직접 투자기업, 정부 관계부처, 관련 연구기관 등의 해외직접
투자 전략수립 및 정책연구 등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본 경영분석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로 협조하여 주신 투자기업들과
외국환은행의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12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소장 이 승 건



Contents

요 약	10
머리말	20
제1부 2017 회계연도 현지법인 경영분석	22
I. 2017 회계연도 경영실적 분석	23
1. 분석범위	23
가. 분석대상	23
나. 분석대상 현지법인 현황	23
(1) 업종별 현황	23
(2) 지역별 현황	24
(3) 투자자 기업규모별 현황	25
2. 경영성과	26
가. 매출액	26
나. 영업이익	28
다. 당기순이익	32
(1) 흑자 및 적자법인 현황	32
(2) 당기순이익 현황	35
(3) 당기순이익 분포 및 영업개시 경과연도별 당기순이익 현황	41
3. 매출입 현황	43
가. 매출 현황	43
나. 매입 현황	47
4. 재무 현황	51
가. 부채비율	51
나. 차입금	53
다. 이자보상배율	57
라. 유동비율	59
마. 금융비용부담률	61
II. 해외직접투자의 투자효과 분석	63
1. 투자수익	63
가. 투자수익률	63
나. 투자자순이익	65
다. 로열티 등 기타 지급액	67
라. 대부이자	68
2. 배당금	70

3. 수출입 효과	72
가. 순수출	72
나. 수출입 유발효과	76
4. 고용효과	78
III. 기타 분석	81
1. 설문사항	81
가. 개요	81
나. 진출목적별 현황	82
다. 영업환경 현황	82
라. 운영상 애로사항	85
마. 개선이 필요한 현지국의 법규나 제도	88
바. 향후 투자 계획	90
제2부 주제별 심층 분석	94
IV. 5년 시계열 현지법인 경영분석	95
1. 분석목적	95
2. 분석범위	95
3. 최근 5년간 경영분석	98
가. 경영성과	98
(1) 매출액	98
(2) 영업이익	104
(3) 당기순이익	110
나. 매출입 현황	115
(1) 매출입 현황 개괄	115
(2) 업종별 매출입 현황	116
(3) 지역별 매출입 현황	118
(4) 수출입효과	120
다. 재무현황	121
(1) 재무현황 개괄	121
(2) 부채비율	123
(3) 차입금의존도	125
(4) 유동비율 및 이자보상배율	127
라. 투자수익	129
(1) 투자수익률	129



Contents

(2) 투자자순이익	130
(3) 로열티	131
(4) 배당금	132
V. 제조업 현지법인의 세부 업종별 경영분석	133
1. 분석 목적	133
2. 분석 범위	133
3. 2017년 경영성과	136
가. 매출액	136
나. 수익성	138
다. 매출입구조	143
라. 투자수익 및 배당금	144
마. 수출입 유발효과	146
4. 최근 3년 경영성과	147
가. 매출액 및 매출입구조	147
나. 수익성	152
다. 투자수익	156
라. 수출입 유발효과	161
VI. 시사점	165
1. 성장세 반등, 수익성은 2년 연속 개선	165
2. 對중국 투자 감소, 對베트남 및 아세안 투자 확대	166
3. 해외직접투자의 수익성 확대를 위한 경영전략 강화 필요	166
부 록	167
참고자료	231



Table Guide

<표 I-1>	분석대상 현지법인 범위(2017년말 현재)	23
<표 I-2>	분석대상 현지법인 업종별 현황	24
<표 I-3>	분석대상 현지법인 지역별 현황	25
<표 I-4>	분석대상 현지법인 투자자 기업규모별 현황	25
<표 I-5>	업종 및 지역별 매출액 현황	26
<표 I-6>	업종 및 지역별 평균 매출액 현황	27
<표 I-7>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평균 매출액 현황	28
<표 I-8>	업종 및 지역별 영업이익 현황	29
<표 I-9>	업종 및 지역별 평균 영업이익 현황	29
<표 I-10>	업종 및 지역별 영업이익률 현황	30
<표 I-11>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평균 영업이익 현황	31
<표 I-12>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영업이익률 현황	32
<표 I-13>	흑자 및 적자법인 현황	32
<표 I-14>	업종 및 지역별 당기순이익 흑자 및 적자 현지법인 현황	33
<표 I-15>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당기순이익 흑자 현지법인 현황	34
<표 I-16>	업종 및 지역별 당기순이익 현황	35
<표 I-17>	업종 및 지역별 평균 당기순이익 현황	36
<표 I-18>	당기순이익 흑자 및 적자 상위 10개 국가 현황	37
<표 I-19>	업종 및 지역별 당기순이익률 현황	38
<표 I-20>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평균 당기순이익 현황	39
<표 I-21>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당기순이익률 현황	40
<표 I-22>	영업개시 경과연도별 현지법인 당기순이익 현황	42
<표 I-23>	현지법인 매출현황	43
<표 I-24>	주요 업종별 매출 현황	44
<표 I-25>	주요 업종별 매출 비중	44
<표 I-26>	지역별 매출 현황	45
<표 I-27>	지역별 매출 비중	45
<표 I-28>	투자자 기업규모별 매출 현황	46
<표 I-29>	투자자 기업규모별 매출 비중	46
<표 I-30>	현지법인 매입 현황	47
<표 I-31>	주요 업종별 매입 현황	48
<표 I-32>	주요 업종별 매입 비중	48
<표 I-33>	지역별 매입 현황	49
<표 I-34>	지역별 매입 비중	49
<표 I-35>	투자자 기업규모별 매입 현황	50
<표 I-36>	투자자 기업규모별 매입 비중	50
<표 I-37>	업종 및 지역별 부채비율 현황	51
<표 I-38>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부채비율 현황	52



Table Guide

<표 I-39>	업종 및 지역별 차입금 현황	53
<표 I-40>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평균 차입금 현황	54
<표 I-41>	업종 및 지역별 차입금의존도 현황	55
<표 I-42>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차입금의존도 현황	56
<표 I-43>	업종 및 지역별 이자보상배율 현황	57
<표 I-44>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이자보상배율 현황	58
<표 I-45>	업종 및 지역별 유동비율 현황	59
<표 I-46>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유동비율 현황	60
<표 I-47>	업종 및 지역별 금융비용부담률 현황	61
<표 I-48>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금융비용부담률 현황	62
<표 II-1>	현지법인 투자수익률 현황	63
<표 II-2>	업종 및 지역별 투자수익률 현황	64
<표 II-3>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투자수익률 현황	65
<표 II-4>	업종 및 지역별 투자자순이익 현황	66
<표 II-5>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투자자순이익 현황	66
<표 II-6>	업종 및 지역별 로열티 등 기타 지급액 현황	67
<표 II-7>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로열티 등 기타 지급액 현황	68
<표 II-8>	업종 및 지역별 대부이자 현황	69
<표 II-9>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대부이자 현황	70
<표 II-10>	업종 및 지역별 한국투자자 앞 배당금 지급 현황	71
<표 II-11>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배당금 지급 현황	71
<표 II-12>	배당금 지급 현황	72
<표 II-13>	현지법인을 통한 순수출 현황	72
<표 II-14>	주요 업종별 순수출 현황	73
<표 II-15>	주요 업종별 순수출 세부 현황	73
<표 II-16>	지역별 순수출 현황	74
<표 II-17>	지역별 순수출 세부 현황	74
<표 II-18>	투자자 기업규모별 순수출 현황	75
<표 II-19>	투자자 기업규모별 순수출 세부 현황	75
<표 II-20>	현지법인 수출입 유발효과	76
<표 II-21>	업종별 수출입 유발효과 현황	76
<표 II-22>	지역별 수출입 유발효과 현황	77
<표 II-23>	투자자 기업규모별 수출입 유발효과 현황	77
<표 II-24>	직종별 고용인원 현황	78
<표 II-25>	업종별 고용인원 현황	79
<표 II-26>	지역별 고용인원 현황	79
<표 II-27>	지역 및 직종별 고용인원 현황	80
<표 II-28>	투자자 기업규모별 고용인원 현황	80

<표 II-29>	투자자 기업규모 및 직종별 고용인원 현황	80
<표 III-1>	업종 및 지역별 분석대상 현지법인수	81
<표 III-2>	업종별 경쟁관계 현황	83
<표 III-3>	지역별 경쟁관계 현황	84
<표 III-4>	업종별 운영상 애로사항	86
<표 III-5>	지역별 운영상 애로사항	87
<표 III-6>	업종별 개선이 필요한 현지국 법규나 제도	89
<표 III-7>	지역별 개선이 필요한 현지국 법규나 제도	90
<표 III-8>	업종별 향후 투자 계획 현황	91
<표 III-9>	지역별 투자 계획	92
<표 IV-1>	분석대상 법인수 현황	96
<표 IV-2>	분석대상 법인 투자잔액 현황	97
<표 IV-3>	매출액 현황	98
<표 IV-4>	업종별 매출추이	99
<표 IV-5>	업종별 매출 증가율 추이	100
<표 IV-6>	지역별 매출액 현황	101
<표 IV-7>	지역별 매출 증가율 추이	101
<표 IV-8>	업종별 평균 매출액 현황	102
<표 IV-9>	지역별 평균 매출액 현황	103
<표 IV-10>	투자자 기업규모별 평균 매출액 현황	104
<표 IV-11>	영업이익 현황	105
<표 IV-12>	업종별 평균 영업이익 현황	106
<표 IV-13>	업종별 영업이익률 현황	107
<표 IV-14>	지역별 평균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 현황	108
<표 IV-15>	투자자 기업규모별 평균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 현황	109
<표 IV-16>	당기순이익 현황	110
<표 IV-17>	업종별 평균 당기순이익 현황	111
<표 IV-18>	업종별 당기순이익률 현황	112
<표 IV-19>	지역별 평균 당기순이익 및 당기순이익률 현황	113
<표 IV-20>	투자자 기업규모별 평균 당기순이익 및 당기순이익률 현황	114
<표 IV-21>	주요 업종별 매출비중 현황	116
<표 IV-22>	주요 업종별 매입비중 현황	117
<표 IV-23>	지역별 매출비중 현황	118
<표 IV-24>	지역별 매입비중 현황	119
<표 IV-25>	수출입효과	120
<표 IV-26>	현지법인과 국내기업의 재무지표 추이	121
<표 IV-27>	업종별 부채비율 현황	123
<표 IV-28>	지역별 부채비율 현황	124



Table Guide

<표 IV-29>	투자자 기업규모별 부채비율 현황	124
<표 IV-30>	업종별 차입금의존도 현황	125
<표 IV-31>	지역별 차입금의존도 현황	126
<표 IV-32>	투자자 기업규모별 차입금의존도 현황	126
<표 IV-33>	업종별 유동비율 현황	127
<표 IV-34>	업종별 이자보상배율 현황	128
<표 IV-35>	투자수익률 현황	129
<표 IV-36>	업종별 투자자순이익 현황	130
<표 IV-37>	업종별 로열티 현황	131
<표 IV-38>	업종별 한국투자자 앞 배당금 현황	132
<표 V-1>	제조업 세부업종별 현지법인 현황	134
<표 V-2>	제조업 세부업종별 지역별 현지법인수 분포	135
<표 V-3>	제조업 세부업종별 지역별 투자잔액 분포	135
<표 V-4>	제조업 세부업종별 매출 현황	136
<표 V-5>	제조업 세부업종 및 지역별 매출 현황	137
<표 V-6>	제조업 세부업종별 영업이익 현황	138
<표 V-7>	제조업 세부업종 및 지역별 영업이익 현황	139
<표 V-8>	제조업 세부업종 및 지역별 영업이익률 현황	140
<표 V-9>	제조업 세부업종별 당기순이익 현황	141
<표 V-10>	제조업 세부업종 및 지역별 당기순이익 현황	142
<표 V-11>	제조업 세부업종 및 지역별 당기순이익률 현황	142
<표 V-12>	제조업 세부업종별 매출비중	143
<표 V-13>	제조업 세부업종별 매입비중	144
<표 V-14>	제조업 세부업종별 투자수익률	145
<표 V-15>	제조업 세부업종 및 지역별 배당금 현황	146
<표 V-16>	제조업 세부업종별 수출입 유발효과	147
<표 V-17>	제조업 세부업종별 매출 추이	148
<표 V-18>	제조업 세부업종별 매출 증가율 추이	148
<표 V-19>	제조업 세부업종별 매출비중 추이	150
<표 V-20>	제조업 세부업종별 매입비중 추이	151
<표 V-21>	제조업 세부업종별 영업이익 추이	152
<표 V-22>	제조업 세부업종별 영업이익률 추이	153
<표 V-23>	제조업 세부업종별 당기순이익 추이	154
<표 V-24>	제조업 세부업종별 당기순이익률 추이	155
<표 V-25>	제조업 세부업종별 투자자순이익 추이	156
<표 V-26>	제조업 세부업종별 로열티 추이	157
<표 V-27>	제조업 세부업종별 대부이자 추이	158
<표 V-28>	제조업 세부업종별 투자수익률 추이	159



Diagram Guide

<표 V-29>	제조업 세부업종별 배당금 추이	160
<표 V-30>	제조업 세부업종별 수출 추이	161
<표 V-31>	제조업 세부업종별 수입 추이	162
<표 V-32>	제조업 세부업종별 순수출 추이	163
<표 V-33>	제조업 세부업종별 무역수지 개선효과 추이	164
<그림 I-1>	업종 및 지역별 매출액 비중	27
<그림 I-2>	현지법인 당기순이익 분포 현	41
<그림 I-3>	매출현황 및 비중	43
<그림 I-4>	현지법인 매입현황 및 비중	47
<그림 II-1>	업종 및 지역별 대부이자 비중 현황	69
<그림 III-1>	진출목적별 현황	82
<그림 III-2>	현지법인 경쟁관계	83
<그림 III-3>	업종별 경쟁관계 비중	84
<그림 III-4>	지역별 경쟁관계 비중	85
<그림 III-5>	현지법인 운영상 애로사항	85
<그림 III-6>	업종별 운영상 애로사항 비중	87
<그림 III-7>	지역별 운영상 애로사항 비중	88
<그림 III-8>	개선이 필요한 현지국 법규나 제도	88
<그림 III-9>	업종별 개선이 필요한 현지국 법규나 제도 비중	89
<그림 III-10>	지역별 개선이 필요한 현지국 법규나 제도 비중	90
<그림 III-11>	현지법인 향후 투자 계획 현황	91
<그림 III-12>	업종별 향후 투자 계획 비중	92
<그림 III-13>	지역별 향후 투자 계획 비중	93
<그림 IV-1>	매출 현황 및 추이	98
<그림 IV-2>	투자자 기업규모별 매출액 비중 추이	104
<그림 IV-3>	평균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 추이	105
<그림 IV-4>	평균 당기순이익 및 당기순이익률 추이	110
<그림 IV-5>	매출입구조 추이	115
<그림 IV-6>	무역수지 개선효과 추이	120
<그림 IV-7>	주요 재무지표 추이	122
<그림 IV-8>	투자수익률 추이	129
<그림 V-1>	전기전자 및 자동차 제조업 현지법인의 수익성 비교	155
<그림 V-2>	제조업 로열티 지급액 추이	157
<그림 V-3>	제조업 투자수익률 추이	159



요약

I 경영분석대상 및 방법



- 제1부에서는 2017년 말 기준으로 투자잔액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지법인 9,982개사 중 6,463개사의 자료를 수집하여 2017 회계연도 경영분석을 실시

(단위: 개, 백만 달러, %)

	현지법인수	투자잔액
전 체 현 지 법 인	54,774	300,677
자 료 수 집 대 상	9,982	224,921
분 석 대 상	6,463	194,347
분석대상/자료수집대상	64.7	86.4

- 제2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별 심층 분석을 실시

- 최근 5년간 연간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의 시계열 경영성과
- 제조업 현지법인의 세부 업종별 경영성과

II 경영분석 결과

01 2017 회계연도 경영분석



가. 경영성과

2017 회계연도 전체 분석대상 현지법인(6,463개사)의 매출액은 7,087억 달러, 영업이익은 213억 달러, 당기순이익은 127억 달러 기록

- 전체 현지법인의 영업이익률은 3.0%, 당기순이익률은 1.8%를 기록하였으며, 국내기업(6.1%, 4.7%) 대비 낮은 수준을 시현함.
- 전기전자 제조업 업종의 수익성 개선, 광업·건설업의 적자폭 축소 등으로 영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률 모두 전년대비 각 0.5%p 및 0.4%p 증가함.

(단위: %)

	제조업	광업	도소매업	전체
영 업 이 익 률	3.9	24.0	0.4	3.0
당 기 순 이 익 률	3.0	△4.7	0.5	1.8



나. 매출입현황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매출은 현지매출 비중이 64.6%로 가장 높았고, 제3국 수출 및 한국 수출 비중은 각각 18.0% 및 17.4%를 기록

(단위: 백만 달러, %)

	현지매출		한국수출		제3국수출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매 출 액	63,168	394,440	115,829	7,754	43,551	83,991
비 중	8.9	55.7	16.3	1.1	6.1	11.9



요약

-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매입은 한국수입 비중이 46.0%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현지매입비중 37.2%, 제3국수입이 16.8%를 기록

(단위: 백만 달러, %)

	현지매입		한국수입		제3국수입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매 입 액	54,776	158,135	242,260	21,400	51,353	44,812
비 중	9.6	27.6	42.3	3.7	9.0	7.8



다. 재무현황

- 분석대상 현지법인은 부채비율 153.0%, 차입금의존도 26.8%, 유동비율 133.1%, 이자보상 배율 4.1배를 기록하며 재무 안정성이 전년대비 일부 개선

(단위: %, 배)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유동비율	이자보상배율
제 조 업	123.3	22.3	128.7	6.5
광 업	122.9	39.3	106.7	3.3
도 소 매 업	225.5	23.2	148.4	2.1
전 체	153.0	26.8	133.1	4.1



라. 투자수익

- 분석대상 현지법인에 대한 한국인 투자자의 수익률은 전년대비 1.2%p 상승한 7.4%를 기록

(단위: 백만 달러, %)

	투자수익				투자잔액 (B)	투자 수익률 (A/B)
	투자자 손이익	로열티	대부이자	합계(A)		
금 액	10,117	3,812	391	14,320	194,347	7.4



마. 수출입효과

- 한국기업의 현지법인 앞 수출은 2,637억 달러, 수입은 1,236억 달러로 순수출액은 1,401억 달러를 시현

(단위: 백만 달러)

	수출 (한국→현지법인)	수입 (현지법인→한국)	순수출 (수출-수입)
관 계 회 사	242,260	115,829	126,432
기 타	21,400	7,754	13,646
전 체	263,660	123,583	140,077

- 현지법인과 거래에 따른 수출유발효과는 135.7%, 수입유발효과는 63.6%로, 무역수지 개선 효과는 전년(62.8%)대비 향상된 72.1%를 기록

(단위: 백만 달러, %)

투자잔액(A)	수출 (한국→현지법인)		수입 (현지법인→한국)		무역수지 개선효과 (D-E)
	금액(B)	수출유발효과 (D=B/A)	금액(C)	수입유발효과 (E=C/A)	
194,347	263,660	135.7	123,583	63.6	72.1



요약

02 최근 5년간 경영분석



가. 경영성과

- 최근 5년간 연간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한 현지법인의 경영성과 비교 결과, 2016년까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던 평균 매출액, 평균 영업이익 및 평균 당기순이익이 2017년 소폭 반등

(단위: 백만 달러, %)

	2013	2014	2015	2016	2017
평균 매출액	130	127	112	103	110
평균 영업이익	4.7	4.1	2.7	2.6	3.3
평균 당기순이익	2.4	2.1	△0.7	1.5	2.0

-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3.0%의 당기순이익률을 기록하였으며, 광업의 당기순손실율이 큰 폭으로 축소되며 전체 현지법인 당기순이익률 상승을 견인

(단위: %)

	2013	2014	2015	2016	2017
제조업	2.8	2.9	1.4	3.1	3.0
광업	△7.6	7.9	△80.7	△32.6	△4.7
도소매업	1.3	0.7	0.7	0.8	0.5
전체	1.8	1.7	△0.6	1.4	1.8



나. 매출입현황

☐ 매출의 경우 현지매출 비중이 60%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매입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한국수입이 증가하는 추세

(단위: %)

	2013	2014	2015	2016	2017
현 지 매 출	62.9	66.5	67.0	67.4	64.6
한 국 수 출	17.0	15.8	15.3	15.7	17.4
제 3 국 수 출	20.1	17.7	17.7	16.9	18.0
현 지 매 입	40.7	44.1	39.6	40.5	37.2
한 국 수 입	37.7	37.5	40.7	41.9	46.0
제 3 국 수 입	21.6	18.4	19.8	17.6	16.8



다. 재무현황

☐ 최근 5년간 현지법인의 주요 제반 재무지표는 2016년까지 전반적으로 악화 추세를 보였으나 2017년에는 안정성, 수익성 등 제반 재무지표가 전년대비 개선

(단위: %, 배)

		2013	2014	2015	2016	2017
부 채 비 율	현 지 법 인	161.4	164.8	163.7	166.7	153.0
	국 내 기 업	141.0	134.5	128.5	121.3	114.1
차입금의존도	현 지 법 인	25.5	28.0	30.4	30.2	26.8
	국 내 기 업	31.5	32.2	31.5	29.9	28.8
유 동 비 율	현 지 법 인	130.1	129.8	129.4	134.2	133.1
	국 내 기 업	127.0	129.6	130.4	131.5	134.0
이자보상배율	현 지 법 인	6.1	4.5	2.9	2.8	4.1
	국 내 기 업	2.8	2.8	3.5	4.4	5.4



요약



라. 투자수익

현자법인의 투자수익률은 2013년 이후 점차 하락하다가 2015년 최저점을 기록한 후, 2016년부터 점진적인 회복세 시현

(단위: 백만 달러, %)

	2013	2014	2015	2016	2017
투자수익률(A/B)	12.5	9.0	2.2	6.2	7.4
투 자 수 익 (A)	16,917	13,596	3,653	11,534	14,320
투 자 자 순 이 익	10,923	7,862	104	7,854	10,117
대 부 이 자	275	353	423	467	391
로 열 티	5,719	5,381	3,126	3,214	3,812
투 자 잔 액 (B)	135,801	150,551	169,626	184,701	194,347



마. 수출입효과

2013년 이후 증가세가 정체되어있던 순수출액이 2017년 크게 증가하여 무역수지 개선 효과는 72.1%를 기록

(단위: 백만 달러, %)

	2013	2014	2015	2016	2017
투 자 잔 액	135,801	150,551	169,626	184,701	194,347
수 출 액	221,179	224,071	215,818	216,860	263,660
수 입 액	127,039	113,711	103,493	100,929	123,583
순 수 출	94,140	110,361	112,325	115,931	140,077
수 출 유발 효과	162.9	148.8	127.2	117.4	135.7
수 입 유발 효과	93.5	75.5	61.0	54.6	63.6
무역수지개선효과	69.4	73.3	66.2	62.8	72.1

03 제조업 현지법인의 세부 업종별 경영분석



가. 매출액

2017 회계연도 전체 분석대상 현지법인 중 제조업 현지법인(3,804개사)의 매출액은 3,641억 달러로 전체 현지법인 매출액의 51.4%를 차지

- 전기전자와 자동차 제조업 현지법인 매출액이 전체 제조업 현지법인 매출액의 65.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단위: 백만 달러, %)

	전기전자	자동차	1차금속	제조업 전체
매 출 액	133,364	103,268	23,767	364,133
비 중	36.6	28.4	6.5	100.0



나. 수익성

제조업 현지법인의 영업이익은 140억 달러, 당기순이익은 11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 중 영업이익의 65.6%, 당기순이익의 77.7%가 전기전자와 자동차 제조업 현지법인에 의해 실현

- 제조업 현지법인은 영업이익률 3.9%, 당기순이익률 3.0%를 기록하며 전체 현지법인보다 양호한 경영성과를 달성하였음.

(단위: %)

	전기전자	자동차	1차금속	제조업 전체
영업이익률	5.6	1.7	1.7	3.9
당기순이익률	5.6	1.1	△1.3	3.0



요약



다. 매출입현황

- 제조업 현지법인의 매출은 현지매출 비중 57.0%, 한국수출 비중 26.2%, 제3국수출 비중 16.8%를 기록하여 전반적으로 현지판매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자동차의 경우는 현지 매출 비중(76.4%)이 대부분을 차지

(단위: 백만 달러, %)

	매출액			비중		
	현지매출	한국수출	제3국수출	현지매출	한국수출	제3국수출
전 기 전 자	46,601	68,610	18,152	34.9	51.4	13.6
자 동 차	78,883	1,937	22,447	76.4	1.9	21.7
1 차 금 속	19,519	1,640	2,608	82.1	6.9	11.0
전 체	207,627	95,260	61,246	57.0	26.2	16.8

- 제조업 현지법인의 매입은 현지매입 비중 46.9%, 한국수입 비중 38.2%, 제3국수입 비중 14.8%로, 매출과 마찬가지로 현지매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매출보다는 한국거래 비중이 높은 편이며, 특히 전기전자의 경우 한국 수입 비중이 타 업종 대비 가장 높은 55.8%를 기록

(단위: 백만 달러, %)

	매출액			비중		
	현지매출	한국수출	제3국수출	현지매출	한국수출	제3국수출
전 기 전 자	26,396	60,052	21,142	24.5	55.8	19.7
자 동 차	59,814	21,455	7,033	67.7	24.3	8.0
1 차 금 속	8,548	5,405	1,958	53.7	34.0	12.3
전 체	133,285	108,573	42,107	46.9	38.2	14.8



라. 투자수익 및 배당금

제조업 현지법인의 투자수익은 136억 달러로, 전체 현지법인 투자수익률 (7.4%)를 크게 상회하는 17.0%의 투자수익률을 기록하였으며 한국투자자 앞 28.9억 달러의 배당금을 지급

(단위: 백만 달러, %)

	투자수익				투자잔액 (B)	투자수익률 (A/B)
	투자자 순이익	로열티	대부이자	합계(A)		
전 기 전 자	6,676	1,053	14	7,743	18,541	41.8
자 동 차	1,368	1,937	15	3,320	15,121	22.0
1 차 금 속	△164	10	4	△150	7,527	△2.0
전 체	9,985	3,541	69	13,595	79,492	17.1



마. 수출입 유발효과

한국기업의 제조업 현지법인 앞 수출은 1,086억 달러, 수입은 953억 달러로, 133억 달러의 순수출을 기록하였으며, 무역수지개선효과는 16.7%를 기록

(단위: 백만 달러, %)

	투자잔액 (A)	수출 (B)	수입 (C)	순수출 (D=B-C)	무역수지 개선효과 (D/A)
전 기 전 자	18,541	60,052	68,610	△8,558	△46.2
자 동 차	15,121	21,455	1,937	19,518	129.1
1 차 금 속	7,527	5,405	1,640	3,765	50.0
전 체	79,492	108,573	95,260	13,313	16.7



머리말

01

분석 목적

본 경영분석은 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 제1항에 의거,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현지법인의 경영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정부의 해외직접투자 관련 정책자료 수요에 부응하고, 민간 기업의 해외투자전략 수립 및 연구기관의 정책연구 등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02

보고서 구성

제1부에서는 우리나라 해외현지법인의 2017 회계연도 경영실태와 해외직접투자 효과를 다양한 각도로 분석하였음.

제2부에서는 주제별 심층 분석을 위해 최근 5년간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경영성과 및 2017년 제조업 세부 업종별 현지법인의 경영성과를 별도 분석하였음.

03

자료수집 대상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한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설립된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금융기관의 해외직접투자자와 해외지점 및 지사는 제외

- 본 경영분석은 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 제1항에 의거,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제출 대상인 투자잔액 미화 100만 달러 초과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하였음.

04

자료수집 방법

외국환은행은 자료제출 대상 현지법인의 해외직접투자자 앞으로 연간사업실적 자료를 요청

- 투자자는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직접투자 통계정보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거나, 전산입력이 어려운 경우 외국환은행에 서면 제출하며 외국환은행은 해당 보고서를 한국수출입은행에 보고함.

05

자료검증 방법

자료제출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비율 분석, 투자자 앞 직접 확인 등을 통해 자료의 신뢰도를 검증·보완·수정하였음. 또한, 자료의 신뢰도가 너무 낮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06

분석 방법

분석대상 현지법인을 투자자가 신고한 업종별, 지역별, 기업규모별로 분류하여 각각의 경영성과를 비교하였음.

- 업종별 분류는 2017년 7월부터 시행된 '제 10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¹⁾를 적용하였으며,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현지법인은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으로 분류함.

※ 제10차 개정 업종분류 기준 적용에 따른 자료 해석 상 유의점

(기존 비금융지주회사업의 분류 기준 변경) 제10차 업종분류 기준 적용에 따라, 제9차 기준 상 전문과학 기술업 하위로 분류되었던 비금융지주회사업이 금융지주업과 통합되어 금융보험업 하위 업종으로 변경 분류됨. 이에, 기존 비금융지주회사 영위 현지법인²⁾은 금년부터 분석대상에서 제외

- 지역별 분류는 <참고 2: 지역 분류표>의 지리적 대륙별 분류방식을 적용하였음.

- 기업규모별 분류는 투자자들이 신고한 정보를 이용하였으며, 여러 기업에 의한 공동투자는 투자금액이 가장 큰 투자자의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하였음.

- 일부 경영성과 분석시 단순 합계금액만을 사용할 경우 소수 대기업 현지법인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는 바, 도수분포, 흑자·적자 현지법인 비중 등을 함께 분석하였음.

업종 및 지역별 분석은 최종투자국 및 최종투자업종을 기준으로 실시함.

- 자금증개 등의 역할을 하는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Entities)를 이용한 해외직접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최초 투자국 및 최초투자업종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해외직접투자의 목적지 및 진출업종에 대한 왜곡된 분석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이에 통계정보의 정확성과 분석의 유의성을 높이기 위해 2013 회계연도 경영분석부터 최종투자업종, 최종투자국가를 기준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는 바, 2013년 이전 보고서의 업종별, 지역별 분석과의 비교 시 이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07

분석 연혁

한국수출입은행은 1999년 7월 해외직접투자 통계 업무를 은행연합회로부터 이관 받은 후 2000년 3월 처음으로 1998 회계연도 현지법인 경영분석을 실시하고, 동년 12월에는 1999 회계연도 현지법인 경영분석을 실시하였음.

- 한편, 1999 회계연도 경영분석 보고서부터 단행본 책자로 발간하기 시작하였음. 이후 매년 직전 회계연도의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금년 보고서는 20회차임.

- 초기에는 분석대상 현지법인 수가 300개사 내외에 불과하였으나, 2015 회계연도 6,045개사, 2016 회계연도 6,225개사, 2017 회계연도 6,463개사로 증가하여 통계 데이터의 대표성과 신뢰성이 제고되고 있음.

1) <참고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

2) 2017년말 기준 121개사, 투자잔액 10,557백만 달러

2017 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제 1부

2017 회계연도 현지법인 경영분석

23p

-
I. 2017 회계연도 경영실적 분석

63p

-
II. 해외직접투자의 투자효과 분석

81p

-
III. 기타 분석

I. 2017 회계연도 경영실적 분석

1. 분석범위

가. 분석대상

분석대상 현지법인은 총 6,463개사이며, 투자잔액¹⁾은 1,943억 달러임.

- ▶ 2017년 말 기준 투자잔액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9,982개사 중 청산·영업정지·미결산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한 자료가 미흡한 현지법인 등을 제외하였음.

분석대상 현지법인은 법인수 기준으로 자료수집 대상의 64.7%를 차지하며, 투자잔액 기준으로 86.4%에 해당함.

표 I -1 분석대상 현지법인 범위(2017년말 현재)

(단위: 개, 백만 달러, %)

	현지법인수	투자잔액
전 체 현 지 법 인	54,774	300,677
자 료 수 집 대 상	9,982	224,921
분 석 대 상	6,463	194,347
분 석 대 상 / 자 료 수 집 대 상	64.7	86.4

나. 분석대상 현지법인 현황

(1) 업종별 현황

분석대상 현지법인을 투자잔액 순으로 업종별 분류한 결과, 제조업이 40.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광업이 19.3%, 도소매업이 17.8%로 그 뒤를 이었음.

1) 투자잔액은 투자금액에서 회수금액을 차감한 순투자 금액이며, 한국투자자의 투자잔액만을 계상함.

표 1-2 분석대상 현지법인 업종별²⁾ 현황

(단위: 개, 백만 달러, %)

	분석대상			모집단		
	법인수	투자잔액	잔액비중	법인수	투자잔액	잔액비중
제조업	3,804	79,492	40.9	5,628	94,878	42.2
광업	155	37,422	19.3	246	41,422	18.4
도소매업	753	34,656	17.8	1,128	36,431	16.2
부동산업	426	11,809	6.1	888	14,956	6.6
정보통신업	285	6,183	3.2	437	7,372	3.3
건설업	158	5,369	2.8	261	6,645	3.0
전기가스업	89	4,844	2.5	117	5,837	2.6
전문과학기술업	174	4,357	2.2	261	4,829	2.1
운수창고업	161	2,825	1.5	208	3,692	1.6
기타	458	7,389	3.8	808	8,860	3.9
전체	6,463	194,347	100.0	9,982	224,921	100.0

(2) 지역별 현황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지역별 잔액비중은 아시아 41.3%, 북미 26.7%, 유럽 14.9% 순이며, 아시아와 북미 지역이 과반수가 넘는 68.0%의 비중을 차지

▶ 분석대상 법인 당 투자잔액은 아시아 지역이 18백만 달러로 가장 낮음.

2) 기타는 투자잔액 순서대로 음식숙박업, 시설관리지원업, 농림어업, 예술스포츠여가업, 교육업, 보건복지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및 협회단체수리업을 포함

표 I-3 분석대상 현지법인 지역별³⁾ 현황

(단위: 개, 백만 달러, %)

	분석대상			모집단		
	법인수	투자잔액	잔액비중	법인수	투자잔액	잔액비중
아 시 아	4,426	80,275	41.3	6,896	97,726	43.4
북 미	980	51,932	26.7	1,545	56,396	25.1
유 럽	521	29,026	14.9	725	32,202	14.3
기 타	536	33,114	17.0	816	38,596	17.2
전 체	6,463	194,347	100.0	9,982	224,921	100.0

(3) 투자자 기업규모별 현황

분석대상 현지법인을 투자자 기업규모별로 분류하면 투자잔액 기준으로 대기업이 85.8%, 중소기업이 11.2%, 기타가 3.0%를 차지

표 I-4 분석대상 현지법인 투자자 기업규모별 현황

(단위: 개, 백만 달러, %)

	분석대상			모집단		
	법인수	투자잔액	잔액비중	법인수	투자잔액	잔액비중
대 기 업	2,960	166,734	85.8	3,849	185,494	82.5
중 소 기 업	2,930	21,812	11.2	4,903	31,376	13.9
기 타	573	5,802	3.0	1,230	8,051	3.6
전 체	6,463	194,347	100.0	9,982	224,921	100.0

3) 기타는 투자잔액 순으로 중남미, 대양주, 중동, 아프리카 지역을 포함

2. 경영성과

가. 매출액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총 매출액은 전년(6,422억 달러)대비 10.4% 증가한 7,087억 달러를 기록

- ▶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3,864억 달러로 54.5%를 차지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북미 21.5%, 유럽 16.1% 순임. 또한 아시아(11.3%), 북미(2.5%), 유럽(13.3%) 등 세 지역 모두에서 전년대비 매출액이 증가

업종별로는 제조업 매출액이 3,641억 달러로 51.4% 비중을, 도소매업은 2,876억 달러로 40.6%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두 업종에서 90%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였음.

아시아 지역에는 해외생산법인이, 북미 지역에는 해외판매법인이 다수 설립됨에 따라 아시아 매출의 65.1%는 제조업에서, 북미 매출의 69.8%는 도소매업에서 발생하였음.

표 1-5 업종 및 지역별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체
제조업	251,358	34,534	50,140	28,101	364,133
광업	6,654	2,694	653	4,747	14,748
도소매업	100,556	106,444	61,063	19,521	287,585
부동산업	1,106	702	117	84	2,009
정보통신업	4,625	2,412	661	166	7,864
건설업	1,699	334	308	1,143	3,484
전기가스업	8,198	823	97	252	9,370
전문과학기술업	2,463	617	382	69	3,532
운수창고업	3,042	959	783	570	5,355
기타	6,684	2,925	153	893	10,654
전체	386,385	152,444	114,358	55,546	708,733

- ▶ 매출액 상위 5개국은 중국(1,812억 달러, 비중 25.6%), 미국(1,456억 달러, 20.5%), 싱가포르(578억 달러, 8.2%), 베트남(494억 달러, 7.0%), 독일(325억 달러, 4.6%) 순임.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평균 매출액은 약 1.1억 달러였으며, 업종별로는 도소매업(3.8억 달러)에서, 지역별로는 유럽(2.2억 달러)에서 평균 매출액이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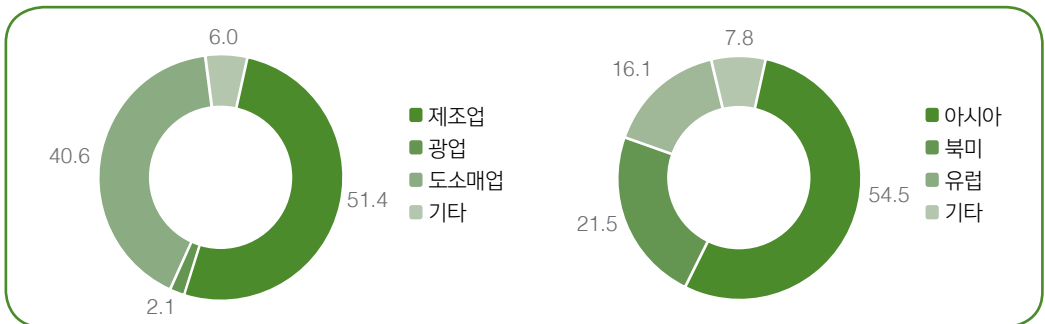
표 1-6 업종 및 지역별 평균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체
제조업	82	112	210	136	96
광업	136	56	82	95	95
도소매업	235	669	509	415	382
부동산업	6	4	3	4	5
정보통신업	28	28	31	14	28
건설업	17	30	28	30	22
전기가스업	200	75	6	12	105
전문과학기술업	27	10	22	12	20
운수창고업	33	53	41	18	33
기타	28	33	5	8	23
전체	87	156	220	103	110

그림 1-1 업종 및 지역별 매출액 비중

(단위: %)



투자자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현지법인의 평균 매출액이 2.2억 달러로 중소기업 현지법인 (0.2억 달러)의 14.0배를 기록하였으며, 그 격차는 전년(12.7배) 대비 소폭 증가되었음.

표 1-7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평균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 달러)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전체
제 조 업	198	20	13	96
광 업	115	1	5	95
도 소 매 업	627	17	8	382
부 동 산 업	17	2	1	5
정 보 통 신 업	42	10	16	28
건 설 업	34	5	0	22
전 기 가 스 업	118	1	38	105
전 문 과 학 기 술 업	37	3	13	20
운 수 창 고 업	48	10	3	33
기 타	63	5	2	23
전 체	222	16	7	110

나. 영업이익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영업이익은 전년(159억 달러)대비 33.4% 증가한 213억 달러를 기록

- ▶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140억 달러)과 광업(35억 달러)에서 가장 많은 영업이익을 실현하였음. 또한, 정보통신업(△0.2억 달러)과 전문과학기술업(△1.8억 달러)의 경우 전년대비 영업실적이 개선 되었으나 여전히 영업적자를 기록하였음.

지역별로는 아시아(142억 달러)에서 전체의 67.0%에 달하는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유럽(33억 달러), 북미(4억 달러) 순임.

표 I-8 업종 및 지역별 영업이익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체
제조업	9,678	457	1,904	2,005	14,045
광업	2,081	312	149	997	3,539
도소매업	425	△433	909	121	1,022
부동산업	146	233	80	55	513
정보통신업	△14	△36	42	△10	△18
건설업	37	61	90	351	137
전기가스업	1,477	△39	20	107	1,565
전문과학기술업	0	△183	0	4	△179
운수창고업	336	34	123	20	513
기타	71	△41	△2	93	121
전체	14,237	366	3,314	3,340	21,256

업종별 평균 영업이익은 광업 22.8백만 달러, 전기가스업 17.6백만 달러 순으로 높았으며, 지역별 평균 영업이익은 유럽 6.4백만 달러, 아시아 3.2백만 달러 순으로 높았음.

표 I-9 업종 및 지역별 평균 영업이익 현황

(단위: 천 달러)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체
제조업	3,173	1,484	7,934	9,734	3,692
광업	42,461	6,495	18,612	19,950	22,830
도소매업	996	△2,723	7,575	2,568	1,357
부동산업	827	1,226	1,942	2,877	1,204
정보통신업	△84	△410	1,982	△867	△64
건설업	375	5,563	8,194	△1,346	866
전기가스업	36,021	△3,501	1,228	5,086	17,582
전문과학기술업	1	△3,097	△21	644	△1,029
운수창고업	3,616	1,892	6,454	635	3,184
기타	302	△462	△60	877	264
총합계	3,217	374	6,360	6,231	3,289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영업이익률은 3.0%로 전년(2.5%)대비 0.5%p 상승하였으나, 국내기업의 영업이익률(6.1%)보다는 3.1%p 낮은 수준임.

- ▶ 업종별로는, 주요 투자 업종인 제조업(3.9%)과 도소매업(0.4%)보다도 부동산업(25.5%), 광업(24.0%)에서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였음. 한편, 전문과학기술업(△5.1%)이 가장 낮은 영업이익률을 시현하였음.

지역별로는 아시아 3.7%, 유럽 2.9%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였고, 북미 지역에서는 전문과학기술업(△29.6%), 전기가스업(△4.7%) 등에서 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영업이익률(0.2%)을 기록

표 1-10 업종 및 지역별 영업이익률 현황

(단위: %)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체
제 조 업	3.9	1.3	3.8	7.1	3.9
광 업	31.3	11.6	22.8	21.0	24.0
도 소 매 업	0.4	△0.4	1.5	0.6	0.4
부 동 산 업	13.2	33.2	68.3	65.1	25.5
정 보 통 신 업	△0.3	△1.5	6.3	△6.3	△0.2
건 설 업	2.2	18.3	29.2	△4.5	3.9
전 기 가 스 업	18.0	△4.7	20.3	42.3	16.7
전 문 과 학 기 술 업	0.0	△29.6	△0.1	5.6	△5.1
운 수 창 고 업	11.1	3.6	15.7	3.4	9.6
기 타	1.1	△1.4	△1.1	10.4	1.1
전 체	3.7	0.2	2.9	6.0	3.0

대기업 현지법인의 평균 영업이익은 6.9백만 달러로,
이는 중소기업 현지법인(0.2백만 달러)의 28.0배 수준

- ▶ 대기업 현지법인의 평균 영업이익은 전년(5.0백만 달러) 대비 증가하였으며, 중소기업 현지법인은 광업, 건설업, 전기가스업 등 대부분의 주요 업종에서 영업 실적이 저하됨에 따라 평균 영업이익이 전년(0.3백만 달러) 대비 감소

표 I-11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평균 영업이익 현황

(단위: 천 달러)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전체
제조업	8,096	380	414	3,692
광업	27,446	△321	3,485	22,830
도소매업	2,337	△146	261	1,357
부동산업	3,844	724	229	1,204
정보통신업	292	△118	△3,277	△64
건설업	1,323	211	△52	866
전기가스업	19,579	△853	10,896	17,582
전문과학기술업	△407	△1,153	△3,244	△1,029
운수창고업	4,820	550	△880	3,184
기타	1,154	△308	19	264
전체	6,909	246	147	3,289

대기업 현지법인의 영업이익률은 3.1%, 중소기업 현지법인은 1.6%였으며
이는 국내 대기업 (7.6%) 및 중소기업(4.0%)의 영업이익률보다 낮은 수준

- ▶ 대기업 현지법인은 광업(23.9%)에서, 중소기업 현지법인은 부동산업(36.8%)에서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시현하였음.

중소기업 투자자들이 대기업 투자자들보다 더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한 업종은 부동산업 및 건설업임.

표 I -12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영업이익률 현황

(단위: %)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전체
제조업	4.1	1.9	3.1	3.9
광업	23.9	△41.1	65.4	24.0
도소매업	0.4	△0.9	3.2	0.4
부동산업	23.2	36.8	21.2	25.5
정보통신업	0.7	△1.2	△20.4	△0.2
건설업	3.9	4.1	△32.3	3.9
전기가스업	16.6	△71.2	29.0	16.7
전문과학기술업	△1.1	△36.7	△25.2	△5.1
운수창고업	10.1	5.8	△32.3	9.6
기타	1.8	△5.9	0.8	1.1
전체	3.1	1.6	2.0	3.0

다. 당기순이익

(1) 흑자 및 적자법인 현황

분석대상 현지법인 중 당기순이익을 실현한 현지법인은 총 3,263개사로 전체의 50.5%를 차지하였으며, 전체 당기순이익은 전년(90억 달러) 대비 증가한 127억 달러를 기록

표 I -13 흑자 및 적자법인 현황

(단위: 개, %, 백만 달러)

	법인수	비중	당기순이익
흑자	3,263	50.5	26,059
적자	3,200	49.5	△13,312
전체	6,463	100.0	12,748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흑자 현지법인 수가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도소매업, 부동산업 순임.

- ▶ 제조업은 총 3,804개사 중 53.3%에 해당하는 2,026개사가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광업은 40.0%, 도소매업은 48.3%의 현지법인이 흑자를 실현하여 전체 평균(50.5%)에는 미달하는 수준

지역별로는, 유럽 지역은 광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양호한 실적을 나타내며 흑자법인 비중이 60.5%로 가장 높았던 반면, 북미 지역에서는 적자법인의 비중이 57.2%로 높게 나타남.

표 I -14 당기순이익 흑자 및 적자 현지법인 현황

(단위: 개)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체	
	흑자 법인수	적자 법인수	흑자 법인수	적자 법인수	흑자 법인수	적자 법인수	흑자 법인수	적자 법인수	흑자 법인수	적자 법인수
제 조 업	1,640	1,410	138	170	152	88	96	110	2,026	1,778
광 업	24	25	15	33	2	6	21	29	62	93
도 소 매 업	189	238	74	85	76	44	25	22	364	389
부 동 산 업	72	104	99	91	24	17	8	11	203	223
정 보 통 신 업	72	93	25	62	9	12	2	10	108	177
건 설 업	47	51	4	7	8	3	17	21	76	82
전 기 가 스 업	23	18	5	6	8	8	14	7	50	39
전문과학기술업	44	48	16	43	9	8	2	4	71	103
운 수 창 고 업	65	28	8	10	13	6	16	15	102	59
기 타	95	140	35	54	14	14	57	49	201	257
전 체	2,271	2,155	419	561	315	206	258	278	3,263	3,200

당기순이익을 실현한 3,263개사 중 대기업 현지법인이 1,612개사로 49.4%,
중소기업 현지법인이 1,388개사로 42.5% 비중을 차지. 한편, 대기업 현지법인 중 54.5%,
중소기업 현지법인 중 47.4%가 흑자를 기록

표 1-15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당기순이익 흑자 현지법인 현황

(단위: 개, %)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전체	
	흑자 법인수	흑자 법인비중	흑자 법인수	흑자 법인비중	흑자 법인수	흑자 법인비중	흑자 법인수	흑자 법인비중
제 조 업	930	57.0	990	50.2	106	52.7	2,026	53.3
광 업	49	38.3	8	44.4	5	55.6	62	40.0
도 소 매 업	247	54.8	106	39.0	11	36.7	364	48.3
부 동 산 업	51	57.3	85	45.0	67	45.3	203	47.7
정 보 통 신 업	68	44.4	37	31.6	3	20.0	108	37.9
건 설 업	43	45.3	31	56.4	2	25.0	76	48.1
전 기 가 스 업	46	59.0	3	42.9	1	25.0	50	56.2
전문과학기술업	48	58.5	19	26.0	4	21.1	71	40.8
운 수 창 고 업	67	65.7	34	66.7	1	12.5	102	63.4
기 타	63	42.0	75	42.4	63	48.1	201	43.9
전 체	1,612	54.5	1,388	47.4	263	45.9	3,263	50.5

(2) 당기순이익 현황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총 당기순이익은 전년(90억 달러)대비 크게 증가한 127억 달러를 실현

- ▶ 업종별로는 제조업, 도소매업, 전기가스업 순으로 당기순이익 규모가 컸음. 반면 광업은 아시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당기순손실을 기록

지역별로는 아시아에서 제조업, 광업을 중심으로 110억 달러의 순이익을, 유럽에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27억 달러 순이익을 거두었으며, 북미를 비롯한 기타 지역들은 당기순손실 기록

표 I-16 업종 및 지역별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체
제조업	8,085	△33	1,785	1,206	11,043
광업	1,261	△356	△63	△1,537	△696
도소매업	392	313	721	126	1,552
부동산업	54	87	92	△15	218
정보통신업	△169	△115	9	△28	△303
건설업	22	85	35	△266	△124
전기가스업	1,157	△42	△21	△8	1,086
전문과학기술업	△3	△195	27	3	△167
운수창고업	197	△17	65	8	253
기타	△26	△88	11	△12	△115
전체	10,971	△363	2,663	△523	12,748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평균 당기순이익은 2.0백만 달러를 기록

- ▶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업 12.2백만 달러, 제조업 2.9백만 달러, 도소매업 2.1백만 달러 순으로 높은 평균 당기순이익을 기록

지역별로는 유럽 5.1백만 달러, 아시아 2.5백만 달러 순으로 평균 당기순이익이 높았으며, 북미 지역에서는 △0.4백만 달러의 평균 당기순손실 기록

표 1-17 업종 및 지역별 평균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천 달러)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체
제조업	2,651	△107	7,437	5,854	2,903
광업	25,741	△7,425	△7,922	△30,742	△4,488
도소매업	918	1,970	6,011	2,677	2,061
부동산업	304	458	2,251	△780	512
정보통신업	△1,024	△1,325	452	△2,348	△1,063
건설업	226	7,709	3,213	△7,011	△786
전기가스업	28,231	△3,848	△1,306	△384	12,204
전문과학기술업	△30	△3,309	1,605	552	△962
운수창고업	2,120	△966	3,435	270	1,574
기타	△109	△994	396	△115	△252
전체	2,479	△370	5,111	△976	1,972

국가별로는 중국(51억 달러), 베트남(20억 달러), 인도네시아(14억 달러) 순으로 당기순이익 규모가 크게 나타났으며, 손실 규모가 큰 국가로는 오스트레일리아(△14억 달러), 마다가스카르(△4억 달러), 미국(△4억 달러) 순임.

표 1-18

당기순이익 흑자 및 적자 상위 10개 국가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	당기순이익	국가	당기순이익
1	중국	5,132	오스트레일리아	△1,353
2	베트남	2,049	마다가스카르	△423
3	인도네시아	1,360	미국	△374
4	브라질	1,325	사우디아라비아	△157
5	싱가포르	1,110	카자흐스탄	△116
6	인도	711	필리핀	△94
7	헝가리	427	페루	△63
8	체코	411	멕시코	△63
9	슬로바키아	392	파나마	△48
10	러시아	357	이스라엘	△33

분석대상 현지법인은 1.8%의 당기순이익률을 기록하며 전년(1.4%) 대비 0.4%p 상승하는 등 수익성이 개선되었으나, 국내기업의 당기순이익률(4.7%)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임.

- ▶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업이 11.6%로 가장 높은 당기순이익률을, 전문과학기술업이 △4.7%로 가장 낮은 당기순이익률을 기록하였고, 지역별로는 아시아 2.8%, 유럽 2.3%, 북미 △0.2% 순임.

표 1-19 업종 및 지역별 당기순이익률 현황

(단위: %)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체
제조업	3.2	△0.1	3.6	4.3	3.0
광업	19.0	△13.2	△9.7	△32.4	△4.7
도소매업	0.4	0.3	1.2	0.6	0.5
부동산업	4.8	12.4	79.2	△17.7	10.9
정보통신업	△3.7	△4.8	1.4	△17.0	△3.9
건설업	1.3	25.4	11.5	△23.3	△3.6
전기가스업	14.1	△5.1	△21.6	△3.2	11.6
전문과학기술업	△0.1	△31.6	7.1	4.8	△4.7
운수창고업	6.5	△1.8	8.3	1.5	4.7
기타	△0.4	△3.0	7.3	△1.4	△1.1
전체	2.8	△0.2	2.3	△0.9	1.8

투자자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현지법인이 4.3백만 달러,
중소기업 현지법인이 35천 달러의 평균 당기순이익을 시현

- ▶ 대기업 투자자들은 전기가스업(13.7백만 달러)에서, 중소기업 투자자들은 부동산업(0.6백만 달러)에서 최대 평균 당기순이익을 달성

대부분의 업종에서 대기업 현지법인이 중소기업 현지법인보다 높은 수준의 평균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였으나, 광업·정보통신업·건설업에서는 중소기업 현지법인이 더욱 높은 성과를 보임.

표 I -20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평균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천 달러)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전체
제 조 업	6,529	175	216	2,903
광 업	△5,694	△633	4,957	△4,488
도 소 매 업	3,756	△543	201	2,061
부 동 산 업	1,562	586	△214	512
정 보 통 신 업	△1,388	△326	△3,491	△1,063
건 설 업	△1,365	110	△65	△786
전 기 가 스 업	13,747	△461	4,290	12,204
전 문 과 학 기 술 업	△282	△1,260	△2,751	△962
운 수 창 고 업	2,394	461	△1,785	1,574
기 타	344	△498	△601	△252
전 체	4,312	35	△207	1,972

대기업 현지법인은 1.9%, 중소기업 현지법인은 0.2%의 당기순이익률 기록

- ▶ 중소기업 현지법인들의 실적이 광업, 전기가스업, 전문과학기술업 등에서 대폭 저하되면서 중소기업 현지법인들이 대기업 현지법인들보다 더 높은 당기순이익률을 달성한 업종은 부동산업뿐임.

표 1-21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당기순이익률 현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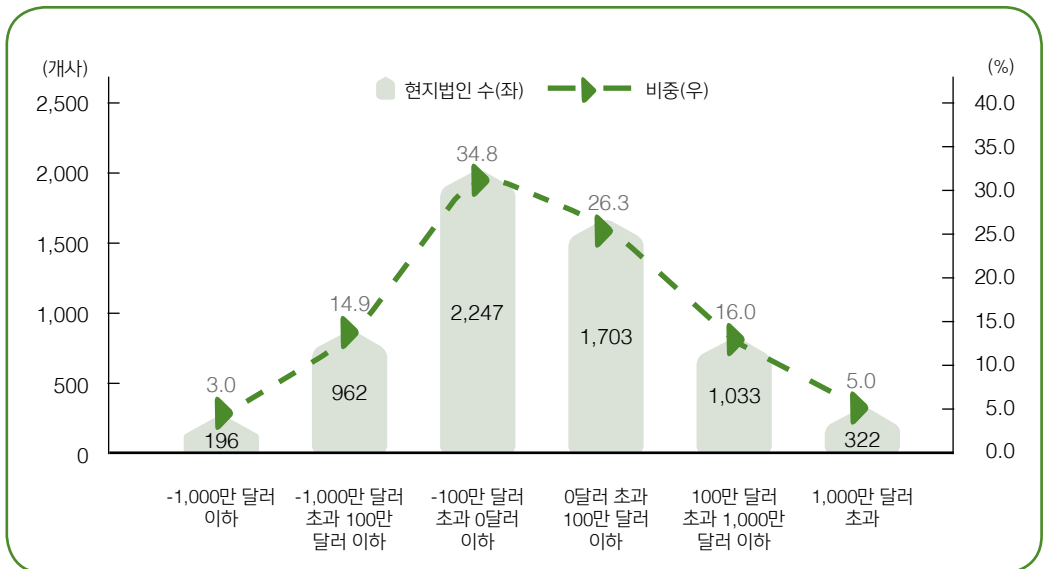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전체
제조업	3.3	0.9	1.6	3.0
광업	△5.0	△81.0	93.0	△4.7
도소매업	0.6	△3.3	2.5	0.5
부동산업	9.4	29.8	△19.8	10.9
정보통신업	△3.3	△3.4	△21.7	△3.9
건설업	△4.1	2.1	△40.0	△3.6
전기가스업	11.6	△38.5	11.4	11.6
전문과학기술업	△0.8	△40.2	△21.4	△4.7
운수창고업	5.0	4.8	△65.4	4.7
기타	0.5	△9.6	△26.6	△1.1
전체	1.9	0.2	△2.9	1.8

(3) 당기순이익 분포 및 영업개시 경과연도별 당기순이익 현황

분석대상 현지법인은 당기순이익 -100만 달러 초과 0달러 이하 구간에 가장 많이 분포(2,247개사) 하였으며, -100만 달러 초과 100만 달러 이하 구간에 분포한 현지법인이 3,950개사로 61.1% 비중을 차지함.

- ▶ 100만 달러 초과외의 대규모 당기순이익을 실현한 현지법인은 1,355개사(21.0%), -100만 달러 이하의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실현한 현지법인은 1,158개사(17.9%)임.

그림 1-2 현지법인 당기순이익 분포현황



영업개시 경과연도별로 살펴보면, 영업개시 경과기간이 길어질수록 흑자법인의 비중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흑자를 실현한 3,263개사 중 절반 이상이(54.1%) 영업개시 후 10년 이상 경과된 법인들로 파악됨.

- ▶ 영업개시 후 8년 이상 경과한 현지법인들의 경우 흑자법인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으며, 10년 이상 경과한 현지법인들의 경우 58%의 법인이 흑자 실현. 이는 안정적인 사업기반이 구축되고 기업 경쟁력이 제고됨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보임.

한편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영업활동 개시 이후 10년 이상 경과된 현지법인이 전체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45.6%를 차지하는 수준에 이름

표 1-22 영업개시 경과연도별 현지법인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개, %)

	흑자		적자		전체법인수
	법인 수	비중	법인 수	비중	
1년 미만	160	29.6	380	70.4	540
2년 미만	120	30.1	279	69.9	399
3년 미만	139	36.6	241	63.4	380
4년 미만	188	44.4	235	55.6	423
5년 미만	178	47.0	201	53.0	379
6년 미만	178	50.1	177	49.9	355
7년 미만	164	47.3	183	52.7	347
8년 미만	167	51.1	160	48.9	327
9년 미만	147	61.0	94	39.0	241
10년 미만	184	50.0	184	50.0	368
10년 이상	1,220	59.1	846	40.9	2,066
20년 이상	340	64.5	187	35.5	527
30년 이상	78	70.3	33	29.7	111
전체	3,263	50.5	3,200	49.5	6,463

3. 매출입 현황⁴⁾

가. 매출 현황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매출구조를 살펴보면, 현지매출 비중이 64.6%로 가장 높았고, 제3국수출 비중은 18.0%, 한국수출 비중은 17.4%를 기록

- ▶ 현지매출은 관계회사보다는 기타 현지 판매처에 집중된 반면, 한국 수출은 모기업 등 관계회사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았음. 또한 전체 매출액 중 관계회사 앞 매출 비중은 31.4%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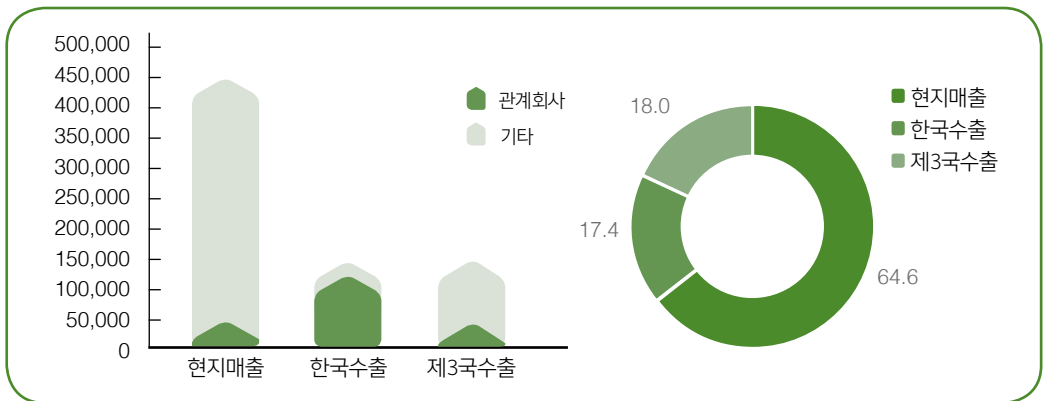
표 1-23 ▶ 현지법인 매출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현지매출		한국수출		제3국수출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매 출 액	63,168	394,440	115,829	7,754	43,551	83,991
비 중	8.9	55.7	16.3	1.1	6.1	11.9

그림 1-3 ▶ 매출현황 및 비중

(단위 : 백만 달러, %)



4) 매출입현황은 분석의 유의성 제고를 위하여 업종 특성상 현지에서 매출의 대부분이 발생하는 업종을 제외하고, 제조업, 광업, 도소매업을 주요 업종으로 분석함.

주요 업종별로 살펴보면, 광업과 도소매업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지매출 비중이 높았음.

- ▶ 제조업의 경우, 생산기지 확보 목적의 법인 설립이 많아 상대적으로 한국 수출비중(26.2%)이 높게 나타났으며, 관계회사 앞 매출 비중(43.4%) 역시 전체 평균(31.4%)보다 높았음.

도소매업의 경우, 현지시장 진출 및 인근지역 판로 개척 목적의 법인이 다수 포함된 만큼 한국수출 비중이 8.1%로 매우 낮았으며, 관계회사에 대한 매출비중 역시 16.7%로 전체 평균(31.4%)을 크게 밑도는 수준

표 1-24 주요 업종별 매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현지매출		한국수출		제3국수출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제 조 업	42,454	165,173	91,060	4,201	24,599	36,646
광 업	6,616	4,347	1,895	23	441	1,426
도 소 매 업	9,749	193,439	20,386	2,947	17,882	43,182
전 체	63,168	394,440	115,829	7,754	43,551	83,991

표 1-25 주요 업종별 매출 비중

(단위: %)

	현지매출	한국수출	제3국수출
제 조 업	57.0	26.2	16.8
광 업	74.3	13.0	12.7
도 소 매 업	70.7	8.1	21.2
전 체	64.6	17.4	18.0

지역별로는, 현지매출 비중은 북미 지역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수출 비중은 아시아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낮게 나타남.

- ▶ 아시아의 경우, 중국·베트남 등 제조업 생산기지로 역할하는 국가의 매출 규모가 커, 현지 매출 비중(55.5%)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한국수출 비중(29.7%)은 전체 평균(17.4%)을 크게 상회함.

북미 지역에서는 현지 매출 비중(85.1%)이 월등히 높았으며, 이는 미국 등 대규모 내수시장에 진출한 도소매업 현지법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기 때문

유럽에서는 한국 수출 대비 현지 매출(61.4%) 및 제3국 수출(35.7%) 비중이 높았으며, 이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유럽 내 다수 지역에 진출하기 위한 현지 판매법인의 영향인 것으로 파악됨.

표 I -26 지역별 매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현지매출		한국수출		제3국수출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아 시 아	37,823	176,443	107,899	6,757	15,310	42,153
북 미	3,670	126,013	2,067	562	2,666	17,467
유 럽	16,643	53,591	3,226	73	21,450	19,374
기 타	5,031	38,394	2,637	363	4,125	4,998
전 체	63,168	394,440	115,829	7,754	43,551	83,991

표 I -27 지역별 매출 비중

(단위: %)

	현지매출	한국수출	제3국수출
아 시 아	55.5	29.7	14.9
북 미	85.1	1.7	13.2
유 럽	61.4	2.9	35.7
기 타	78.2	5.4	16.4
전 체	64.6	17.4	18.0

투자자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 현지법인의 현지매출 비중이 72.4%로 대기업 현지법인 (64.0%)보다 현지시장에 집중되어 있음.

- ▶ 한편, 관계회사 앞 매출비중은 대기업이 32.2%, 중소기업이 20.8%로, 상대적으로 다수의 관계회사를 보유한 대기업에서 높게 나타남.

표 1-28 투자자 기업규모별 매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현지매출		한국수출		제3국수출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대 기 업	60,410	360,771	109,287	5,731	42,482	79,412
중 소 기 업	2,340	31,374	6,329	1,728	1,013	3,752
기 타	417	2,295	213	296	57	827
전 체	63,168	394,440	115,829	7,754	43,551	83,991

표 1-29 투자자 기업규모별 매출 비중

(단위: %)

	현지매출	한국수출	제3국수출
대 기 업	64.0	17.5	18.5
중 소 기 업	72.4	17.3	10.2
기 타	66.1	12.4	21.5
전 체	64.6	17.4	18.0

나. 매입 현황⁵⁾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매입 구조는 한국수입 46.0%, 현지매입 37.2%, 제3국 수입 16.8%의 비중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임.

▶ 관계회사로부터의 매입 비중이 60.8%로 높았으며, 특히 한국 관계회사 앞 매입비중이 42.3%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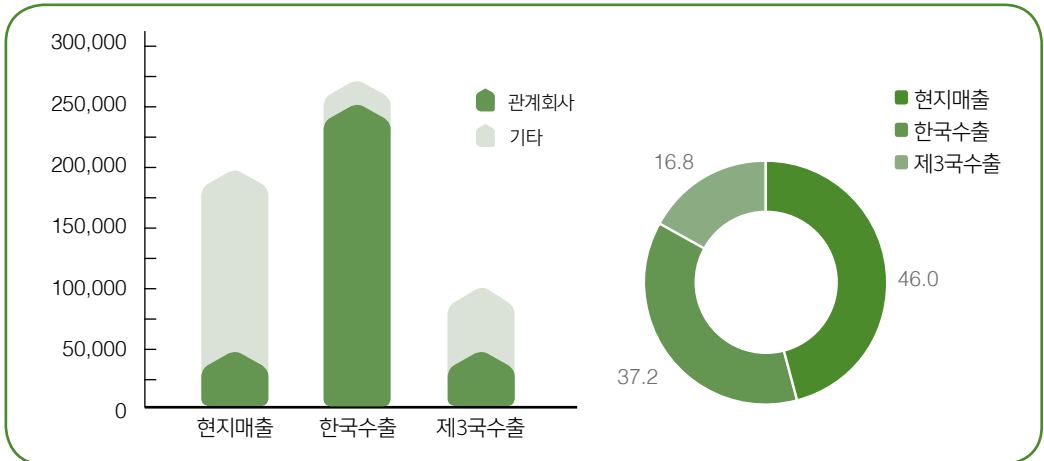
표 I-30 → 현지법인 매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현지매출		한국수출		제3국수출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매 입 액	54,776	158,135	242,260	21,400	51,353	44,812
비 중	9.6	27.6	42.3	3.7	9.0	7.8

그림 I-4 → 현지법인 매입현황 및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5) 당해연도 매출원가가 아닌 당기매입액임.

업종별로는 제조업 및 광업에서는 현지매입 비중이, 도소매업에서는 한국수입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 광업은 업종의 특성상 현지매입 비중이 90.1%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제조업의 경우 원자재 및 부품의 현지 조달로 현지매입비중(46.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한국수입비중(38.2%) 역시 낮지 않음.

도소매업의 경우, 한국 모기업 제품의 현지시장 판매를 위한 법인 설립이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한국 관계회사로 부터의 매입 비중이 56.9%로 매우 높게 나타남.

표 I -31 주요 업종별 매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현지매입		한국수입		제3국수입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제 조 업	27,219	106,065	90,824	17,749	19,894	22,212
광 업	2,570	1,630	440	4	2	14
도 소 매 업	24,408	30,992	145,975	2,528	31,356	21,333
전 체	54,776	158,135	242,260	21,400	51,353	44,812

표 I -32 주요 업종별 매입 비중

(단위: %)

	현지매입	한국수입	제3국수입
제 조 업	46.9	38.2	14.8
광 업	90.1	9.5	0.3
도 소 매 업	21.6	57.9	20.5
전 체	37.2	46.0	16.8

지역별로는 아시아는 현지매입 비중이, 북미는 한국수입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럽의 경우 제3국 수입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타 지역에 비하여는 비교적 균등한 매입 구조를 보임.

표 I -33 지역별 매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현지매입		한국수입		제3국수입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아 시 아	25,969	111,966	107,423	18,307	12,628	34,264
북 미	13,407	20,478	84,742	1,143	3,464	3,002
유 럽	11,399	18,700	31,449	1,472	28,205	6,520
기 타	4,001	6,991	18,647	479	7,056	1,026
전 체	54,776	158,135	242,260	21,400	51,353	44,812

표 I -34 지역별 매입 비중

(단위: %)

	현지매입	한국수입	제3국수입
아 시 아	44.4	40.5	15.1
북 미	26.8	68.0	5.1
유 럽	30.8	33.7	35.5
기 타	28.8	50.1	21.2
전 체	37.2	46.0	16.8

투자자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 현지법인은 한국수입 비중(47.1%)이 가장 높았으며, 중소기업 현지법인은 현지매입(62.1%)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음.

- ▶ 한편, 대기업의 경우 관계회사로부터의 매입비중이 62.9%, 중소기업 현지법인은 28.6%로 상당한 격차를 보임.

표 1-35 투자자 기업규모별 매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현지매입		한국수입		제3국수입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대 기 업	53,386	138,878	234,758	19,539	50,886	41,911
중 소 기 업	1,261	18,157	7,265	1,708	423	2,478
기 타	129	1,099	237	153	44	423
전 체	54,776	158,135	242,260	21,400	51,353	44,812

표 1-36 투자자 기업규모별 매입 비중

(단위: %)

	현지매입	한국수입	제3국수입
대 기 업	35.6	47.1	17.2
중 소 기 업	62.1	28.7	9.3
기 타	58.9	18.7	22.4
전 체	37.2	46.0	16.8

4. 재무 현황

가. 부채비율⁶⁾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부채비율은 153.0%로 전년(166.7%)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며, 국내기업(114.1%)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부채비율이 123.3%, 광업 122.9%로 안정적인 수준이나, 도소매업은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도는 225.5%의 부채비율을 기록하였음. 또한 건설업 현지법인은 2014년 이후 4년 연속 자본잠식 상태

지역별로는, 아시아 소재 현지법인의 부채비율이 125.9%로 가장 낮게 나타나는 등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보였으며, 북미(177.3%)와 유럽(178.1%) 지역의 부채비율은 전체 평균(153.0%)보다 높은 수준

표 I -37 업종 및 지역별 부채비율 현황

(단위: %)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체
제조업	108.5	182.1	160.7	175.8	123.3
광업	79.9	145.2	258.1	125.4	122.9
도소매업	225.5	215.9	227.3	467.1	225.5
부동산업	197.5	99.2	115.7	109.4	128.9
정보통신업	86.5	62.7	74.2	853.0	84.0
건설업	493.3	394.5	203.9	△186.1	△676.4
전기가스업	157.0	236.4	119.0	71.8	145.0
전문과학기술업	127.0	41.5	204.3	326.1	161.4
운수창고업	111.3	97.7	136.8	236.8	124.9
기타	249.3	81.5	79.7	△1267.6	364.3
전체	125.9	177.3	178.1	229.3	153.0

6) 부채총액/자기자본

대기업 현지법인의 부채비율은 155.3%, 중소기업 현지법인은 126.0%로
중소기업 현지법인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보임

- ▶ 대기업 현지법인은 도소매업(227.6%), 전문과학기술업(166.5%) 순으로, 중소기업 현지법인은 광업(633.0%), 운수업(303.8%) 순으로 높은 부채비율을 기록하였음.

표 1-38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부채비율 현황

(단위: %)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전체
제조업	122.8	132.7	81.7	123.3
광업	126.3	633.0	28.2	122.9
도소매업	227.6	198.2	47.5	225.5
부동산업	149.0	85.5	307.2	128.9
정보통신업	88.8	61.2	126.0	84.0
건설업	자본잠식	246.0	142.9	자본잠식
전기가스업	145.1	127.0	150.7	145.0
전문과학기술업	166.5	82.2	180.4	161.4
운수창고업	113.3	303.8	자본잠식	124.9
기타	327.9	125.5	자본잠식	364.3
전체	155.3	126.0	183.4	153.0

나. 차입금⁷⁾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총 차입금 규모는 1,629억 달러로, 전년(1,625억 달러) 대비 0.2% 증가하였음.

- ▶ 업종별 차입금 규모를 살펴보면 제조업 641억 달러, 도소매업 375억 달러, 광업 227억 달러 순으로 높게 나타남.

지역별로는 아시아의 차입금 규모가 673억 달러로 41.3% 비중이며, 아시아와 북미(493억 달러)에서는 전년 대비 차입금 규모가 소폭 증가하였으나, 유럽(139억 달러)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차입 규모가 전년 대비 감소

표 | -39 업종 및 지역별 차입금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체
제조업	41,386	5,271	7,307	10,100	64,065
광업	2,695	7,413	1,232	11,365	22,705
도소매업	4,855	30,766	1,265	600	37,486
부동산업	3,591	3,114	2,063	706	9,475
정보통신업	970	408	71	125	1,574
건설업	1,142	87	641	2,638	4,508
전기가스업	8,652	479	894	565	10,589
전문과학기술업	312	95	210	14	630
운수창고업	1,327	352	127	307	2,113
기타	2,371	1,329	100	5,918	9,718
전체	67,302	49,314	13,911	32,338	162,865

7)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부채, 사채, 장기차입금

현지법인당 평균 차입금 규모는 대기업이 49.5백만 달러로 중소기업 현지법인(4.0백만 달러)의 12.9배 수준을 기록하며 자금시장에 대한 접근성 양극화 정도는 전년(12.3배)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 ▶ 대기업의 경우 광업(1.7억 달러)과 전기가스업(1.3억 달러)에서, 중소기업의 경우 전기가스업(27.7백만 달러)과 부동산업(9.2백만 달러)에서 평균 차입금 규모가 높게 나타남.

한편, 업종별로 살펴보면, 차입금 총계로는 최고치를 기록했던 제조업이 평균 차입금 규모는 16.8백만 달러로 전체 평균(25.2백만 달러)을 하회하였음. 또한, 광업과 전기가스업의 경우 대규모 설비투자 등을 위한 자본 투입규모가 상당한 만큼, 평균 차입금 규모 역시 매우 높은 수준이었음.

표 I -40 ▶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평균 차입금 현황

(단위: 천 달러)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전체
제 조 업	34,844	3,396	2,519	16,842
광 업	175,255	4,612	21,038	146,484
도 소 매 업	81,382	2,414	4,197	49,782
부 동 산 업	77,127	9,191	5,905	22,243
정 보 통 신 업	7,907	3,071	339	5,523
건 설 업	44,603	4,463	3,147	28,531
전 기 가 스 업	125,788	27,734	145,976	118,983
전 문 과 학 기 술 업	4,716	1,600	6,674	3,622
운 수 창 고 업	17,430	3,762	17,912	13,125
기 타	41,212	5,375	19,734	21,219
전 체	49,483	3,832	9,014	25,200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차입금의존도는 26.8%로 전년(30.2%)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며, 국내기업의 차입금의존도(28.8%) 대비 소폭 낮은 수준

- ▶ 업종별로는 건설업(70.2%), 전기가스업(43.9%), 부동산업(42.6%) 순으로 차입금의존도가 높았으며, 전체적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임.

지역별로는 북미 현지법인의 차입금의존도가 34.7%로 가장 높았으며, 아시아(21.8%)와 유럽(16.8)은 전체 평균(26.8%)을 밑돌았음.

표 I -41 업종 및 지역별 차입금의존도 현황

(단위: %)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체
제조업	20.3	26.7	21.2	35.1	22.3
광업	20.5	46.9	33.0	45.3	39.3
도소매업	10.6	35.3	5.5	10.2	23.2
부동산업	48.8	37.2	41.6	45.8	42.6
정보통신업	17.6	16.1	8.8	33.0	17.1
건설업	38.0	34.4	47.6	145.0	70.2
전기가스업	46.6	40.7	41.4	25.9	43.9
전문과학기술업	17.4	6.4	2.0	23.3	4.5
운수창고업	32.6	35.7	8.2	31.9	28.0
기타	43.1	30.1	26.9	89.0	57.3
전체	21.8	34.7	16.8	44.1	26.8

중소기업 현지법인은 대기업(26.9%) 대비 차입금의존도가 4.8%p 낮았으며,
전체 평균(26.8%) 대비 낮은 차입금의존도를 나타냄

표 1-42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차입금의존도 현황

(단위: %)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전체
제조업	22.7	19.9	16.6	22.3
광업	39.8	71.1	14.8	39.3
도소매업	23.3	18.5	22.1	23.2
부동산업	50.1	24.1	66.0	42.6
정보통신업	16.2	22.9	2.9	17.1
건설업	76.2	35.4	15.3	70.2
전기가스업	43.3	52.2	55.4	43.9
전문과학기술업	3.0	18.4	36.4	4.5
운수창고업	25.5	42.1	114.9	28.0
기타	53.1	33.5	104.4	57.3
전체	26.9	22.0	48.9	26.8

다. 이자보상배율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영업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이자보상배율은 전년(2.8배)보다 다소 상승한 4.1배를 기록하였으며, 국내기업의 이자보상배율 5.4배보다는 낮은 수준

- ▶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6.5배로 가장 높았으며, 전기가스업 또한 5.2배로 평균(4.1배)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 반면,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업 등에서는 영업적자를 기록하였음.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6.4배로 전년(5.5배)대비 개선. 한편, 유럽 지역에서는 운수창고업, 도소매업 위주로 영업실적이 개선됨에 따라 이자보상배율 역시 전년(3.8배) 대비 크게 개선되었음.

표 I -43 업종 및 지역별 이자보상배율 현황

(단위: 배)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체
제 조 업	7.6	2.3	8.4	4.5	6.5
광 업	13.3	0.6	2.6	2.6	3.3
도 소 매 업	2.1	영업적자	13.2	3.5	2.1
부 동 산 업	1.3	2.3	0.9	1.0	1.4
정 보 통 신 업	영업적자	영업적자	3.8	영업적자	영업적자
건 설 업	1.7	20.3	3.6	영업적자	0.6
전 기 가 스 업	6.2	영업적자	0.7	6.1	5.2
전 문 과 학 기 술 업	0.0	영업적자	0.0	0.0	영업적자
운 수 창 고 업	3.1	0.8	12.1	2.4	3.1
기 타	0.9	영업적자	영업적자	0.4	0.3
전 체	6.4	0.3	6.2	2.4	4.1

- ▶ 대기업을 이자보상배율은 4.5배로 전년(2.9배)대비 상승. 중소기업은 전년(2.5배)대비 대폭 하락한 수치(1.4배)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문과학기술업, 광업 등을 위주로 영업실적이 저하되었기 때문임.

표 1-44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이자보상배율 현황

(단위: 배)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전체
제조업	7.2	2.6	6.6	6.5
광업	3.3	영업적자	2.8	3.3
도소매업	2.8	영업적자	1.8	2.1
부동산업	1.3	2.0	1.0	1.4
정보통신업	0.8	영업적자	영업적자	영업적자
건설업	0.5	3.5	영업적자	0.6
전기가스업	5.6	영업적자	1.9	5.2
전문과학기술업	영업적자	영업적자	영업적자	영업적자
운수창고업	3.1	6.4	영업적자	3.1
기타	0.6	영업적자	0.0	0.3
전체	4.5	1.4	0.5	4.1

라. 유동비율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유동비율은 133.1%로 국내기업(134.0%)과 비슷한 수준을 보임.

- ▶ 부동산업(156.9%), 정보통신업(154.2%), 도소매업(148.4%) 순으로 유동비율이 높았으며, 건설업(78.4%)은 유동비율이 100%를 밑돌아 유동성 개선의 필요성 존재

지역별로는, 북미 소재 현지법인의 유동비율이 169.2%로 유동성이 가장 양호하였으며, 아시아(125.3%)와 유럽(123.3%)은 전체 평균보다는 소폭 낮은 수준. 한편, 기타 지역 중 중동(79.2%)은 유동비율이 100%를 크게 밑돌았음.

투자자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현지법인 유동비율이 134.5%로 중소기업 현지법인(119.1%)보다 양호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45 업종 및 지역별 유동비율 현황

(단위: %)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체
제조업	127.4	128.6	131.6	135.9	128.7
광업	160.2	66.1	35.8	134.2	106.7
도소매업	120.3	187.7	127.5	105.2	148.4
부동산업	151.0	155.5	220.6	91.9	156.9
정보통신업	158.2	143.2	202.2	78.5	154.2
건설업	122.1	88.0	93.9	49.7	78.4
전기가스업	104.1	98.8	40.5	183.2	102.6
전문과학기술업	146.9	221.9	108.2	111.5	116.3
운수창고업	126.2	144.2	95.4	101.1	119.4
기타	77.0	201.2	177.6	106.7	103.1
전체	125.3	169.2	123.3	117.3	133.1

표 1 -46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유동비율 현황

(단위: %)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전체
제조업	131.1	112.2	142.2	128.7
광업	108.8	27.5	12.6	106.7
도소매업	149.5	111.1	62.6	148.4
부동산업	127.5	210.1	147.5	156.9
정보통신업	150.6	186.9	158.4	154.2
건설업	74.1	133.6	101.4	78.4
전기가스업	101.3	402.0	150.8	102.6
전문과학기술업	114.3	146.1	204.6	116.3
운수창고업	119.6	107.7	423.3	119.4
기타	100.4	150.7	62.0	103.1
전체	134.5	119.1	122.4	133.1

마. 금융비용부담률⁸⁾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금융비용부담률은 0.7%로, 국내 기업(1.1%) 대비 낮게 나타남.

- ▶ 업종별로는, 부동산업(17.9%), 건설업(6.9%)에서 전체 평균(0.7%) 대비 매우 높은 금융비용부담률을 기록

지역별로 살펴보면, 북미(0.7%), 아시아(0.6%), 유럽(0.5%) 지역에서는 금융비용부담률이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한 반면, 기타 지역 중 아프리카(6.2%), 대양주(4.4%)는 전체 평균(0.7%)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

표 I -47 업종 및 지역별 금융비용부담률 현황

(단위: %)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체
제조업	0.5	0.6	0.4	1.6	0.6
광업	2.4	17.9	8.8	8.1	7.3
도소매업	0.2	0.2	0.1	0.2	0.2
부동산업	10.3	14.3	76.9	65.0	17.9
정보통신업	0.5	0.5	1.6	9.9	0.8
건설업	1.3	0.9	8.2	16.6	6.9
전기가스업	2.9	2.1	30.6	7.0	3.2
전문과학기술업	0.2	2.6	3.5	0.0	1.0
운수창고업	3.6	4.3	1.3	1.4	3.1
기타	1.2	1.3	2.6	26.6	3.4
전체	0.6	0.7	0.5	2.5	0.7

8) 지급이자 등의 금융비용/매출액

표 | -48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금융비용부담률 현황

(단위: %)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전체
제 조 업	0.6	0.7	0.5	0.6
광 업	7.3	18.2	23.5	7.3
도 소 매 업	0.1	2.2	1.8	0.2
부 등 산 업	17.2	18.9	21.3	17.9
정 보 통 신 업	0.8	0.9	0.5	0.8
건 설 업	7.4	1.2	1.2	6.9
전 기 가 스 업	3.0	68.6	15.4	3.2
전 문 과 학 기 술 업	0.8	1.7	2.5	1.0
운 수 창 고 업	3.3	0.9	18.6	3.1
기 타	2.8	2.0	24.6	3.4
전 체	0.7	1.1	4.1	0.7

II. 해외직접투자의 투자효과 분석

1. 투자수익

가. 투자수익률

분석대상 현지법인이 한국투자자에게 지급한 투자자순이익⁹⁾ 로열티, 대부 이자를 합산한 투자 수익은 143억 달러이며, 이를 투자잔액으로 나눈 투자수익률은 7.4%로 전년(6.2%)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투자수익률이 하락세로 전환되었던 '14년 수준(9.0%)에는 여전히 미달하는 수준

- ▶ 투자수익은 투자자순이익 101억 달러, 로열티 38억 달러, 대부이자 4억 달러로 구성됨. 투자자순이익은 제조업 및 부동산업의 당기순이익 증가에 따라 전년 (115억 달러)대비 24.1% 증가하였으며, 로열티 및 대부 이자의 경우, 전년(32억 달러 및 5억 달러) 대비 각각 18.6% 증가 및 △16.2% 감소

표 II -1 ▶ 현지법인 투자수익률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투자수익	투자자순이익	로열티	대부이자	합계(A)	투자잔액(B)	투자수익률 (A/B)
금	억	10,117	3,812	391	14,320	194,347	7.4

업종별로는 제조업 투자수익률이 17.1%로 전년(15.0%)대비 소폭 증가

- ▶ 마이너스 투자수익률을 기록한 업종은 광업(△4.1%) 및 건설업(△2.1%)으로, 광업의 경우 아시아의 투자 수익 흑자 전환 및 북미지역 투자손실규모 축소, 건설업은 북미지역 투자수익 확대에 따라, 전년(각각 △5.8% 및 △9.7%) 대비 투자손실이 축소

9) 투자자순이익 = 당기순이익×한국투자자 지분율

지역별로는 아시아, 유럽 및 북미는 각각 12.7%, 11.3% 및 1.3%의 투자수익률을 달성

- ▶ 아시아에서는 제조업(17.4%), 전기가스업(15.5%)의 투자수익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북미에서는 건설업(28.2%), 유럽에서는 제조업(19.7%) 및 도소매업(17.2%)이 높게 나타남.

표 II -2 업종 및 지역별 투자수익률 현황

(단위: %)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체
제 조 업	17.4	5.9	19.7	23.2	17.1
광 업	3.1	△1.8	△1.3	△8.7	△4.1
도 소 매 업	4.3	2.0	17.2	8.8	4.8
부 동 산 업	1.2	2.1	2.3	2.2	1.8
정 보 통 신 업	2.6	△1.1	5.2	△19.7	0.8
건 설 업	2.1	28.2	4.8	△7.6	△2.1
전 기 가 스 업	15.5	△4.4	△1.1	△1.6	5.8
전 문 과 학 기 술 업	1.0	△5.0	1.1	8.7	△0.1
운 수 창 고 업	7.7	△0.9	7.7	2.2	4.8
기 타	△0.7	△1.7	4.5	2.3	0.2
전 체	12.7	1.3	11.3	0.6	7.4

투자자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현지법인의 투자수익률이 8.4%로 전년(6.5%) 대비 1.9%p 증가하였으며, 중소기업 현지법인은 전년(6.7%)대비 △5.6%p 감소한 1.1%를 기록하며 투자수익률 저하를 보임.

- ▶ 대기업의 경우 제조업 및 건설업에서 전년대비 투자수익성이 개선(각각 4.2%p 및 8.9%p)되었으며 중소기업은 제조업 및 정보통신업에서 전년대비 투자수익률 감소(각각 △9.4%p 및 △7.6%p)

표 II-3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투자수익률 현황

(단위: %)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전체
제조업	19.6	3.2	8.9	17.1
광업	△4.4	△3.2	3.7	△4.1
도소매업	5.4	△8.9	2.0	4.8
부동산업	2.5	1.5	△4.3	1.8
정보통신업	1.0	1.0	△12.7	0.8
건설업	△2.4	3.3	△1.7	△2.1
전기가스업	5.9	0.6	7.7	5.8
전문과학기술업	2.3	△11.6	△25.0	△0.1
운수창고업	5.4	6.0	△5.5	4.8
기타	1.5	△3.5	0.7	0.2
전체	8.4	1.1	1.6	7.4

나. 투자자순이익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투자자순이익은 전년(79억 달러)대비 28.8% 증가한 101억 달러를 기록

- ▶ 투자자순이익의 증가는 제조업 투자자순이익의 전년대비 증가(85억 달러 → 100억 달러) 및 광업의 투자자순손실 규모 축소(△24억 달러 → △16억 달러)에 기인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79억 달러, 유럽은 25억 달러, 북미 3억 달러로 모두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며, 기타 지역은 △5억 달러로, 전년대비 투자자순손실 규모 감소

투자자 규모별로는 대기업 현지법인의 투자자순이익이 102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71억 달러)대비 증가하였으며, 중소기업 현지법인은 전년(10억 달러)대비 대폭 감소한 △0.4억 달러를 기록하며 적자 전환

표 II-4 업종 및 지역별 투자자순이익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체
제조업	6,922	233	1,614	1,217	9,985
광업	109	△245	△56	△1,447	△1,639
도소매업	405	309	743	97	1,554
부동산업	43	85	44	△15	157
정보통신업	0	△54	41	△22	△35
건설업	17	85	34	△260	△124
전기가스업	328	△42	△8	△21	257
전문과학기술업	5	△43	29	2	△7
운수창고업	77	△15	25	8	94
기타	△36	△46	13	△57	△126
전체	7,870	265	2,479	△498	10,117

표 II-5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투자자순이익 현황

(단위: 백만 달러)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전체
제조업	9,740	180	65	9,985
광업	△1,684	△8	54	△1,639
도소매업	1,676	△128	7	1,554
부동산업	146	52	△41	157
정보통신업	△8	△12	△14	△35
건설업	△130	6	0	△124
전기가스업	236	△3	24	257
전문과학기술업	83	△61	△29	△7
운수창고업	94	14	△14	94
기타	33	△81	△78	△126
전체	10,187	△41	△28	10,117

다. 로열티 등 기타 지급액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한국투자자에 대한 로열티 등 기타 지급액은 38억 달러로 전년(32억 달러) 대비 18.6% 증가

- ▶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로열티 지급액이 35억 달러로 총지급액의 92.9%를 차지하였고, 그 뒤를 이어 도소매업의 지급액(1억 달러)이 2.9%를 차지함.

지역별로는 아시아 현지법인이 전체 현지법인의 58.6%에 해당하는 22억 달러의 로열티를 지급하였으며, 다음으로 유럽(8억 달러), 북미(3억 달러) 순으로 나타남. 모든 지역에서 제조업 현지법인의 로열티 지급액이 대부분을 차지하는것으로 나타남.

표 II-6 업종 및 지역별 로열티 등 기타 지급액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체
제조업	2,101	239	733	468	3,541
광업	38	1	-	4	42
도소매업	10	69	30	1	110
부동산업	3	-	-	-	3
정보통신업	59	15	1	1	76
건설업	2	1	-	1	4
전기가스업	3	-	-	1	3
전문과학기술업	2	-	-	-	2
운수창고업	1	1	1	2	4
기타	14	6	1	7	27
전체	2,232	331	765	483	3,812

투자자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현지법인의 한국투자자 앞 로열티 지급액이 36억달러로 전체 지급액의 94.0%를 차지하였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전체의 5.7%에 해당하는 2억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 -7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로열티 등 기타 지급액 현황

(단위: 백만 달러)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전체
제	조	업	3,361	176	3	3,541
광		업	42	-	-	42
도	소	매업	109	1	-	110
부	동	산업	2	1	-	3
정	보	통신업	55	21	-	76
건	설	업	1	3	-	4
전	기	가스업	3	-	-	3
전	문	과학기술업	2	-	-	2
운	수	창고업	2	1	1	4
기		타	6	15	5	27
전		체	3,583	219	10	3,812

라. 대부이자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한국투자자에 대한 대부이자 총 지급액은 4억 달러로 전년(5억 달러)대비 감소

- ▶ 업종별로는 제조업(0.7억 달러)이 가장 많은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광업(0.7억 달러)과 부동산업(0.6억 달러)이 그 뒤를 이었음.

지역별로는 아시아 현지법인이 0.9억 달러를, 북미에서 0.7억 달러의 이자를 한국투자자 앞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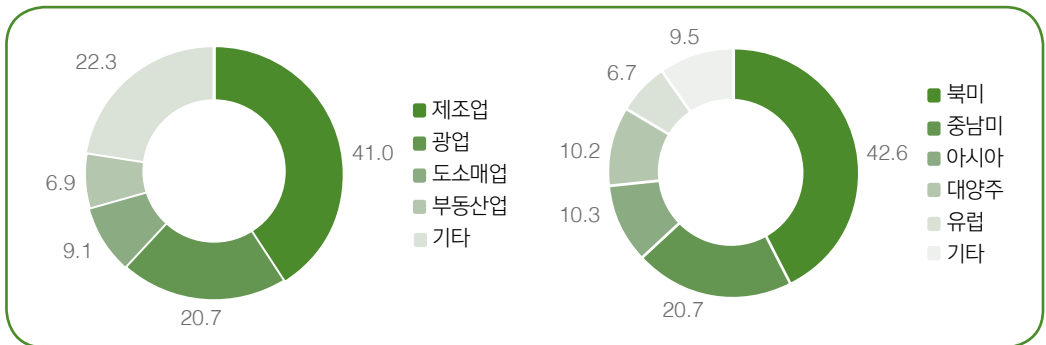
표 II-8 업종 및 지역별 대부이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체
제조업	41	15	3	10	69
광업	5	19	-	45	69
도소매업	2	1	-	4	7
부동산업	1	5	18	34	59
정보통신업	1	6	-	-	7
건설업	2	-	-	6	7
전기가스업	10	7	-	3	20
전문과학기술업	-	-	-	-	1
운수창고업	22	10	1	5	38
기타	6	3	1	107	116
전체	69	66	23	212	391

그림 II-1 업종 및 지역별 대부이자 비중 현황

(단위: %)



투자자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현지법인의 대부이자 지급액이 2.2억 달러로 전체의 56.9%를 차지하였고, 중소기업 현지법인은 0.6억 달러를 지급

표 II-9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대부이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전체
제조업	46	23	-	69
광업	68	-	-	69
도소매업	5	2	-	7
부동산업	32	10	17	59
정보통신업	-	7	-	7
건설업	6	2	-	7
전기가스업	15	4	1	20
전문과학기술업	-	1	-	1
운수창고업	32	1	4	38
기타	19	11	86	116
전체	223	60	109	391

2. 배당금

분석대상 현지법인이 한국 투자자 앞 지급한 배당금은 42억 달러로 전년(41억 달러)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

- ▶ 업종별로는 제조업(29.8억 달러)이 전체 배당 지급액의 69.6%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도소매업(3.3억 달러), 부동산업(2.5억 달러)이 그 뒤를 이음

지역별로는 아시아 현지법인이 전년대비 소폭 감소(△0.8억 달러)한 26억 달러를 지급하였으며, 유럽은 전년대비 약 2억 달러 증가한 10억 달러를, 북미는 약 1억 달러 감소한 3억 달러를 한국 투자자 앞 배당금으로 지급

표 II-10 업종 및 지역별 한국투자자 앞 배당금 지급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체
제조업	1,935	83	799	75	2,892
광업	160	74	0	76	311
도소매업	191	16	97	30	333
부동산업	18	106	96	27	246
정보통신업	8	2	0	0	11
건설업	31	5	1	14	51
전기가스업	140	0	2	15	157
전문과학기술업	23	1	3	0	27
운수창고업	72	2	5	0	80
기타	15	18	1	14	48
전체	2,593	306	1,004	252	4,155

표 II-11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배당금 지급 현황

(단위: 백만 달러)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전체
제조업	2,634	247	12	2,892
광업	264	0	46	311
도소매업	321	13	0	333
부동산업	142	101	3	246
정보통신업	9	1	0	11
건설업	51	0	0	51
전기가스업	157	0	0	157
전문과학기술업	25	1	1	27
운수창고업	73	6	0	80
기타	40	7	0	48
전체	3,717	60	62	4,155

- ▶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3,263개의 현지법인 중 한국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현지법인은 404개사 (비중 12.4%)였음. 전체 한국투자자 앞 배당금 총액 중 흑자 시현 현지법인이 지급한 한국투자자 앞 배당금은 40억 달러 (비중 96.2%)를 기록

표 II -12 배당금 지급 현황

(단위: 개, 백만 달러)

		현지법인수	한국투자자 앞 배당금
전	체	6,463	4,155
배 당 실 시 흑 자 법 인		404	3,997

3. 수출입 효과

가. 순수출¹⁰⁾

한국기업의 대 현지법인 수출은 2,637억 달러, 수입은 1,236억 달러로 순수출액은 전년대비 241억 달러증가한 1,401억 달러를 시현

- ▶ 수출 규모는 전년(2,169억 달러)대비 468억 달러 증가하고, 수입 규모는 전년 (1,009억 달러)대비 227억 달러 증가하며 순수출액 규모 확대

표 II -13 현지법인을 통한 순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수출(한국→현지법인)	수입(현지법인→한국)	순수출(수출- 수입)
관	계 회 사	242,260	115,829	126,432
기	타	21,400	7,754	13,646
전	체	263,660	123,583	140,077

10)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매출 및 매입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해외 현지법인과 모기업 또는 기타 한국 기업과의 거래로 인한 순수출 규모를 계산하였음. 수출은 현지법인 매입현황 중 '한국수입' 항목을, 수입은 현지법인 매출현황 중 '한국수출' 항목을 이용하였음.

업종별 순수출은 국내기업의 현지 판매법인이 많은 도소매업이 1,252억 달러로 전체 순수출액의 89.4%를 차지하였음. 반면, 광업은 음(-)의 순수출을 기록

- ▶ 제조업의 순수출 규모는 전년대비 61억 달러 증가한 133억을 기록함. 세부업종별로는 자동차부품업(195억 달러) 및 1차금속업(38억 달러)의 순수출액이 크게 나타났으며, 전기전자업(△86억 달러)은 전년(△135억 달러) 대비 순수출 마이너스 규모가 축소

표 II-14 주요 업종별 순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수출	수입	순수출
제 조 업	108,573	95,260	13,313
광 업	444	1,918	△1,474
도 소 매 업	148,502	23,333	125,169
전 체	263,660	123,583	140,077

표 II-15 주요 업종별 순수출 세부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수출		수입		순수출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제 조 업	90,824	17,749	91,060	4,201	△236	13,549
광 업	440	4	1,895	23	△1,455	△19
도 소 매 업	145,975	2,528	20,386	2,947	125,589	△420
전 체	242,260	21,400	115,829	7,754	126,432	13,646

현지법인을 통한 순수출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북미가 833억 달러, 유럽이 296억 달러, 이외 지역 국가 중 싱가포르가 63억 달러, 일본이 49억 달러, 호주가 46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주요 선진국 앞 순수출 규모가 전체 순수출액의 대부분의 비중 차지

표 II-16 지역별 순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수출	수입	순수출
아	시	아	125,730	114,656	11,074
북		미	85,884	2,628	83,256
유		럽	32,921	3,299	29,622
기		타	19,126	3,000	16,126
전		체	263,660	123,583	140,077

▶ 한편, 제조업 현지법인이 많은 아시아의 경우, 한국 관계회사의 현지법인으로부터의 수입액이 수출액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며 관계회사를 통한 순수출액은 △5억 달러를 기록

표 II-17 지역별 순수출 세부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수출		수입		순수출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아	시	아	107,423	18,307	107,899	6,757	-476	11,550
북		미	84,742	1,143	2,067	562	82,675	581
유		럽	31,449	1,472	3,226	73	28,223	1,399
기		타	18,647	479	2,637	363	16,010	116
전		체	242,260	21,400	115,829	7,754	126,432	13,646

투자자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1,393억 달러의 순수출을 기록하여
전체 순수출액의 99.4%를 차지

▶ 대기업 및 중소기업 모두 대부분의 순수출액이 관계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

표 II-18 투자자 기업규모별 순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수출	수입	순수출		
대	기	업	254,297	115,018	139,280	
중	소	기	업	8,973	8,056	917
기	타		390	509	△120	
전		체	263,660	123,583	140,077	

표 II-19 투자자 기업규모별 순수출 세부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수출		수입		순수출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대	기	업	234,758	19,539	109,287	5,731	125,472	13,808	
중	소	기	업	7,265	1,708	6,329	1,728	937	△19
기	타		237	153	213	296	24	△143	
전		체	242,260	21,400	115,829	7,754	126,432	13,646	

나. 수출입 유발효과¹¹⁾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수출유발효과는 135.7%, 수입유발효과는 63.6%로 무역수지 개선효과는 전년(62.8%)대비 크게 증가한 72.1%를 기록

- ▶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의 수출유발효과가 428.5%를 기록하며 전체 무역수지 개선을 견인하였으며, 제조업 수출유발효과(136.6%)는 전년(110.2%) 대비 일부 향상되었으나, 기타 주요업종은 저조한 무역수지 개선 효과를 보임.

표 II-20 → 현지법인 수출입 유발효과

(단위: 백만 달러, %)

투자잔액(A)	수출(한국→현지법인)		수입(현지법인→한국)		무역수지 개선효과 (D-E)
	금액(B)	수출유발효과 (D=B/A)	금액(C)	수입유발효과 (E=C/A)	
194,347	263,660	135.7	123,583	63.6	72.1

표 II-21 → 업종별 수출입 유발효과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투자잔액(A)	수출(한국→현지법인)		수입(현지법인→한국)		무역수지 개선효과 (D-E)
		금액(B)	수출유발효과 (D=B/A)	금액(C)	수입유발효과 (E=C/A)	
제 조 업	79,492	108,573	136.6	95,260	119.8	16.7
광 업	37,422	444	1.2	1,918	5.1	△3.9
도 소 매 업	34,656	148,502	428.5	23,333	67.3	361.2
전 체	194,347	263,660	135.7	123,583	63.6	72.1

11) 분석대상 현지법인과 한국 기업간의 수출 및 수입 금액을 한국인 투자자의 투자잔액으로 나누어 수출 및 수입 유발효과를 계산

지역별 무역수지 개선효과는 도소매업 현지법인이 많은 북미가 160.3%로 가장 높고, 제조업 현지법인 비중이 높은 아시아가 13.8%로 가장 낮았음.

- ▶ 북미의 경우, 수출유발효과가 165.4%로 높은 수준임에도 수입유발효과는 5.1%에 불과해 무역수지개선 효과가 높게 나타난 반면, 아시아는 수출유발효과가 156.6%로 전년(125.8%)대비 크게 증가했음에도 수입유발효과 역시 전년(118.5%) 대비 증가한 142.8%를 기록하여 낮은 무역수지개선효과(13.8%)를 보임.

표 II-22 지역별 수출입 유발효과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투자잔액(A)	수출(한국→현지법인)		수입(현지법인→한국)		무역수지 개선효과 (D-E)
		금액(B)	수출유발효과 (D=B/A)	금액(C)	수입유발효과 (E=C/A)	
아 시 아	80,275	125,730	156.6	114,656	142.8	13.8
북 미	51,932	85,884	165.4	2,628	5.1	160.3
유 럽	29,026	32,921	113.4	3,299	11.4	102.1
기 타	33,114	19,126	57.8	3,000	9.1	48.7
전 체	194,347	263,660	135.7	123,583	63.6	72.1

- ▶ 투자자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무역수지 개선효과는 각각 83.5% 및 4.2%로, 기업규모 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무역수지 개선효과 편차(79.3%p)는 전년(68.9%p)대비 확대

표 II-23 투자자 기업규모별 수출입 유발효과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투자잔액(A)	수출(한국→현지법인)		수입(현지법인→한국)		무역수지 개선효과 (D-E)
		금액(B)	수출유발효과 (D=B/A)	금액(C)	수입유발효과 (E=C/A)	
대 기 업	166,734	254,297	152.5	115,018	69.0	83.5
중 소 기 업	21,812	8,973	41.1	8,056	36.9	4.2
기 타	5,802	390	6.7	509	8.8	△2.1
전 체	194,347	263,660	135.7	123,583	63.6	72.1

4. 고용 효과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전체 고용인원은 총 2,029,380명이며, 이 중 한국인은 38,676명으로 전체 고용인원 중 1.9%를 차지함

- ▶ 직종별로는 생산직 근로자가 전체의 83.2%를 차지하였으며, 그 중 현지인 생산직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대부분(82.7%)을 차지함. 한편, 임원의 경우 한국인 비중이 52.3%로, 다른 직종에 비해 한국인 비중이 높은것으로 나타남.

표 II -24 직종별 고용인원 현황

(단위: 명, %)

	총인원	한국인	현지인	한국인 비중
생 산 직	1,688,482	10,826	1,677,656	0.6
영 업 직	99,523	4,416	95,107	4.4
관 리 직	229,979	17,473	212,506	7.6
임 원	11,396	5,961	5,435	52.3
전 체	2,029,380	38,676	1,990,704	1.9

업종별로는 제조업 현지법인이 전체 고용인원의 89.6%인 1,817,818명을 고용하였으며 한국인 비중은 1.5%로 전체 업종 중 가장 낮은 수준

- ▶ 한국인 비중은 부동산업이 18.5%로 가장 높았으며, 정보통신업(10.4%) 및 건설업(9.7%) 또한 타 업종 대비 한국인 고용 비중이 높게 나타남. 이는 해당 업종 특성상 고급기술인력 및 관리인력을 현지에 파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표 II-25 업종별 고용인원 현황

(단위: 명, %)

	총인원	한국인	현지인	한국인 비중
제조업	1,817,818	27,800	1,790,018	1.5
광업	20,413	313	20,100	1.5
도소매업	102,596	4,801	97,795	4.7
부동산업	2,476	457	2,019	18.5
정보통신업	13,949	1,451	12,498	10.4
건설업	12,221	1,182	11,039	9.7
전기가스업	1,612	139	1,473	8.6
전문과학기술업	7,690	693	6,997	9.0
운수창고업	14,927	454	14,473	3.0
기타	35,678	1,386	34,292	3.9
전체	2,029,380	38,676	1,990,704	1.9

지역별로는 아시아에서 종사하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85.7%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고용인원 중 현지인 근로자의 비중은 98.3% 수준

- ▶ 한편, 근로자 중 한국인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북미(6.3%)로, 대기업 도소매업 법인 비중이 높은 북미 지역의 해외진출 현황 상 한국인 관리직 근로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 기인

표 II-26 지역별 고용인원 현황

(단위: 명, %)

	총인원	한국인	현지인	한국인 비중
아시아	1,738,367	28,882	1,709,485	1.7
북미	71,586	4,535	67,051	6.3
유럽	95,581	2,192	93,389	2.3
기타	123,846	3,067	120,779	2.5
전체	2,029,380	38,676	1,990,704	1.9

표 II-27 지역 및 직종별 고용인원 현황

(단위: 명)

	한국인				현지인			
	생산직	영업직	관리직	임원	생산직	영업직	관리직	임원
아 시 아	9,152	2,882	12,419	4,429	1,466,966	74,760	164,601	3,158
북 미	781	917	2,148	689	38,999	11,711	15,337	1,004
유 럽	214	289	1,323	366	68,732	4,890	19,021	746
기 타	679	328	1,583	477	102,959	3,746	13,547	527
전 체	10,826	4,416	17,473	5,961	1,677,656	95,107	212,506	5,435

- ▶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모두 한국인 고용인원 비중이 2% 내외 수준으로, 높은 현지 채용률은 투자자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나타남.

표 II-28 투자자 기업규모별 고용인원 현황

(단위: 명, %)

	총인원	한국인	현지인	한국인 비중
대 기 업	1,367,416	26,849	1,340,567	2.0
중 소 기 업	627,079	10,792	616,287	1.7
기 타	34,885	1,035	33,850	3.0
전 체	2,029,380	38,676	1,990,704	1.9

표 II-29 투자자 기업규모 및 직종별 고용인원 현황

(단위: 명)

	한국인				현지인			
	생산직	영업직	관리직	임원	생산직	영업직	관리직	임원
대 기 업	8,859	3,263	11,806	2,921	1,106,897	69,889	160,106	3,675
중소기업	1,866	1,055	5,238	2,633	542,961	23,468	48,489	1,369
기 타	101	98	429	407	27,798	1,750	3,911	391
전 체	10,826	4,416	17,473	5,961	1,677,656	95,107	212,506	5,435

Ⅲ. 기타 분석

1. 설문사항

가. 개요

제Ⅲ장에서는 연간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한 2017 회계연도 분석대상 현지법인(총 6,463개사) 중 설문조사에 응답한 현지법인 6,462개사의 설문 결과를 분석하였음.

- ▶ 전체 분석대상 중 제조업 현지법인의 수가 과반 이상(58.9%)을 차지하는 바, 제조업 영위 법인의 응답 내용이 전체 설문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표Ⅲ-1 업종 및 지역별 분석대상 현지법인수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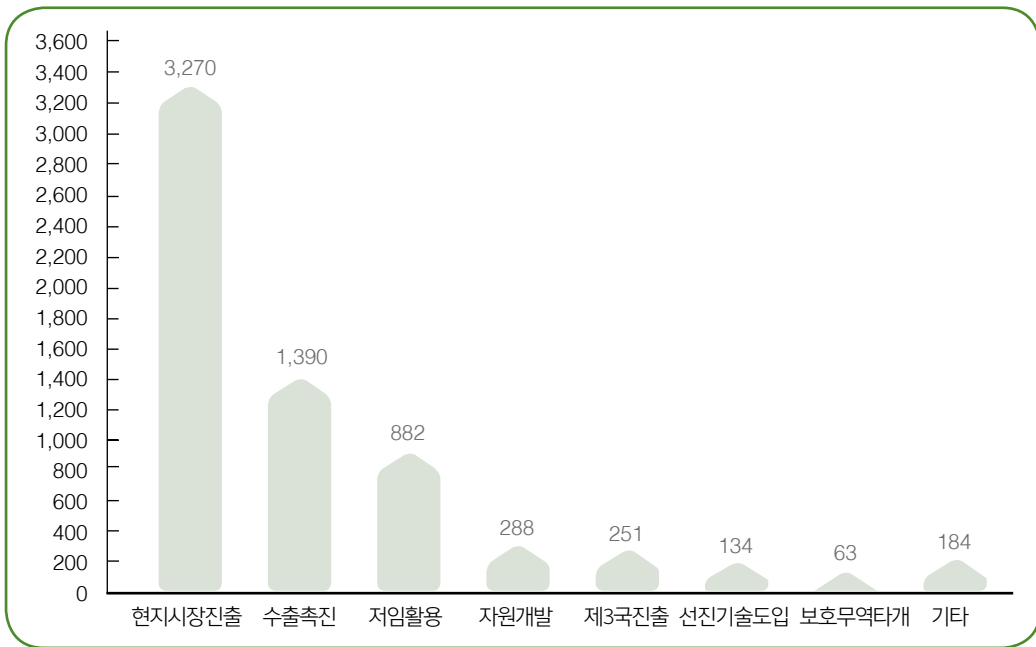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체
제 조 업	3,049	308	239	207	3,803
광 업	49	48	8	50	155
도 소 매 업	427	159	120	47	753
부 동 산 업	176	190	41	19	426
정 보 통 신 업	165	87	21	12	285
건 설 업	98	11	11	38	158
전 기 가 스 업	41	11	16	21	89
전 문 과 학 기 술 업	92	59	17	6	174
운 수 창 고 업	93	18	19	31	161
기 타	235	89	28	106	458
전 체	4,425	980	520	537	6,462

나. 진출목적별 현황

2017 회계연도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해외직접투자 목적을 조사한 결과 응답수 기준 현지시장진출이 3,270개사(50.6%), 수출촉진이 1,390개사(21.5%), 저임활용이 882개사(13.6%) 순으로 나타남.

그림 III-1 진출목적별 현황

(단위: 개사)



다. 영업환경 현황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해외영업환경에 대한 조사 결과, 현지업체와의 경쟁관계에 대해 보통으로 평가한 응답 비중이 59.0%로 가장 많았고, 전체 응답자의 83.3%가 보통 이상으로 평가하는 등 투자자들은 현지법인의 영업환경을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 ▶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업 현지법인이 영업환경을 긍정적이라 평가한 비중이 92.1%로 가장 높았으며, 건설업의 경우, 영업환경에 대해 열악하다고 답변한 비중이 25.3%로 영업환경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2 현지법인 경쟁관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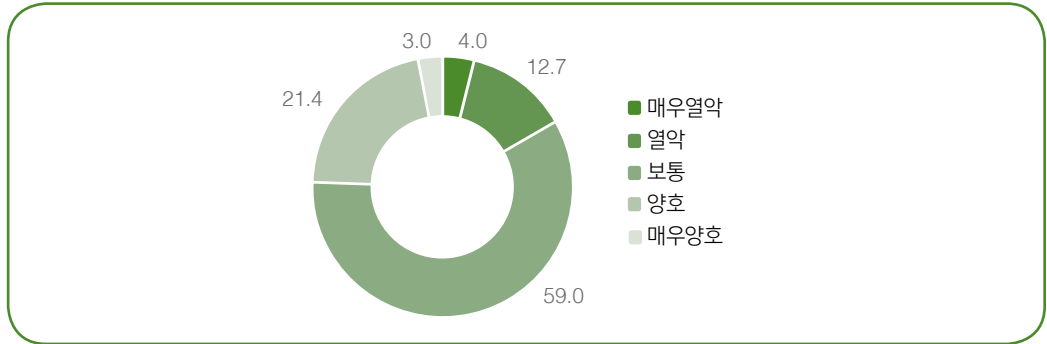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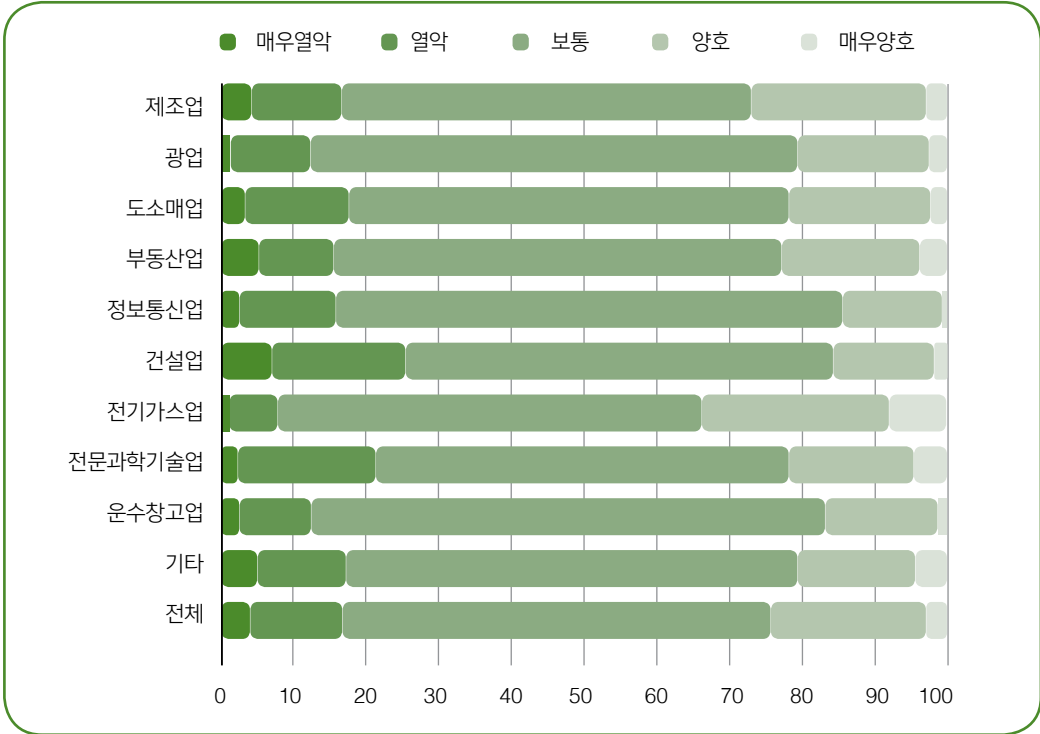
표 III-2 업종별 경쟁관계 현황

(단위: %, 개)

업종	매우열악	열악	보통	양호	매우양호	응답자수
제조업	4.2	12.4	56.4	24.1	2.9	3,803
광업	1.3	11.0	67.1	18.1	2.6	155
도소매업	3.3	14.3	60.6	19.5	2.3	753
부동산업	5.2	10.3	61.7	19.0	3.8	426
정보통신업	2.5	13.3	69.8	13.7	0.7	285
건설업	7.0	18.4	58.9	13.9	1.9	158
전기가스업	1.1	6.7	58.4	25.8	7.9	89
전문과학기술업	2.3	19.0	56.9	17.2	4.6	174
운수창고업	2.5	9.9	70.8	15.5	1.2	161
기타	5.0	12.2	62.2	16.2	4.4	458
전체	4.0	12.7	59.0	21.4	3.0	6,462

그림 III-3 업종별 경쟁관계 비중

(단위: %)



▶ 지역별로는, 현지 영업환경이 보통 이상이라고 한 응답률은 유럽이 90.5%로 가장 높았으며, 아시아는 81.1%로 평균(83.3%)을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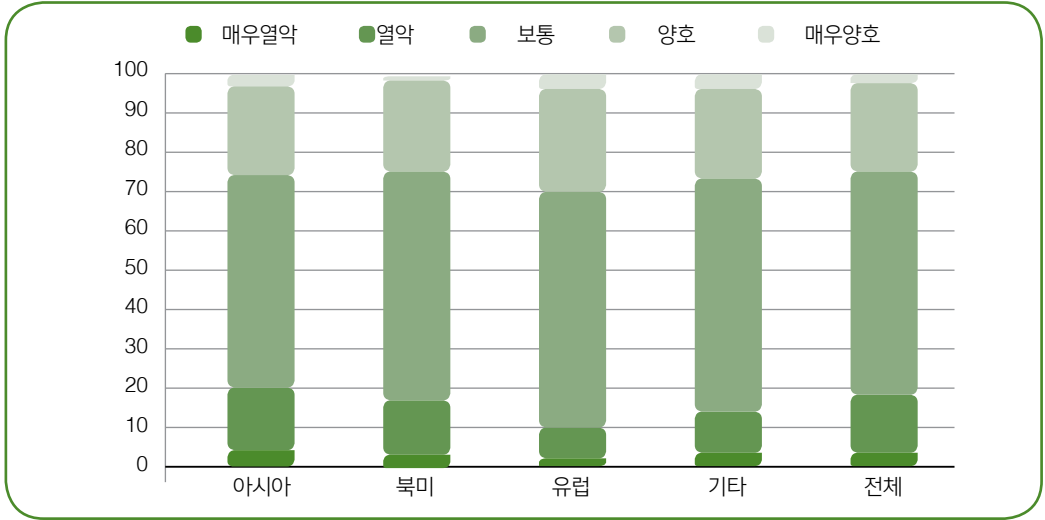
표 III-3 지역별 경쟁관계 현황

(단위: %, 개)

구분	매우열악	열악	보통	양호	매우양호	응답자수
아시아	2.9	4.6	56.9	21.3	14.4	4,425
북미	2.3	2.8	63.6	20.7	10.6	980
유럽	3.8	1.3	62.3	24.6	7.9	520
기타	3.9	4.1	64.2	20.7	7.1	537
전체	3.0	4.0	59.0	21.4	12.7	6,462

그림 III-4 지역별 경쟁관계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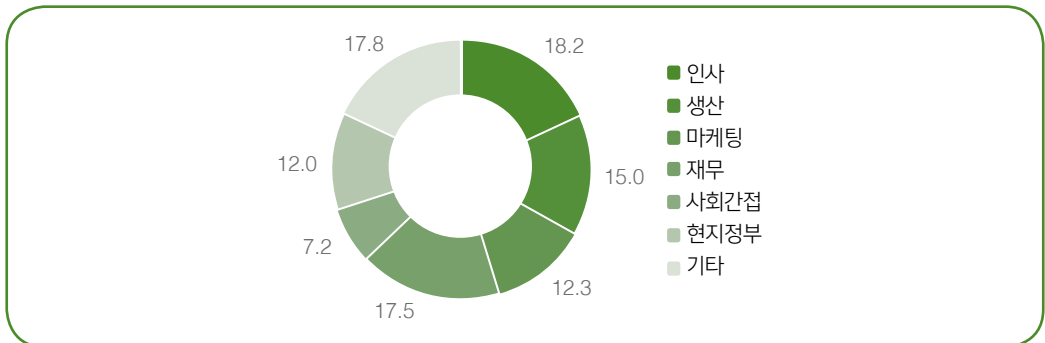


라. 운영상 애로사항¹²⁾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운영상 애로사항(복수응답 허용)은 인사, 재무 등 영업관리와 관련된 사항이 가장 많았으며, 응답 비중은 인사(18.2%), 재무(17.5%), 생산(15.0%) 등의 순임.

그림 III-5 현지법인 운영상 애로사항

(단위: %)



12) 운영상 애로사항은 복수 응답이 가능하여 전체 응답수가 분석대상(6,462개사)보다 많음.

- ▶ 제조업의 경우, 현지 인력 관리, 잦은 생산직 이직 등으로 인사(20.8%) 및 생산(19.9%) 관련 애로사항이 가장 많았으며, 현지시장 앞 판매업을 영위하는 도소매업은 마케팅(24.0%), 부동산업은 재무관련 애로사항이 25.5%로 가장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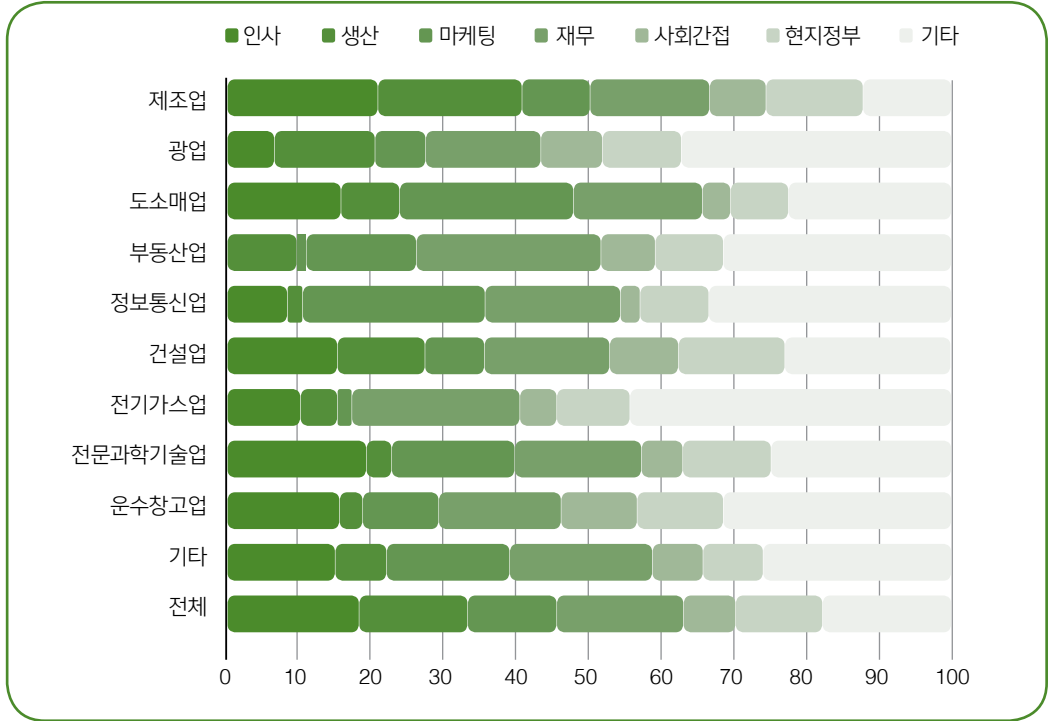
표 III-4 업종별 운영상 애로사항

(단위: %, 개)

	인사	생산	마케팅	재무	사회간접	현지정부	기타	응답수
제조업	20.8	19.9	9.4	16.5	7.8	13.4	12.2	6,237
광업	6.5	13.9	7	15.9	8.5	10.9	37.3	201
도소매업	15.7	8.1	24	17.8	3.9	8	22.5	1,029
부동산업	9.6	1.3	15.2	25.5	7.5	9.4	31.5	521
정보통신업	8.3	2.1	25.2	18.7	2.7	9.5	33.5	337
건설업	15.2	12.1	8.2	17.3	9.5	14.7	22.9	231
전기가스업	10.1	5.1	2	23.2	5.1	10.1	44.4	99
전문과학기술업	19.2	3.5	17	17.5	5.7	12.2	24.9	229
운수창고업	15.5	3.2	10.5	16.9	10.5	11.9	31.5	219
기타	14.9	7.1	17	19.7	7	8.3	26	630
전체	18.2	15	12.3	17.5	7.2	12	17.8	9,733

그림 III-6 업종별 운영상 애로사항 비중

(단위: %)



▶ 전 지역에서 재무 관련 애로사항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가운데, 제조업 현지법인 중심의 아시아는 인사 관련 애로사항 비중이, 도소매업 비중이 높은 북미는 마케팅 관련 애로사항 비중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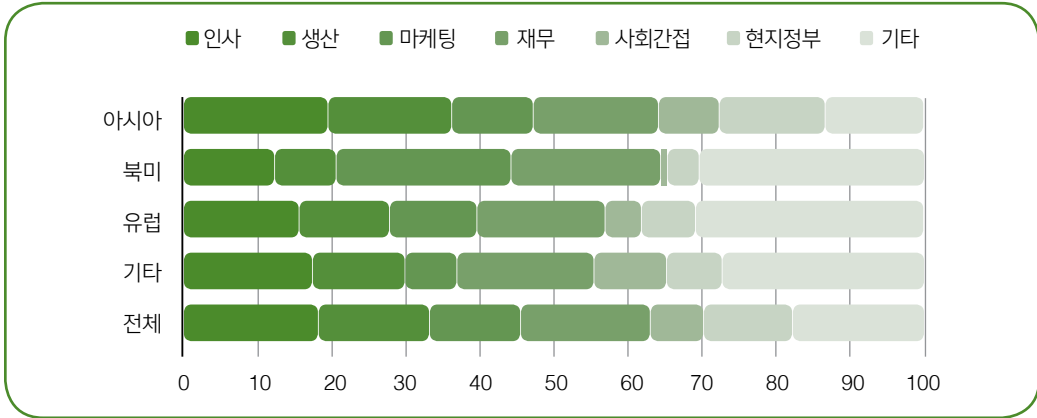
표 III-5 지역별 운영상 애로사항

(단위: %, 개)

	인사	생산	마케팅	재무	사회간접	현지정부	기타	응답수
아 시 아	19.5	16.7	11	16.9	8.2	14.3	13.3	7,049
북 미	12.3	8.3	23.6	20.2	0.9	4.3	30.4	1,235
유 럽	15.6	12.2	11.8	17.3	4.9	7.3	30.8	694
기 타	17.4	12.5	7	18.5	9.8	7.5	27.3	755
전 체	18.2	15	12.3	17.5	7.2	12	17.8	9,733

그림 III-7 지역별 운영상 애로사항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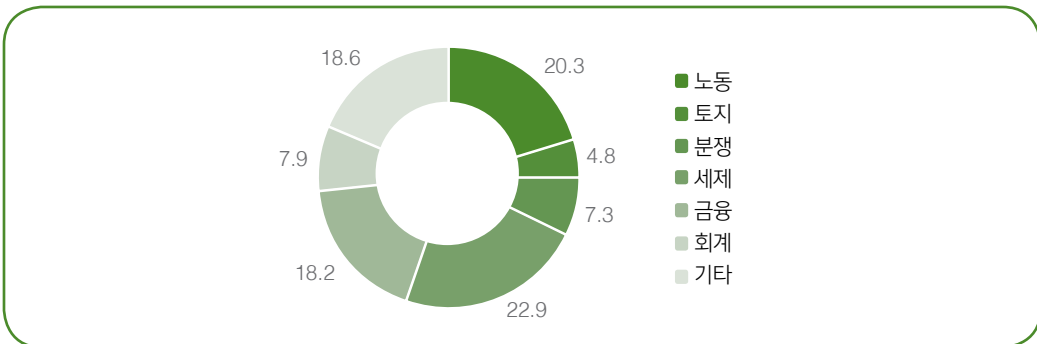


마. 개선이 필요한 현지국의 법규나 제도¹³⁾

분석대상 현지법인이 소재한 현지국의 법규나 제도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세제, 노동, 금융 순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나타남.

그림 III-8 개선이 필요한 현지국 법규나 제도

(단위: %)



13) 개선이 필요한 현지국의 법규나 제도는 복수 응답이 가능하여 전체 응답수가 분석대상(6,462개사)보다 많음.

표 III-6 업종별 개선이 필요한 현지국 법규나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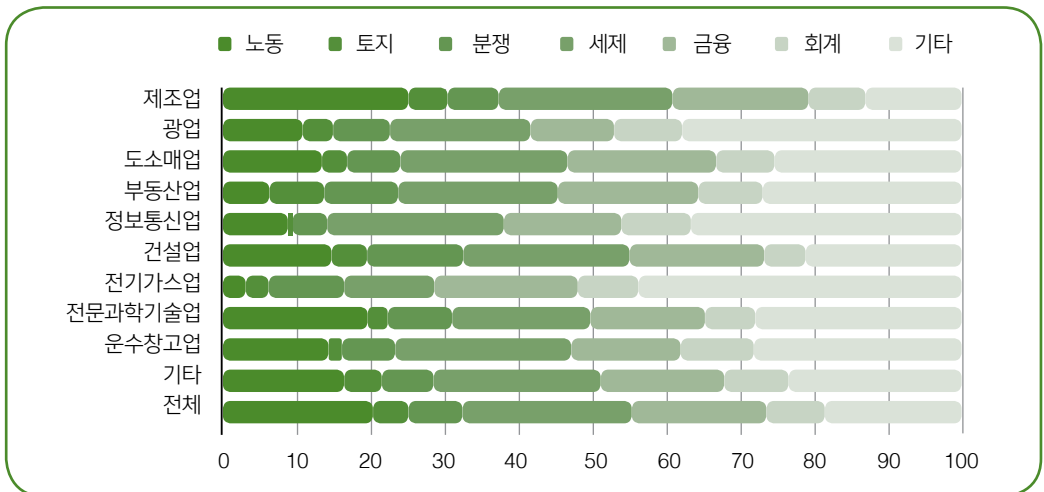
(단위: %, 개)

	노동	토지	분쟁	세제	금융	회계	기타	응답수
제조업	25.1	5.3	6.9	23.5	18.4	7.7	13.1	5,724
광업	10.8	4.1	7.7	19	11.3	9.2	37.9	195
도소매업	13.4	3.4	7.2	22.6	20.1	7.9	25.3	999
부동산업	6.3	7.4	10	21.6	19	8.7	27	541
정보통신업	8.8	0.6	4.7	23.9	15.9	9.4	36.6	339
건설업	14.7	4.8	13	22.5	18.2	5.6	21.2	231
전기가스업	3.1	3.1	10.2	12.2	19.4	8.2	43.9	98
전문과학기술업	19.6	2.7	8.7	18.7	15.5	6.8	27.9	219
운수창고업	14.3	1.8	7.2	23.8	14.8	9.9	28.3	223
기타	16.4	5.1	7	22.6	16.7	8.7	23.4	610
전체	20.3	4.8	7.3	22.9	18.2	7.9	18.6	9,179

▶ 제조업은 노동 및 세제 관련 개선 요구 응답이 많았으며, 광업은 인허가 규제 개선에 대한 의견이, 정보통신업은 외국인 지분투자 제한 법규 개선에 대한 의견이 있었음.

그림 III-9 업종별 개선이 필요한 현지국 법규나 제도 비중

(단위: %)



▶ 지역별로는 아시아의 경우 세제 및 노동 관련 개선 요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진출국 공공 영역의 행정처리 효율성 및 청렴도 개선 등과 관련된 의견이 다수였음. 북미와 유럽은 금융 및 세제 관련 개선 요구가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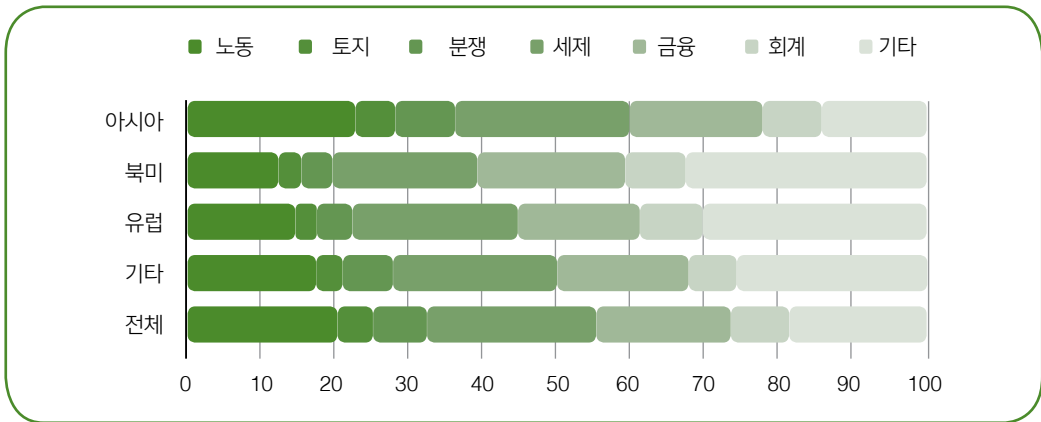
표 III-7 지역별 개선이 필요한 현지국 법규나 제도

(단위: %, 개)

	노동	토지	분쟁	세제	금융	회계	기타	응답수
아 시 아	22.7	5.4	8.1	23.6	18	8	14.2	6,629
북 미	12.3	3.1	4.2	19.6	20	8.2	32.6	1,169
유 럽	14.6	2.9	4.8	22.4	16.5	8.5	30.3	686
기 타	17.4	3.6	6.8	22.2	17.8	6.5	25.8	695
전 체	20.3	4.8	7.3	22.9	18.2	7.9	18.6	9,179

그림 III-10 지역별 개선이 필요한 현지국 법규나 제도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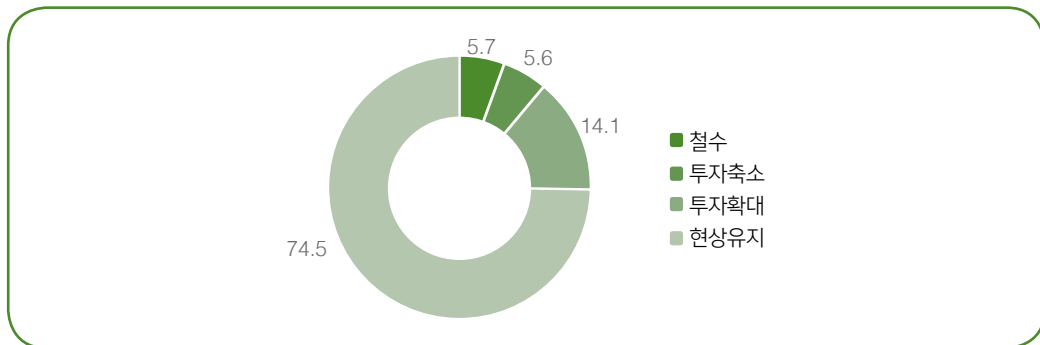


바. 향후 투자 계획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74.5%가 향후 투자 계획에 대해 '현상유지'라고 답했으며, '현상유지 또는 투자확대'라고 대답한 비율은 총 88.7%를 차지함.

그림 III-11 현지법인 향후 투자 계획 현황

(단위: %)



▶ 업종별로 '현상유지 또는 투자확대'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운수창고업(92.5%), 정보통신업(92.3%), 도소매업(90.4%) 순이었으며, 광업 및 건설업의 경우 '투자축소 또는 철수'로 응답한 비율이 각각 25.8%, 21.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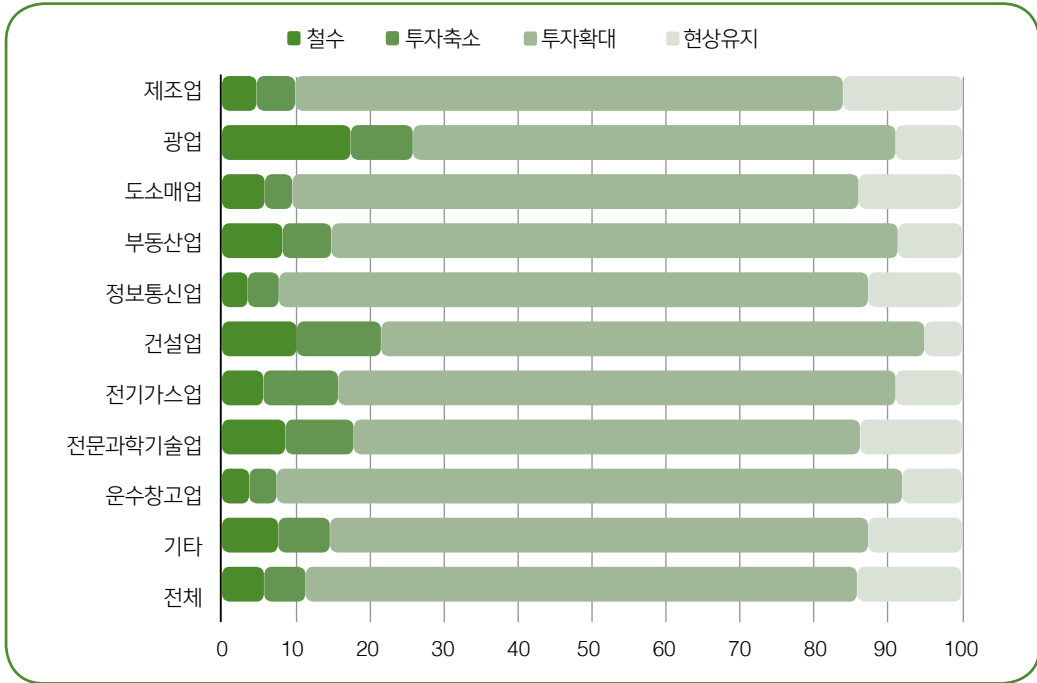
표 III-8 업종별 향후 투자 계획 현황

(단위: %, 개)

업종	철수	투자축소	현상유지	투자확대	응답수
제조업	4.7	5.2	74	16.1	3,803
광업	17.4	8.4	65.2	9	155
도소매업	5.8	3.7	76.5	13.9	753
부동산업	8.2	6.6	76.5	8.7	426
정보통신업	3.5	4.2	79.6	12.6	285
건설업	10.1	11.4	73.4	5.1	158
전기가스업	5.6	10.1	75.3	9	89
전문과학기술업	8.6	9.2	68.4	13.8	174
운수창고업	3.7	3.7	84.5	8.1	161
기타	7.6	7	72.7	12.7	458
전체	5.7	5.6	74.5	14.1	6,462

그림 III-12 업종별 향후 투자 계획 비중

(단위: %)



▶ 지역별로는 '현상유지 또는 투자확대'로 응답한 비중은 대양주(92.6%), 중남미(91.3%), 북미(90.7%) 순으로 높았고, '철수 또는 투자축소' 응답 비중은 중동(20.0%), 아시아(12.0%) 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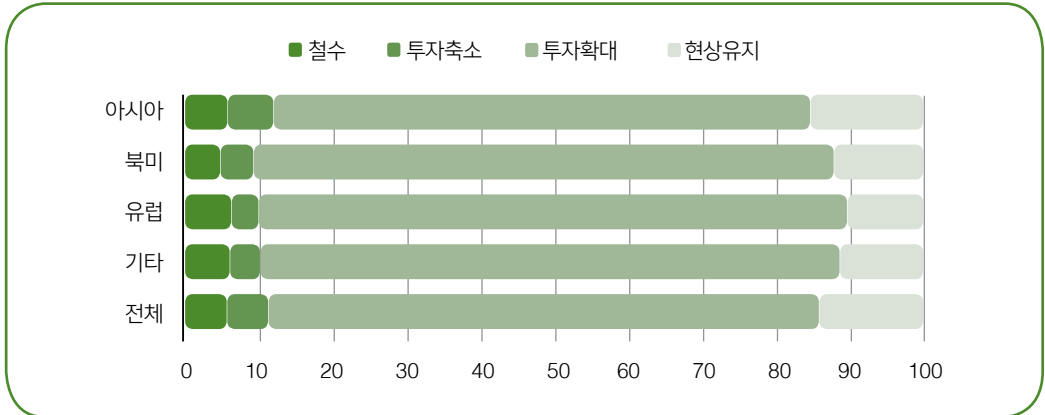
표 III-9 지역별 투자 계획

(단위: %, 개)

			철수	투자축소	현상유지	투자확대	응답수
아	시	아	5.8	6.2	72.6	15.3	4,425
북		미	4.8	4.5	78.5	12.2	980
유		럽	6.3	3.7	79.6	10.4	520
기		타	6.1	4.1	78.4	11.4	537
전		체	5.7	5.6	74.5	14.1	6,462

그림 III-13 지역별 향후 투자 계획 비중

(단위: %)



2017 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제 2부

주제별 심층 분석

95p

-

IV. 5년 시계열 현지법인 경영분석

133p

-

V. 제조업 현지법인의 세부 업종별
경영분석

165p

-

VI. 시사점

IV. 5년 시계열 현지법인 경영분석

1. 분석 목적

- 제Ⅳ장에서는 최근 5년간 수집된 현지법인의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전체를 시계열로 분석하여 현지법인들의 경영실적과 매출입구조 등을 살펴봄으로써 현지법인의 경영성과 및 변화를 파악하고 그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함.

2. 분석 범위

- 분석대상기업은 2013 회계연도부터 2017 회계연도까지 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연간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한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선정¹⁴⁾
 - ▶ 지난 5년간 연속하여 제출된 보고서 기준이 아니라 각 연도마다 제출된 보고서 전체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2013년 5,738개사, 2014년 5,666개사, 2015년 6,045개사, 2016년 6,225개사, 2017년 6,463개사의 자료를 시계열로 분석하였음.
- 연도별 분석대상 법인수 및 분석대상법인 투자잔액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14) 각 연도마다 제출한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하므로, 연도별 분석대상 기업수도 상이함

표Ⅳ-1 분석대상 법인수 현황

(단위: 개)

	2013	2014	2015	2016	2017
업 종 별	5,738	5,666	6,045	6,225	6,463
제조업	3,451	3,313	3,528	3,599	3,804
광업	169	183	177	176	155
도소매업	669	691	723	775	753
부동산업	301	284	335	385	426
정보통신업	196	219	246	248	285
건설업	139	143	149	159	158
전기가스업	63	72	74	78	89
전문과학기술업	121	136	144	159	174
운수창고업	153	149	145	149	161
기타	476	476	524	497	458
지역 별	5,738	5,666	6,045	6,225	6,463
아시아	4,032	3,952	4,132	4,247	4,426
북미	783	788	881	922	980
유럽	438	465	487	484	521
기타	485	461	545	572	536
투자자규모 별	5,738	5,666	6,045	6,225	6,463
대기업	2,449	2,720	2,839	2,932	2,960
중소기업	2,846	2,465	2,630	2,740	2,930
기타	443	481	576	553	573

표IV-2 분석대상 법인 투자잔액 현황

(단위: 백만 달러)

	2013	2014	2015	2016	2017
업 종 별	135,801	150,551	169,626	184,701	194,347
제조업	64,740	67,082	73,417	77,305	79,492
광업	26,477	33,611	36,751	39,773	37,422
도소매업	17,985	21,461	24,049	28,892	34,656
부동산업	6,240	4,533	7,753	10,905	11,809
정보통신업	1,950	2,531	3,094	3,491	6,183
건설업	2,428	3,358	4,228	5,440	5,369
전기가스업	3,061	4,221	4,345	4,477	4,844
전문과학기술업	3,452	3,642	2,321	2,762	4,357
운수창고업	2,807	2,358	2,661	2,687	2,825
기타	6,660	7,755	11,006	8,968	7,389
지역 별	135,801	150,551	169,626	184,701	194,347
아시아	63,119	68,688	75,362	79,242	80,275
북미	31,224	34,944	40,167	47,408	51,932
유럽	21,885	23,035	24,238	24,624	29,023
기타	19,573	23,884	29,859	33,427	33,117
투자자 규모 별	135,801	150,551	169,626	184,701	194,347
대기업	114,268	130,047	144,249	159,168	166,734
중소기업	17,878	14,614	17,413	19,459	21,812
기타	3,655	5,890	7,964	6,074	5,802

3. 최근 5년간 경영분석

가. 경영성과

(1) 매출액

분석대상 기업의 평균매출액은 전년대비 6.8% 증가한 110백만 달러를 시현하였으며, 2013년 이후 4년만에 증가세로 반전하였음.

- ▶ 한편, 연도별 최대매출액 및 매출액 표준편차 추이 등을 볼 때,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14~'16 3년 연속 현지법인의 매출실적 성장세가 감소세를 보이다가 '17년 반등하였으나, '14년 수준에는 못미치는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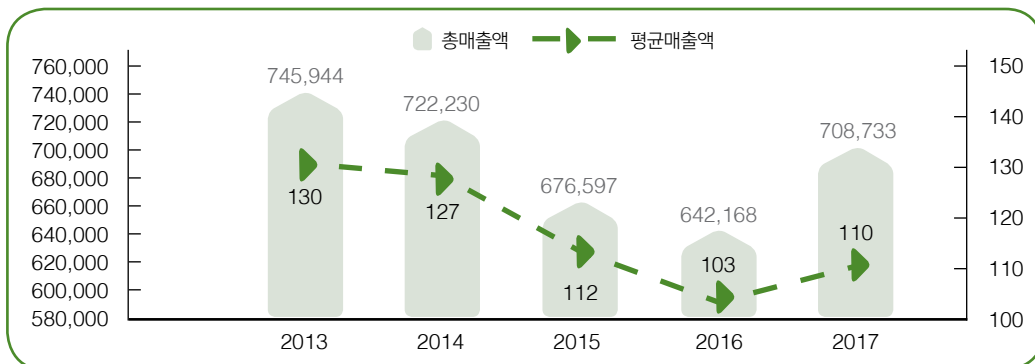
표Ⅳ-3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 달러)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745,944	722,230	676,597	642,168	708,733
평균	130	127	112	103	110
표준편차	915	861	808	759	800
최대값	30,753	29,982	31,615	29,764	29,507

그림Ⅳ-1 매출 현황 및 추이

(단위: 백만 달러)



(매출액) 최근 5년간 현지법인의 매출실적 분석결과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합한 매출비중은 90~92%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제조업과 도소매업 비중이 소폭 하락하면서, 전기가스업 및 광업 매출비중이 상승함.

- ▶ 제조업은 '13년 매출비중 54.5%에서 '17년 51.4%로 매출액 하락과 함께 매출 비중 또한 하락

전기가스업이 '17년 중국 매출 증가의 영향으로 매출액이 전년대비 498% 증가 하면서 매출비중도 1.1%p 상승, 광업, 제조업, 도소매업도 각각 47%, 9.5%, 8.8% 매출액이 증가하였음.

표IV-4 업종별 매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2013	2014	2015	2016	2017
제 조 업	406,815	376,720	344,530	332,396	364,133
광 업	21,143	17,778	13,335	10,027	14,748
도 소 매 업	280,079	278,651	273,387	264,291	287,585
부 등 산 업	1,002	856	1,174	1,209	2,009
정 보 통 신 업	3,963	4,922	5,197	5,568	7,864
건 설 업	6,888	7,080	6,997	5,084	3,484
전 기 가 스 업	4,290	10,162	5,152	1,567	9,370
전 문 과 학 기 술 업	3,130	3,504	3,519	3,287	3,532
운 수 창 고 업	5,789	5,878	6,773	7,758	5,355
기 타	12,845	16,679	16,533	10,982	10,654
전 체	745,944	722,230	676,597	642,168	708,733

표Ⅳ-5 업종별 매출 증가율 추이

(단위: %)

	2013	2014	2015	2016	2017
제조업	9.4	△7.4	△8.5	△3.5	9.5
광업	△0.8	△15.9	△25.0	△24.8	47.1
도소매업	10.3	△0.5	△1.9	△3.3	8.8
부동산업	39.4	△14.6	37.2	2.9	66.2
정보통신업	83.7	24.2	5.6	7.1	41.2
건설업	30.8	2.8	△1.2	△27.3	△31.5
전기가스업	△17.1	136.9	△49.3	△69.6	498.1
전문과학기술업	23.0	11.9	0.4	△6.6	7.5
운수창고업	11.7	1.5	15.2	14.5	△31.0
기타	117.5	29.8	△0.9	△33.6	△3.0
전체	10.7	△3.2	△6.3	△5.1	10.4

(매출비중) 지역별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매출비중이 '13년 57.7%에서 '17년 54.5%로 점차 하락하는 가운데,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하는 북미 매출비중이 '13년 17.9%에서 '17년 21.5%로 상승세를 나타냄.

- ▶ 한편, 아시아 지역은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등 현지법인 매출비중이 증가하면서 중국의 매출비중 감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매출비중은 54.5%로 전년(54.1%)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매출증가율) 지역별 매출증가율은 전 지역에서 매출액이 상승세로 전환한 가운데, 북미지역의 '17년도 매출증가율은 2.5%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나, 5년 평균 매출증가율은 기타지역 6.6%에 이어 2위인 4.0%를 시현함.

표IV-6 지역별 매출액 현황¹⁵⁾

(단위: 백만 달러)

	2013	2014	2015	2016	2017
아 시 아	430,346	418,743	368,737	347,309	386,385
북 미	133,760	134,470	153,696	148,658	152,444
유 럽	124,476	115,071	106,763	100,949	114,358
기 타	57,362	53,945	47,401	45,252	55,546
전 체	745,944	722,230	676,597	642,168	708,733

표IV-7 지역별 매출 증가율 추이

(단위: %)

	2013	2014	2015	2016	2017
아 시 아	13.0	△2.7	△11.9	△5.8	11.3
북 미	5.8	0.5	14.3	△3.3	2.5
유 럽	0.7	△7.6	△7.2	△5.4	13.3
기 타	32.8	△6.0	△12.1	△4.5	22.7
전 체	10.7	△3.2	△6.3	△5.1	10.4

15) 기타 지역은 중남미, 대양주, 중동, 아프리카를 포함

(평균매출액)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3.6%), 광업(67%) 및 도소매업(12.0%) 등 주요 업종의 평균 매출액이 모두 전년대비 증가함에 따라, 전체 현지법인의 평균매출액 또한 전년대비 다소 증가하였음.

- ▶ 제조업과 광업, 도소매업은 2014년부터 3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였으나, '17년에는 4년만에 증가세로 전환 하였으며, 전기가스업은 국내 발전사의 중국도 시가스 사업에 대한 매출 증가 등으로 총매출액이 78억 달러 상승하여, 평균 매출액 증가세를 주도함.

한편, 2016년과 마찬가지로 도소매업의 평균매출액 규모(3.8억 달러)가 가장 컸으며, 전기가스업(1.1억 달러)과 제조업(1.0억 달러)이 그 뒤를 이었음.

표 IV-8 업종별 평균 매출액 현황¹⁶⁾

(단위: 백만 달러)

	2013	2014	2015	2016	2017
제 조 업	118	114	98	92	96
광 업	125	97	75	57	95
도 소 매 업	419	403	378	341	382
부 동 산 업	3	3	4	3	5
정 보 통 신 업	20	22	21	22	28
건 설 업	50	50	47	32	22
전 기 가 스 업	68	141	70	20	105
전 문 과 학 기 술 업	26	26	24	21	20
운 수 창 고 업	38	39	47	52	33
기 타	27	35	32	22	23
전 체	130	127	112	103	110

16) 기타에는 임대업, 수도, 하수 원료 재생업, 보건업, 교육서비스업, 농림업, 예술스포츠여가업, 숙박음식업, 협회단체수리업 등이 포함됨.

지역별로는, 상대적으로 도소매업 비중이 높은 북미 및 유럽의 2017년 평균 매출액이 아시아 대비 각각 1.8배 및 2.5배 수준을 보였으며, 북미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평균 매출액이 전년대비 증가세를 시현하였음.

- ▶ 한편, 아시아 지역은 인도,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현지법인 매출액이 증가하여 중국의 $\Delta 6.1\%$ 감소에도 불구하고 평균 매출액이 전년대비 6.8% 증가하였음.

표 IV-9 지역별 평균 매출액 현황¹⁷⁾

(단위: 백만 달러)

	2013	2014	2015	2016	2017
아 시 아	107	106	89	82	87
북 미	171	171	174	161	156
유 럽	284	247	219	209	219
기 타	118	117	87	79	104
전 체	130	127	112	103	110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평균매출액은 전년대비 9.7% 증가하였으며, 중소기업 평균매출액은 1.7% 증가하였음. 특히 대기업은 2013~16년 4년 연속 평균매출액 감소세를 시현하였으나, 2017년 5년만에 상승세로 반전하였음.

- ▶ 대기업은 광업, 부동산업, 전기가스업을 중심으로 평균매출액이 증가하였으며, 중소기업은 정보통신업, 부동산업에서 평균매출액이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으로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함.

17) 기타 지역은 중남미, 대양주, 중동, 아프리카를 포함

표 IV-10 투자자 기업규모별 평균 매출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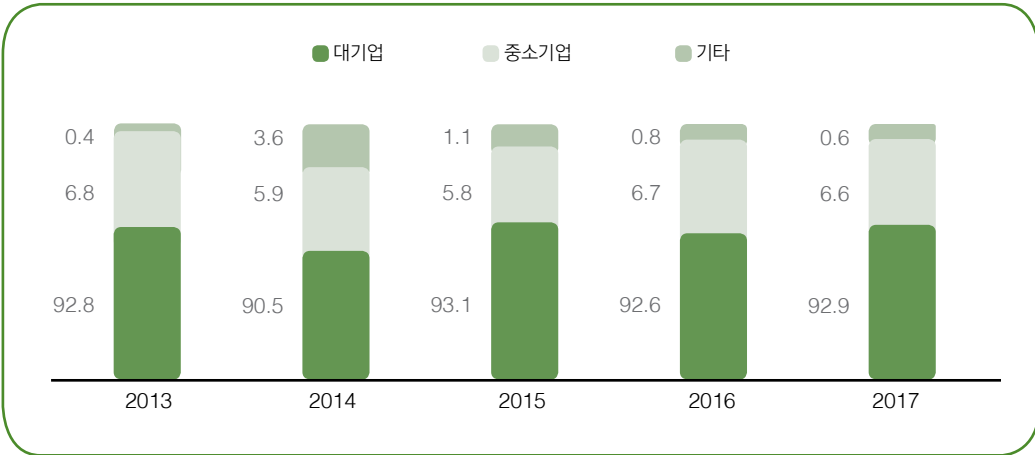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2013	2014	2015	2016	2017
대 기 업	283	249	222	203	222
중 소 기 업	18	16	15	16	16
기 타	7	10	12	9	7
전 체	130	127	112	103	110

- ▶ 전체 매출액에서 대기업의 비중은 2016년 92.6%에서 2017년 92.9%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중소기업의 비중은 2012년 이후 5~6%대를 유지하고 있음.

그림 IV-2 투자자 기업규모별 매출액 비중 추이

(단위: %)



(2) 영업이익

(영업이익) 평균 영업이익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오다 2013~16 4년 연속 감소하였으나, 2017년에는 기저효과 등에 따른 매출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2.6백만 달러) 대비 28.4% 증가한 3.3백만 달러를 기록함.

- ▶ 영업이익률은 2015년 2.4%까지 하락하였으나, '16~'17년에는 반등에 성공하면서 2016년 2.5%, 2017년 3.0%를 기록함.

한편, 기업 간 영업이익 표준편차가 2011년 49백만 달러에서 2014년 73백만 달러로 확대되며 기업 간 실적 차이가 점차 심화되었고, 16년에는 34백만 달러까지 축소되었으나 2017년 다시 41백만 달러로 '15년 수준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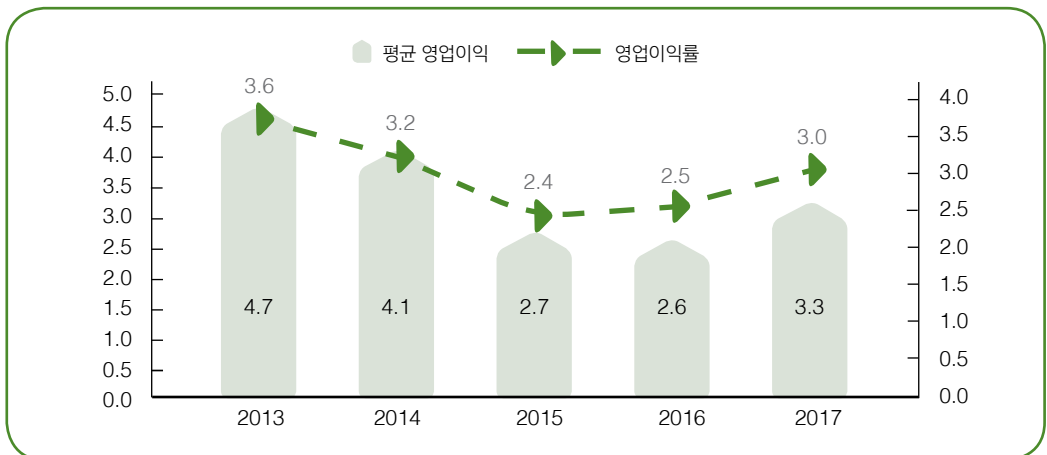
표IV-11 → 영업이익 현황

(단위: 백만 달러,%)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26,747	23,077	16,286	15,940	21,256
평 균	4.7	4.1	2.7	2.6	3.3
영 업 이 익 률	3.6	3.2	2.4	2.5	3.0
표 준 편 차	61	73	41	34	41
최 소 값	△522	△1,095	△993	△524	△627
최 대 값	2,378	3,024	1,620	1,464	1,439

그림IV-3 → 평균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 추이

(단위: 백만 달러,%)



(평균 영업이익) 업종별로 살펴보면, '14~'16년 3년간 제조업, 광업, 도소매업 등 주요 업종의 평균영업이익은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여 왔으나, '17년에는 회복세를 나타냄.

- ▶ 제조업은 평균 영업이익이 2013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4년부터 감소하여 '15~'17 3년간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광업은 평균 영업이익이 2011년 39백만 달러까지 증가한 후 2012년부터 감소세를 지속하여 2015~'16년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의 현지법인 영업실적 호조로 2017년에는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함.

표 IV-12 업종별 평균 영업이익 현황

(단위: 천 달러)

	2013	2014	2015	2016	2017
제 조 업	5,406	4,599	3,633	3,638	3,692
광 업	8,283	5,463	△7,396	△1,557	22,830
도 소 매 업	6,329	4,055	4,004	2,708	1,357
부 동 산 업	738	702	969	903	1,204
정 보 통 신 업	156	801	△536	△558	△64
건 설 업	△5,080	△8,892	△3,520	△681	866
전 기 가 스 업	32,844	55,522	11,898	4,496	17,582
전 문 과 학 기 술 업	△127	523	△94	△687	△1,029
운 수 창 고 업	497	2,131	4,026	3,294	3,184
기 타	1,635	1,151	1,458	382	264
전 체	4,661	4,073	2,694	2,561	3,289

- ▶ 업종별 영업이익률을 살펴보면, 주요 업종인 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은 2014년까지는 4%대를 유지하여 왔으나, 2015~17년 3년간은 3%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건설업은 2012년 이후 5년만에 영업손실에서 영업 이익으로 전환하였음.

주요 업종 중 부동산업과 광업의 영업이익률이 각각 25.5%, 24.0%로 높게 나타고 있으며, 전문과학기술업은 2016년 $\Delta 3.3\%$, 2017년 $\Delta 5.1\%$ 로 가장 저조한 수준을 기록함.

표 IV-13 업종별 영업이익률 현황

(단위: %)

	2013	2014	2015	2016	2017
제 조 업	4.6	4.0	3.7	3.9	3.9
광 업	6.6	5.6	$\Delta 9.8$	$\Delta 2.7$	24.0
도 소 매 업	1.5	1.0	1.1	0.8	0.4
부 동 산 업	22.2	23.3	27.6	28.8	25.5
정 보 통 신 업	0.8	3.6	$\Delta 2.5$	$\Delta 2.5$	$\Delta 0.2$
건 설 업	$\Delta 10.3$	$\Delta 18.0$	$\Delta 7.5$	$\Delta 2.1$	3.9
전 기 가 스 업	48.2	39.3	17.1	22.4	16.7
전 문 과 학 기 술 업	$\Delta 0.5$	2.0	$\Delta 0.4$	$\Delta 3.3$	$\Delta 5.1$
운 수 창 고 업	1.3	5.4	8.6	6.3	9.6
기 타	6.1	3.3	4.6	1.7	1.1
전 체	3.6	3.2	2.4	2.5	3.0

지역별로 살펴보면, 평균 영업이익의 규모는 유럽, 기타지역, 아시아, 북미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지역 중 브라질, UAE 등에서 전자, 철강의 영업실적이 개선되면서 평균 이익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음.

- ▶ 북미의 평균 영업이익이 '14년 5.9백만 달러에서 '17년 0.4백만 달러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자동차 도소매업 및 전문과학기술업 등의 현지법인의 실적악화에 기인함. 유럽의 경우에는 러시아, 체코, 독일 등의 현지법인 실적개선으로 전년대비 평균 영업이익이 증가함.

지역별 영업이익률을 살펴보면, 아시아는 최근 5년간 3~4%대를 견조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북미는 최근 3년간 광업과 도소매업의 실적악화로 영업이익률이 급락하고 있음. 한편, 유럽은 2016~17년 2년 연속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실적개선에 따라 영업이익률이 상승하였음.

표 IV-14 지역별 평균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 현황

(단위: 천 달러,%)

		2013	2014	2015	2016	2017
평균영업이익	아 시 아	4,252	3,558	3,486	3,045	3,217
	북 미	3,801	5,860	1,627	982	374
	유 럽	7,530	4,430	3,683	5,260	6,360
	기 타	6,860	5,072	△2,470	△772	6,231
	전 체	4,661	4,073	2,694	2,561	3,289
영업이익률	아 시 아	4.0	3.4	3.9	3.7	3.7
	북 미	2.2	3.4	0.9	0.6	0.2
	유 럽	2.6	1.8	1.7	2.5	2.9
	기 타	5.8	4.3	△2.8	△1.0	6.0
	전 체	3.6	3.2	2.4	2.5	3.0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의 평균 영업이익은 2013년부터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여오다가 2017년 증가세로 전환하였음. 중소기업의 경우 2014년 큰 폭의 하락 이후 2015~2016년에는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17년에는 다시하락세로 전환함.

- ▶ 기업규모별 영업이익률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전 기간에 걸쳐 대기업 영업이익률이 중소기업보다 높았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영업이익률 차이가 2013년 1.0%p에 불과했으나, 2014년에는 3.3%p로 크게 확대되었고, 이후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면서 2017년에는 1.5%p 차이가 나타남.

2017년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부동산업(36.8%), 제조업(1.9%) 등의 영업이익률 개선에도 불구하고 하고 전기가스업(△71.1%), 광업(△41.1%)의 영업실적 부진 등으로 2017년 영업이익률 1.6%로 전년대비 0.5%p 하락하였음.

표 IV-15

투자자 기업규모별 평균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 현황

(단위: 천 달러,%)

		2013	2014	2015	2016	2017
평균영업이익	대 기 업	10,336	8,348	5,523	5,032	6,909
	중 소 기 업	475	22	132	327	246
	기 타	186	656	449	524	147
	전 체	4,661	4,073	2,694	2,561	3,289
영 업 이 익 률	대 기 업	3.7	3.4	2.5	2.5	3.1
	중 소 기 업	2.7	0.1	0.9	2.1	1.6
	기 타	2.6	6.6	3.7	5.8	2.0
	전 체	3.6	3.2	2.4	2.5	3.0

(3)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 평균 당기순이익은 2009년 흑자전환 이후 2012년까지 증가세였으나, 2013년부터는 감소세로 전환 2015년에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며, 2016~17년에는 2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냄.

- ▶ 2017년 영업이익률(3.0%)은 전년대비 0.5%p 상승하였고, 당기순이익률 또한 2.0%를 기록하며 전년(1.5%) 대비 0.5%p 상승함.

한편, 당기순이익 표준편차가 2013년 48백만 달러에서 2015년 74백만 달러로 수익성 편차가 심화되었으나, 2017년 45백만 달러로 감소하고 있는 바, 기업간 수익성 편차가 일정 범위내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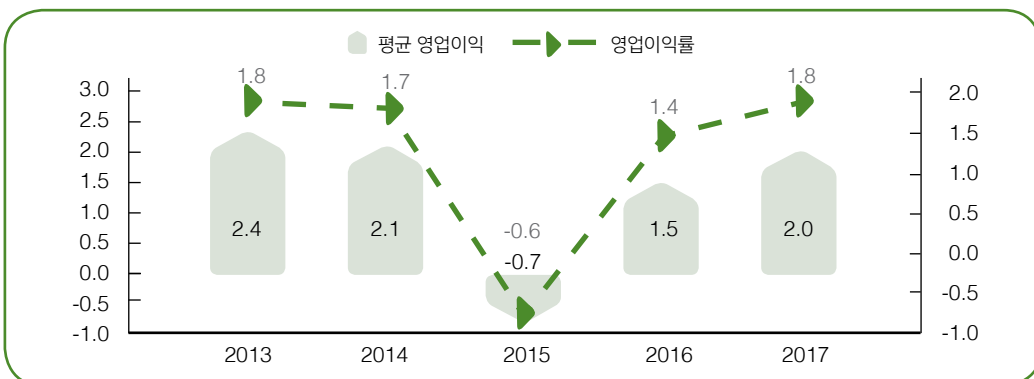
표IV-16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백만 달러,%)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13,505	12,022	△4,042	9,032	12,748
평균	2.4	2.1	△0.7	1.5	2.0
당기순이익률	1.8	1.7	△0.6	1.4	1.8
표준편차	48	57	74	38	45
최소값	△883	△837	△3,760	△544	△1,234
최대값	1,754	1,906	1,350	1,187	1,296

그림IV-4 평균 당기순이익 및 당기순이익률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2017년 전기가스업의 수익성 개선과 광업의 당기순손실 규모 감소로 평균 당기순이익(2.0백만 달러)이 전년(1.5백만 달러) 대비 35.9% 증가하였음.

- ▶ 2013년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도소매업은 2014년 2.7백만 달러로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감소한 이후 2016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7년에는 자동차 도소매업의 실적 악화로 2.1백만 달러로 하락하였음. 한편, 광업과 건설업의 손실폭은 2015년 각각 △60.8백만달러, △6.3백만달러에서 2017년 △4.5백만달러, △0.8백만 달러로 감소하였음.

표 IV-17 업종별 평균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천 달러)

	2013	2014	2015	2016	2017
제 조 업	3,288	3,252	1,368	2,842	2,903
광 업	△9,491	△7,704	△60,792	△18,569	△4,488
도 소 매 업	5,492	2,744	2,593	2,754	2,061
부 등 산 업	△439	△124	583	342	512
정 보 통 신 업	△463	△293	△1,889	△803	△1,063
건 설 업	△6,003	△11,709	△6,261	△3,278	△786
전 기 가 스 업	18,953	35,418	8,512	3,448	12,204
전 문 과 학 기 술 업	△1,206	△964	698	1,126	△962
운 수 창 고 업	△437	38	1,914	1,409	1,574
기 타	349	232	401	△266	△252
전 체	2,354	2,122	△669	1,451	1,972

- ▶ 업종별 당기순이익률을 살펴보면, 광업은 3년 연속, 건설업은 5년 연속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부동산업, 전기가스업은 전기가스업은 전년대비 수익성이 개선되었음. 광업과 건설업은 당기순손실률이 전년의 $\Delta 32.6\%$, $\Delta 10.3\%$ 에서 크게 개선된 $\Delta 4.7\%$, $\Delta 3.6\%$ 를 기록함.

한편, 전기가스업의 경우에는 중국 가스 관련 사업의 실적 호조로 2017년 11.6%를 기록하며, 당기순이익률이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냄.

표 IV-18 업종별 당기순이익률 현황

(단위: %)

	2013	2014	2015	2016	2017
제조업	2.8	2.9	1.4	3.1	3.0
광업	$\Delta 7.6$	$\Delta 7.9$	$\Delta 80.7$	$\Delta 32.6$	$\Delta 4.7$
도소매업	1.3	0.7	0.7	0.8	0.5
부동산업	2.9	$\Delta 3.5$	$\Delta 0.8$	2.7	10.9
정보통신업	$\Delta 14.5$	3.1	9.2	$\Delta 0.2$	$\Delta 3.9$
건설업	$\Delta 15.4$	$\Delta 23.7$	$\Delta 13.3$	$\Delta 10.3$	$\Delta 3.6$
전기가스업	0.2	0.1	4.1	2.7	11.6
전문과학기술업	4.3	$\Delta 0.5$	$\Delta 8.9$	$\Delta 3.6$	$\Delta 4.7$
운수창고업	9.2	10.5	12.2	19.1	4.7
기타	$\Delta 11.8$	$\Delta 3.0$	$\Delta 0.9$	$\Delta 0.5$	$\Delta 1.1$
전체	1.8	1.7	$\Delta 0.6$	1.4	1.8

지역별로는, 2017년 유럽과 아시아와 평균 당기순이익은 각각 5.1백만 달러, 2.5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23.5%, 4.3% 증가하였음. 북미는 △0.4백만 달러를 기록하며 2015년 △7백만 달러 대비 적자 폭이 크게 감소.

- ▶ 한편 당기순이익률의 경우 아시아(2.8%)와 유럽 지역(2.3%)은 전년대비 각각 △0.1%p, 0.3%p로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북미(△0.2%) 또한 전년(△0.2%)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함.

기타지역의 경우 브라질 전자업종의 수익성 개선의 영향으로 호주, 사우디등의 적자전환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손실률은 전년 △6.1%에서 △0.9%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임.

표 IV-19 지역별 평균 당기순이익 및 당기순이익률 현황

(단위: 천 달러,%)

		2013	2014	2015	2016	2017
평 균 당 기 순 이 익	아 시 아	2,767	2,772	1,651	2,376	2,479
	북 미	△194	2,080	△7,323	△348	△370
	유 럽	4,545	△88	2,017	4,137	5,111
	기 타	1,054	△1,151	△9,900	△4,791	△976
	전 체	2,354	2,122	△669	1,451	1,972
당 기 순 이 익 률	아 시 아	2.6	2.6	1.9	2.9	2.8
	북 미	△0.1	1.2	△4.2	△0.2	△0.2
	유 럽	1.6	0.0	0.9	2.0	2.3
	기 타	0.9	△1.0	△11.4	△6.1	△0.9
	전 체	1.8	1.7	△0.6	1.4	1.8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의 평균 당기순이익은 2013년부터 감소세가 지속되어 2015년에는 △1.1백만 달러로 적자전환하였으나, 2016~17년에는 2.7백만달러, 4.3백만달러로 흑자전환하였으며, 중소기업도 2014년부터 2년 연속 적자에서 2016~17년 2년연속 흑자를 기록함.

- ▶ 대부분의 기간 중 대기업의 당기순이익률이 중소기업보다 높았으나, 2016년에는 중소기업의 당기순이익률(3.0%)이 제조업 부문의 수익성 개선에 힘입어 대기업(1.3%)보다 높았고, 2017년에는 중소기업 수익성이 하락하였음.

표 IV-20

투자자 기업규모별 평균 당기순이익 및 당기순이익률 현황

(단위: 천 달러,%)

		2013	2014	2015	2016	2017
평 균 당 기 순 이 익	대 기 업	5,556	4,682	△1,051	2,704	4,312
	중 소 기 업	2	△323	△300	470	35
	기 타	△238	175	△469	△330	△207
	전 체	2,354	2,122	△669	1,451	1,451
당 기 순 이 익 률	대 기 업	2.0	1.9	△0.5	1.3	1.9
	중 소 기 업	0.0	△2.0	△2.0	3.0	0.2
	기 타	△3.3	1.7	△3.9	△3.7	△3.7
	전 체	1.8	1.7	△0.6	1.4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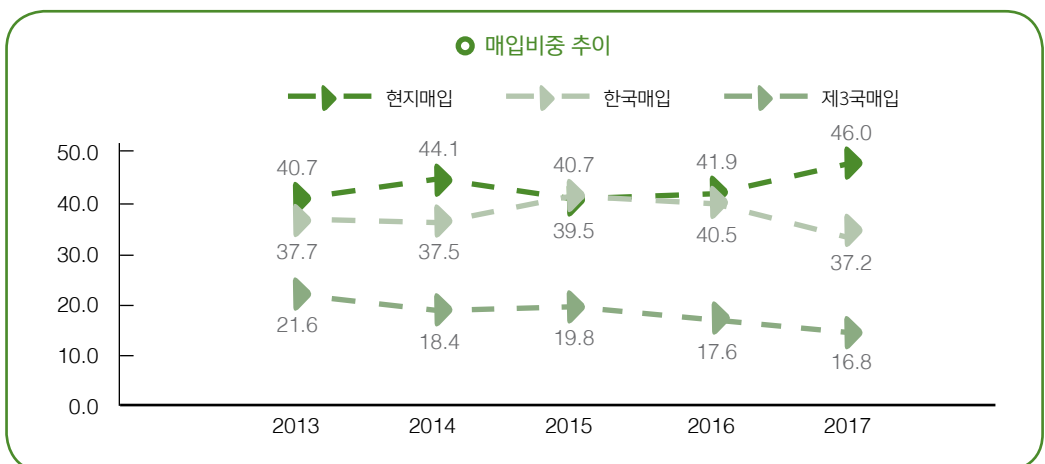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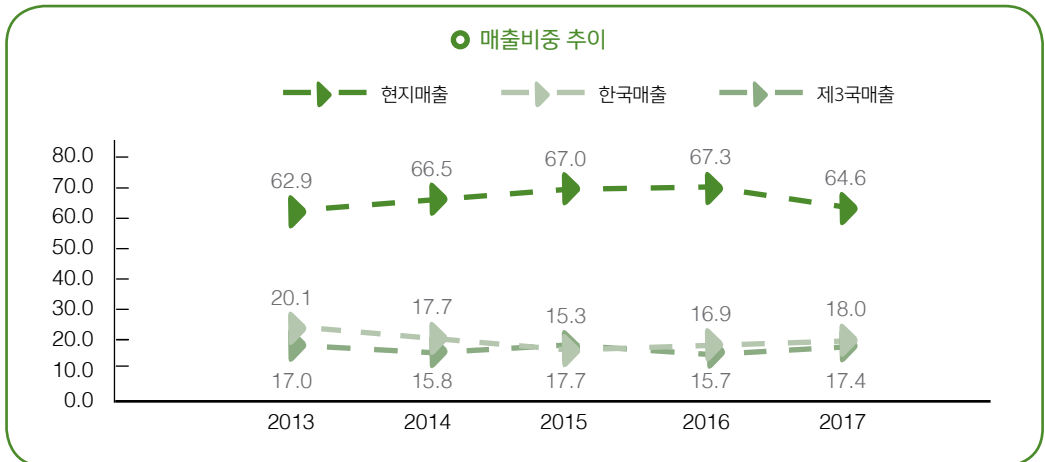
나. 매출입 현황

(1) 매출액 현황 개괄

2017년 현지매출 비중이 64.6%를 차지, 2011년 이후 5년만에 하락세를 기록하였으나, 한국수출 17.4%, 제3국수출 18.0% 대비 진출국 내수시장 공략을 위한 현지화 중심의 영업방식이 주류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한편, 매입의 경우에는 2015년부터 3년 연속 한국수입(46.0%)이 현지매입(37.2%)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IV-5 매출입구조 추이

(단위: %)



(2) 업종별 매출입 현황

(매출현황) 제조업은 2014년부터 3년 연속 현지매출 비중이 60% 이상을 기록하였으나, 2017년에는 중국 자동차업의 현지매출 하락과 전자제품의 한국수출 증가 등으로 현지매출 비중이 50%대로 하락함. 주로 1차금속, 화학, 자동차 및 식료품의 현지매출 비중이 높음.

- ▶ 매출액 규모가 큰 도소매업 또한 중국의 현지매출 비중이 17년 89.2%로 전년(93.8%) 대비 4.6%p 하락하였으나 전체 현지매출 비중은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표 IV-21 주요 업종별 매출비중 현황

(단위: %)

		2013	2014	2015	2016	2017
제 조 업	현 지 매 출	61.6	62.5	60.6	61.3	57.0
	한 국 수 출	24.4	22.6	23.6	23.6	26.2
	제 3 국 수 출	14.0	14.9	15.8	15.1	16.8
광 업	현 지 매 출	86.2	81.4	67.8	70.5	74.3
	한 국 수 출	5.7	5.9	15.6	17.9	13.0
	제 3 국 수 출	8.2	12.7	16.7	11.6	12.7
도 소 매 업	현 지 매 출	61.3	69.9	73.3	73.4	70.7
	한 국 수 출	8.0	8.0	6.3	6.8	8.1
	제 3 국 수 출	30.7	22.1	20.4	19.8	21.2

(매입현황) 제조업과 광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현지매입 비중이 높은 수준이며,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한국수입 비중이 57.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 한편, 제조업 중에서는 운송장비(34.6%), 기타기계(62.0%), 자동차(67.7%) 부문의 현지매입 비중이 전년대비 축소되면서 제조업 전반의 현지매입비중은 46.9%로 전년대비 4.5%p 하락하였음.

표 IV-22 주요 업종별 매입비중 현황

(단위: %)

		2013	2014	2015	2016	2017
제 조 업	현 지 매 입	50.0	53.8	47.5	51.4	46.9
	한 국 수 입	35.0	30.8	34.3	33.4	38.2
	제 3 국 수 입	15.0	15.4	18.3	15.2	14.8
광 업	현 지 매 입	95.9	92.0	90.7	91.1	90.1
	한 국 수 입	3.4	6.8	8.3	8.7	9.5
	제 3 국 수 입	0.7	1.2	1.0	0.2	0.3
도 소 매 업	현 지 매 입	22.5	28.5	27.9	24.9	21.6
	한 국 수 입	44.1	48.6	49.7	53.7	57.9
	제 3 국 수 입	33.4	22.9	22.4	21.4	20.5

(3) 지역별 매출입 현황

(매출현황) 아시아는 현지매출 비중이 타 지역대비 가장 낮고 한국수출 비중이 가장 높으며, 특히 아시아 제조업 중 전기전자 부문과 의복의 한국매출 비중은 각각 63.9%, 71.8%에 달하고 있어, 여전히 모기업의 생산기지 및 임가공부분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한편 북미의 현지매출 비중이 타 지역대비 가장 높고, 한국수출 비중이 낮은 것은 도소매업 비중이 높은 지역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표 IV-23 지역별 매출비중 현황

(단위: %)

		2013	2014	2015	2016	2017
아 시 아	현 지 매 출	53.8	59.8	58.6	59.0	55.5
	한 국 수 출	26.2	25.2	25.9	27.0	29.7
	제 3 국 수 출	20.1	15.0	15.5	14.0	14.9
북 미	현 지 매 출	83.4	84.2	87.5	88.5	85.1
	한 국 수 출	6.6	2.3	1.8	1.5	1.7
	제 3 국 수 출	10.0	13.5	10.7	10.0	13.2
유 럽	현 지 매 출	65.3	63.5	59.9	59.5	61.4
	한 국 수 출	3.0	2.3	2.7	2.5	2.9
	제 3 국 수 출	31.6	34.1	37.4	38.1	35.7
기 타	현 지 매 출	78.1	81.1	81.9	79.8	78.2
	한 국 수 출	3.3	5.0	5.2	5.0	5.4
	제 3 국 수 출	18.6	13.9	12.9	15.2	16.4

(매입현황) 북미는 도소매업의 비중이 높아 전통적으로 한국수입 비중이 현지매입 비중보다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음. 한편, 북미의 한국수입 비중은 2012년 (44.5%)부터 6년 연속으로 상승 추세를 기록하며 2017년에는 68.0%를 차지함.

- ▶ 아시아는 최근 5년간 한국 및 제3국수입 비중에 비해 현지매입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현지매입 비중이 30% 전후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대신 한국수입 비중과 제3국 수입 비중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음.

표 IV-24 지역별 매입비중 현황

(단위: %)

		2013	2014	2015	2016	2017
아 시 아	현 지 매 입	43.3	51.5	45.9	48.6	44.4
	한 국 수 입	34.9	33.5	37.5	36.2	40.5
	제 3 국 수 입	21.9	15.0	16.5	15.2	15.1
북 미	현 지 매 입	49.0	41.3	36.4	31.3	26.8
	한 국 수 입	45.3	50.6	54.9	60.9	68.0
	제 3 국 수 입	5.8	8.1	8.7	7.8	5.1
유 럽	현 지 매 입	30.6	28.3	29.4	29.5	30.8
	한 국 수 입	35.8	33.8	30.9	32.2	33.7
	제 3 국 수 입	33.7	37.9	39.7	38.3	35.5
기 타	현 지 매 입	17.8	24.9	26.6	35.4	28.8
	한 국 수 입	45.3	44.2	40.2	44.5	50.1
	제 3 국 수 입	36.9	30.9	33.2	20.1	21.2

(4) 수출입효과

2017년 투자잔액 증가율은 5.2%로 최근 5년간 점차 하락하고 있으나, 순수출액 증가율은 2017년 20.8%로 2016년 3.2% 대비 크게 증가하였음.
 현지법인의 한국수입 비중이 '16년 41.9%에서 '17년 46.0%로 증가한 영향으로 보이며, 현지법인을 통한 무역수지 개선효과 또한 2016년 62.8%에서 2017년 72.1%로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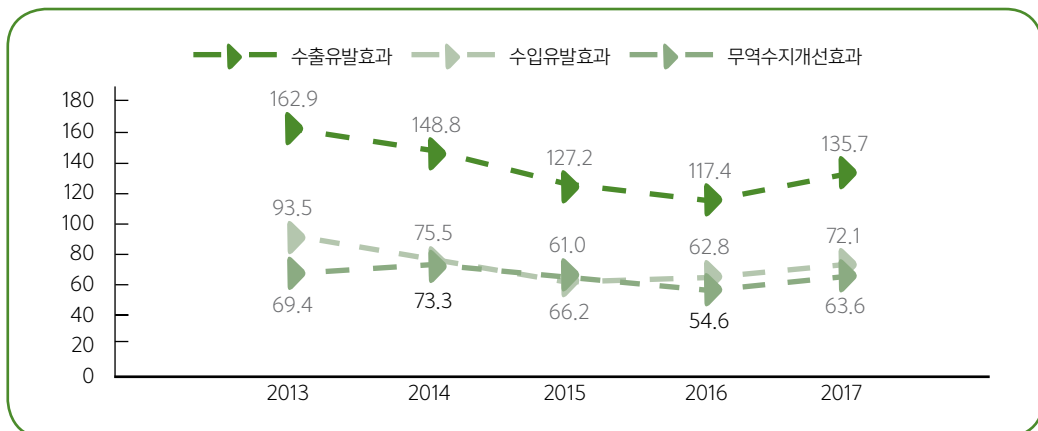
표Ⅳ-25 수출입효과

(단위: 백만 달러,%)

	2013	2014	2015	2016	2017
투 자 잔 액	135,801	150,551	169,626	184,701	194,347
수 출 액	221,179	224,071	215,818	216,860	263,660
수 입 액	127,039	113,711	103,493	100,929	123,583
순 수 출	94,140	110,361	112,325	115,931	140,077
수 출 유 발 효 과	162.9	148.8	127.2	117.4	135.7
수 입 유 발 효 과	93.5	75.5	61.0	54.6	63.6
무역수지개선효과	69.4	73.3	66.2	62.8	72.1

그림Ⅳ-6 무역수지 개선효과 추이

(단위: %)



다. 재무현황

(1) 재무현황 개괄

최근 5년간 현지법인의 제반 재무지표는 2014년부터 현지법인의 수익성 부진등의 영향으로 차입금의존도 및 이자보상배율 등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가 점차 악화되었으나, 2017년에는 매출액과 수익성 개선으로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유동비율, 이자보상배율 모두 개선되었음.

표 IV-26 → 현지법인과 국내기업의 재무지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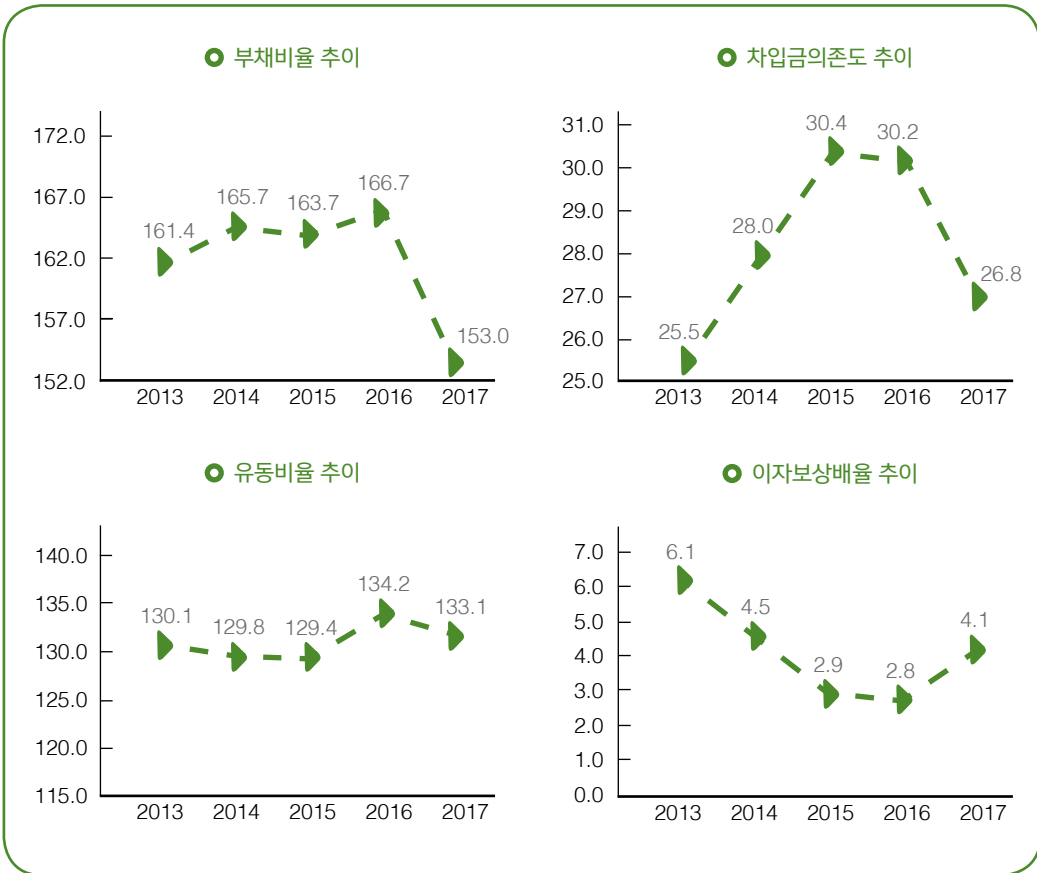
(단위: %, 배)

		2013	2014	2015	2016	2017
부 채 비 율	현 지 법 인	161.4	164.8	163.7	166.7	153.0
	국 내 기 업	141.0	134.5	128.4	121.2	114.1
차입금의존도	현 지 법 인	25.5	28.0	30.4	30.2	26.8
	국 내 기 업	31.5	32.2	31.4	29.8	28.8
유 동 비 율	현 지 법 인	130.1	129.8	129.4	134.2	133.1
	국 내 기 업	127.0	129.6	130.5	131.6	134.0
이자보상배율	현 지 법 인	6.1	4.5	2.9	2.8	4.1
	국 내 기 업	2.8	2.8	3.6	4.4	5.4

한편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에서는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지표에서 국내기업이 현지법인에 비해 더 양호한 수준을 기록함.

그림Ⅳ-7 주요 재무지표 추이

(단위: %)



(2) 부채비율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및 도소매업의 부채비율은 전년대비 다소 개선 되었으나, 전기가스업은 전년대비 악화되었음. 특히, 도소매업의 부채비율은 2014년부터 3년 연속 완만한 개선 추세를 지속하고 있음. 한편, 운수창고업은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4년부터 4년 연속 부채비율이 크게 하락하고 있으며, 건설업은 2014년에 이어 4년 연속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함으로써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지속하고 있음.

표 IV-27 업종별 부채비율 현황

(단위: %)

	2013	2014	2015	2016	2017
제 조 업	150.0	139.2	135.3	134.3	123.3
광 업	114.2	105.6	118.3	123.3	122.9
도 소 매 업	238.0	287.2	275.1	255.3	225.5
부 동 산 업	110.5	166.8	113.6	110.9	128.9
정 보 통 신 업	164.7	113.3	136.3	78.1	84.0
건 설 업	3,860.8	△534.9	△787.3	△719.1	△676.4
전 기 가 스 업	174.4	139.8	120.5	100.5	145.0
전 문 과 학 기 술 업	141.2	160.7	185.7	228.0	161.4
운 수 창 고 업	364.4	343.7	252.6	155.6	124.9
기 타	121.6	125.6	134.3	305.4	364.3
전 체	161.4	164.8	163.7	166.7	153.0

지역별로는 전 지역에서 부채비율이 하락하는 중, 아시아 지역은 주요 지역중 가장 낮은 수준(125.9%)을 기록함. 한편, 아시아는 건설업, 운수창고업의 부채감소로, 북미는 도소매업, 전문과학기술업 등의 부채감소로 인해 부채비율이 하락세를 나타냄.

표 IV-28 지역별 부채비율 현황

(단위: %)

	2013	2014	2015	2016	2017
아 시 아	139.5	137.9	130.6	132.6	125.9
북 미	214.2	207.6	239.3	195.8	177.3
유 럽	158.2	205.9	187.7	199.9	178.1
기 타	197.9	191.6	193.6	263.9	229.3
전 체	161.4	164.8	163.7	166.7	153.0

각 기업규모별로는 부채비율이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17년에는 모든 기업규모군에서 부채비율이 하락하였음.

표 IV-29 투자자 기업규모별 부채비율 현황

(단위: %)

	2013	2014	2015	2016	2017
대 기 업	161.3	165.8	164.7	168.3	155.3
중 소 기 업	158.0	159.2	158.8	142.9	126.0
기 타	197.5	141.5	146.7	200.9	183.4
전 체	161.4	164.8	163.7	166.7	153.0

(3) 차입금의존도

주요 업종 중 전문과학기술업(4.5%)의 차입금의존도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건설업(70.2%)의 경우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3년부터 5년 연속으로 주요 업종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음.

- ▶ 한편, 제조업과 광업 및 부동산업은 최근 3년간 비슷한 수준의 차입금의존도를 기록하고 있으며, 타 지표 대비 가장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음.

표 IV-30 업종별 차입금의존도 현황

(단위: %)

	2013	2014	2015	2016	2017
제조업	26.9	24.5	23.7	23.5	22.3
광업	28.6	35.2	40.4	39.6	39.3
도소매업	14.7	26.5	33.2	32.1	23.2
부동산업	38.7	47.3	43.5	41.2	42.6
정보통신업	23.2	16.9	21.5	13.0	17.1
건설업	40.8	60.0	64.7	67.9	70.2
전기가스업	40.1	44.0	40.9	42.2	43.9
전문과학기술업	4.7	6.2	5.9	4.5	4.5
운수창고업	26.8	26.3	27.8	32.1	28.0
기타	34.7	34.1	38.9	57.2	57.3
전체	25.5	28.0	30.4	30.2	26.8

지역별로는, 아시아는 도소매업 및 전기가스업을 중심으로, 북미는 건설업 및 전기가스업을 중심으로 차입금이 감소하여 현지법인의 차입금의존도가 전년대비 하락함.

표 IV-31 지역별 차입금의존도 현황

(단위: %)

	2013	2014	2015	2016	2017
아 시 아	21.2	23.9	25.3	24.8	21.8
북 미	36.2	36.5	40.5	36.3	34.7
유 럽	15.4	19.7	20.0	21.7	16.8
기 타	36.9	38.2	43.0	47.1	44.1
전 체	25.5	28.0	30.4	30.2	26.8

기업규모별로 보면, 최근 3년간 상승추세를 보이던 차입금의존도가 2017년에는 하락세를 보였으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중소기업의 차입금의존도가 대기업 대비 높은 수준이었으나, 2014년부터는 대기업의 차입금의존도가 중소기업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표 IV-32 투자자 기업규모별 차입금의존도 현황

(단위: %)

	2013	2014	2015	2016	2017
대 기 업	24.9	28.0	30.5	30.1	26.9
중 소 기 업	28.1	24.4	22.9	25.5	22.0
기 타	46.8	38.1	44.0	47.5	48.9
전 체	25.5	28.0	30.4	30.2	26.8

(4) 유동비율 및 이자보상배율

(유동비율) 2017년 133.1%를 기록하며 6년 연속으로 안정성 기준인 100%를 상회하고 있음. 단, 건설업은 4년 연속 유동비율이 100% 미만을 기록하였으며, 운수창고업의 경우에는 2014년까지 100% 미만을 지속해왔으나 2015년부터 120% 수준의 유동비율을 유지하며 유동성이 개선된 모습을 보임.

표 IV-33 업종별 유동비율 현황

(단위: %)

	2013	2014	2015	2016	2017
제조업	141.0	120.5	118.6	122.9	128.7
광업	87.4	122.0	115.7	99.9	106.7
도소매업	123.6	154.0	156.3	159.8	148.4
부동산업	123.2	159.8	114.1	158.6	156.9
정보통신업	125.5	124.1	121.4	178.4	154.2
건설업	106.3	76.4	78.4	75.5	78.4
전기가스업	68.5	115.3	94.3	108.7	102.6
전문과학기술업	106.4	105.6	98.8	119.4	116.3
운수창고업	87.2	91.5	129.7	121.9	119.4
기타	164.3	149.4	147.8	109.7	103.1
전체	130.1	129.8	129.4	134.2	133.1

(이자보상배율) 2014년부터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으나, 2017년에는 4.1배로 개선되었으며, 광업은 3년만에 영업적자에서 벗어남. 특히, 건설업의 경우 5년 연속, 정보통신업·전문과학기술업은 3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며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34 업종별 이자보상배율 현황

(단위: 배)

	2013	2014	2015	2016	2017
제조업	8.8	6.6	5.2	5.3	6.5
광업	1.9	0.8	영업적자	영업적자	3.3
도소매업	7.6	7.1	6.9	4.1	2.1
부동산업	1.1	1.0	0.9	1.0	1.4
정보통신업	0.4	2.8	영업적자	영업적자	영업적자
건설업	영업적자	영업적자	영업적자	영업적자	영업적자
전기가스업	8.4	14.9	5.1	1.7	5.2
전문과학기술업	영업적자	1.4	영업적자	영업적자	영업적자
운수창고업	0.5	1.4	2.3	2.3	3.1
기타	5.5	2.9	2.7	0.6	0.3
전체	6.1	4.5	2.9	2.8	4.1

라. 투자수익

(1) 투자수익률

광업 현지법인의 손실폭이 축소되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현지법인의 수익성이 개선됨에 따라 2017년에는 전년대비 1.2%p 증가한 7.4%의 투자수익률을 시현함.
2016~17년 수익성은 2년 연속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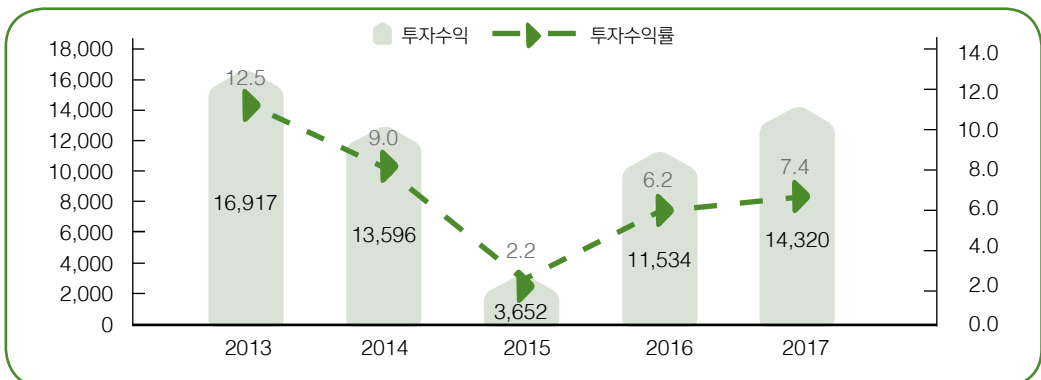
표 IV-35 투자수익률 현황

(단위: 백만 달러,%)

	2013	2014	2015	2016	2017
투자수익률 (A / B)	12.5	9.0	2.2	6.2	7.4
투자수익(A)	16,917	13,596	3,653	11,534	14,320
투자자순이익	10,923	7,862	104	7,854	10,117
대부이자	275	353	423	467	391
로열티	5,719	5,381	3,126	3,214	3,812
투자잔액(B)	135,801	150,551	169,626	184,701	194,347

그림 IV-8 투자수익률 추이

(단위: 백만 달러,%)



(2) 투자자순이익

2014년 제조업의 당기순이익 규모가 108억 달러로 2017년 110억 달러와 비슷한 수준이나, 투자자순이익은 2014년 77억 달러에서 2017년 100억 달러로 역대 최대 수익을 시현하였음.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투자자순이익은 115억 달러로 전체 투자자순이익 101억 달러의 114% 수준으로, 대부분의 투자자순이익은 제조업과 도소매업에서 성과를 내고 있음.

- ▶ 2017년 광업과 건설업의 투자자순손실 규모가 전년대비 각각 32%, 77% 감소하였으며, 제조업과 전기 가스업의 투자자순이익이 개선되면서 전반적인 투자자이익 증가세를 시현함.

표 IV-36 업종별 투자자순이익 현황

(단위: 백만 달러)

	2013	2014	2015	2016	2017
제 조 업	9,045	7,725	3,699	8,518	9,985
광 업	△1,122	△885	△4,763	△2,394	△1,639
도 소 매 업	3,681	2,129	1,995	1,758	1,554
부 등 산 업	△131	△53	32	132	157
정 보 통 신 업	20	48	△282	40	△35
건 설 업	△817	△1,507	△901	△547	△124
전 기 가 스 업	206	572	226	115	257
전 문 과 학 기 술 업	△58	△92	0	311	△7
운 수 창 고 업	△31	△18	133	108	94
기 타	131	△57	△35	△186	△126
전 체	10,923	7,862	104	7,854	10,117

(3) 로열티

로열티 수입은 자동차 제조업을 중심으로 2011년부터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 왔으나, 2014년부터 전기전자 제조업 부문의 감소세가 두드러지면서 2년 연속 감소하였음. 2017년에는 전기전자, 자동차, 전기장비 제조업 부문의 로열티 증가로 전년대비 18.6% 증가한 38.1억 달러를 기록함.

- ▶ 제조업 부문의 로열티 비중이 92.9%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2017년에는 자동차와 전기 전자 제조업 부문의 로열티 수입이 각각 19.4억 달러, 10.5억 달러로 전년대비 30.7%, 17.9% 증가하며 전체 로열티 수입 증가세를 주도함.

표 IV-37

업종별 로열티 현황

(단위: 백만 달러)

	2013	2014	2015	2016	2017
제조업	5,523	4,958	2,916	2,945	3,541
광업	31	6	10	9	42
도소매업	50	329	103	105	110
부동산업	-	0	1	1	3
정보통신업	70	34	34	81	76
건설업	2	6	7	3	4
전기가스업	5	3	2	21	3
전문과학기술업	1	3	1	6	2
운수창고업	3	9	5	5	4
기타	35	33	48	38	27
전체	5,719	5,381	3,126	3,214	3,812

(4) 배당금

한국인 투자자의 배당금 수입액은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에는 제조업, 도소매업 등 주요 업종의 배당금 수입액 감소로 인해 3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7년에는 제조업의 배당금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기가스업 및 광업의 배당금 증가로 42억 달러를 시현함.

- ▶ 특히, 전기가스업의 경우 배당금 지급액이 전년대비 398% 증가하며 도소매업과 건설업의 배당금 감소분을 보완하여 전체 배당금 수입 규모를 유지

표 IV-38 업종별 한국투자자 앞 배당금 현황

(단위: 백만 달러)

	2013	2014	2015	2016	2017
제 조 업	4,031	3,977	1,588	2,968	2,892
광 업	475	345	384	182	311
도 소 매 업	665	1,012	402	413	333
부 동 산 업	37	19	201	221	246
정 보 통 신 업	8	8	10	11	11
건 설 업	85	100	129	61	51
전 기 가 스 업	70	273	127	32	157
전 문 과 학 기 술 업	12	9	6	23	27
운 수 창 고 업	19	34	96	112	80
기 타	52	83	92	83	48
전 체	5,454	5,861	3,034	4,105	4,155

V. 제조업 현지법인의 세부 업종별 경영분석

1. 분석 목적

제조업은 2017년도 경영분석대상 6,463개사, 투자잔액 1,943억 달러 기준 투자잔액의 40.9%, 현지법인 수의 58.9%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

- ▶ 도소매업의 경우 국내 모기업의 수출입 대행, 광업은 해외자원개발 목적의 성격이 강하여 투자 동거나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이 제조업과는 다르며, 투자수익 및 수출입유발효과 등을 고려할 때 제조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바, 제조업 현지법인의 세부 업종별 경영분석은 여러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사료됨.

2. 분석 범위

이하에서는 제1부의 분석 대상인 2017 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대상 6,463개사 중 제조업 현지법인 3,804개사를 대상으로 세부 업종별로 분석하였으며, 표준산업분류 상업중종분류를 기준으로 함.

- ▶ 세부 업종의 경우에도 매출액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을 기준으로 하므로 반드시 상품 분류와 일치하는 것은 아님. 예를 들면, 전기전자 산업에 속해있는 현지법인이 전자부품이 아닌 다른 품목을 생산·판매하는 경우에도 본 보고서의 분석에서는 모두 전자부품으로 집계됨.

또한, 현지법인의 업종을 기준으로 분류하므로 최종 완성품이 속한 산업과 다를 수 있음. 예를 들어 전기 장비에 사용되는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현지법인의 경우 전자부품으로 분류됨.

또한, 분석 대상이 투자잔액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지법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섬유, 의류 등 투자 규모가 작은 노동집약형 산업의 경우 1차 금속, 자동차 등 설비 산업에 비해 대표성이 더 낮다고 할 수 있음.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통계를 활용하여 국내 기업과 비교 분석

- ▶ 현지법인은 국내 기업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관계회사이므로 내부 거래, 이전 가격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바, 매출, 이익 등 현지법인 경영성과 지표는 일부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음에 유의

분석대상 제조업 현지법인의 현황 및 지역별 분포는 다음과 같음.

- ▶ 전기전자 제조업이 투자잔액 기준 2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제조업은 19.0%로 그 뒤를 잇고 있음.

지역별로는 주요 제조업종 전반적으로 아시아가 현지법인수와 투자잔액 모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기타 기계 제조업의 경우 유럽이 아시아보다 투자잔액이 높은 특징을 보임.

표 V-1 제조업 세부업종별 현지법인 현황¹⁸⁾

(단위: 개, 백만 달러, %)

	현지법인수		투자잔액		평균 투자잔액
	분석대상	비중	분석대상	비중	
전 기 전 자	643	16.9	18,541	23.3	29
자 동 차	688	18.1	15,121	19.0	22
1 차 금 속	180	4.7	7,527	9.5	42
화 학	313	8.2	6,604	8.3	21
기 타 기 계	242	6.4	5,423	6.8	22
전 기 장 비	199	5.2	4,100	5.2	21
기 타 운 송 장 비	39	1.0	3,764	4.7	97
고 무 / 플 라 스틱	185	4.9	2,738	3.4	15
식 료 품	125	3.3	2,694	3.4	22
의 복	278	7.3	2,161	2.7	8
기 타	912	24.0	10,819	13.6	12
전 체	3,804	100.0	79,492	100.0	21

18) 기타에는 섬유, 금속제품, 기타 제품, 신발, 기타제품 제조업 등이 포함됨.

표 V-2 제조업 세부업종별 지역별 현지법인수 분포

(단위: 개)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 기 전 자	556	44	31	12
자 동 차	463	55	96	74
1 차 금 속	143	13	11	13
화 학	257	26	21	9
기 타 기 계	194	24	8	16
전 기 장 비	169	16	8	6
기 타 운 송 장 비	28	-	5	6
고 무 / 플 라 스틱	153	9	12	11
식 료 품	97	17	7	4
의 복	249	8	5	16
기 타	741	96	36	39
전 체	3,050	308	240	206

표 V-3 제조업 세부업종별 지역별 투자잔액 분포

(단위: 백만 달러)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 기 전 자	15,087	1,655	1,084	716
자 동 차	7,643	1,024	3,752	2,701
1 차 금 속	4,320	1,062	165	1,981
화 학	5,521	612	312	159
기 타 기 계	1,418	352	3,074	580
전 기 장 비	2,439	1,275	348	38
기 타 운 송 장 비	1,916	-	1,713	135
고 무 / 플 라 스틱	2,434	52	180	72
식 료 품	2,150	369	144	30
의 복	1,679	101	230	152
기 타	7,400	1,733	946	740
전 체	52,006	8,234	11,948	7,304

3. 2017년 경영성과

가. 매출액

전기전자와 자동차 제조업 현지법인의 매출액 비중은 각각 36.6%, 28.4%로, 전체 제조업 매출액의 절반 이상인 65.0%를 차지

- ▶ 두 업종의 법인수 비중(35.0%) 및 투자잔액 비중(42.3%)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매출액 비중을 기록하고 있으며, 타 업종대비 해외 생산 및 판매가 활발한 것으로 평가됨.

한편, 중후장대형 제조업 부문의 매출액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식료품, 의복 등 시장 진입장벽 혹은 기술차별화 정도의 차이가 낮은 업종의 경우 전반적으로 낮은 매출액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

표 V-4 제조업 세부업종별 매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매출액	비중
전	기	전	자	133,364	36.6
자		동	차	103,268	28.4
1	차	금	속	23,767	6.5
화			학	18,424	5.1
기	타	기	계	7,780	2.1
전	기	장	비	25,345	7.0
기	타	운	송 장 비	3,503	1.0
고	무	/	플 라 스 틱	5,874	1.6
식		료	품	5,747	1.6
의			복	5,292	1.5
기			타	31,770	8.7
전			체	364,133	100.0

전기전자와 자동차는 아시아 매출비중이 각각 77.5%, 47.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유럽, 북미 순으로 나타남.

- ▶ 자동차의 경우 전체 제조업과 비교하여 유럽 29.5%, 북미 12.2% 등 아시아 이외 지역의 비중도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완성차 업체와 자동차 부품 업체의 해외 동반 진출이 각 지역별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1차 금속, 화학, 기타기계, 고무/플라스틱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아시아의 매출 집중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V-5 제조업 세부업종 및 지역별 매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 기 전 자	103,337	10,997	9,872	9,157
자 동 차	49,164	12,557	30,503	11,044
1 차 금 속	17,195	2,025	826	3,720
화 학	15,908	770	1,365	381
기 타 기 계	5,636	804	927	413
전 기 장 비	20,034	2,730	2,368	213
기 타 운 송 장 비	1,694	-	532	1,277
고 무 / 플 라 스틱	4,842	387	486	159
식 료 품	4,479	1,075	120	73
의 복	4,185	170	620	317
기 타	24,884	3,020	2,520	1,346
전 체	251,358	34,534	50,140	28,101

나. 수익성

전기전자와 자동차는 전체 제조업 현지법인 영업이익의 65.6%를 차지함.

- ▶ 전기전자의 영업이익은 제조업 현지법인 중 가장 많은 수준인 74.4억 달러, 영업이익률은 5.6%를 기록하였으며, 자동차의 영업이익은 17.8억 달러, 영업이익률은 1.7%를 기록함.

한편, 제조업 전체 현지법인의 영업이익률은 3.9%를 기록하며, 국내 제조업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7.6%) 대비 낮은 수준을 보임.

식품업종은 국내 기업보다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였으며, 그 외 제조업 업종들은 등은 국내 기업에 비해 영업이익률이 낮게 나타남.

표 V-6 제조업 세부업종별 영업이익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현지법인		국내기업
	금액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
전 기 전 자	7,437	5.6	15.9
자 동 차	1,779	1.7	2.9
1 차 금 속	402	1.7	5.6
화 학	1,492	8.1	10.2
기 타 기 계	245	3.2	7.0
전 기 장 비	674	2.7	3.5
기 타 운 송 장 비	△28	△0.8	0.9
고 무 / 플 라 스 틱	232	4.0	4.9
식 료 품	262	4.6	4.3
의 복	37	0.7	3.7
기 타	1,512	4.8	6.4
전 체	14,045	3.9	7.6

영업이익 규모는 아시아가 가장 컸으며, 이어 유럽, 북미 순으로 나타남.

- ▶ 아시아에서는 전기전자(52.9억 달러), 화학(14.5억 달러)의 영업이익 규모가 타 업종 대비 압도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유럽은 자동차(12.7억 달러), 전기전자(3.5억 달러) 업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음.

북미는 자동차업종의 영업이익 규모가 가장 컸으며, 전기장비, 화학 등은 영업손실을 시현함.

표 V-7 제조업 세부업종 및 지역별 영업이익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 기 전 자	5,290	17	352	1,778
자 동 차	60	345	1,272	103
1 차 금 속	336	59	37	△ 30
화 학	1,447	△17	16	45
기 타 기 계	317	1	3	△ 75
전 기 장 비	597	△25	99	2
기 타 운 송 장 비	△ 183	-	△7	162
고 무 / 플 라 스틱	199	25	-	8
식 료 품	181	80	12	△ 11
의 복	47	-	△3	△ 6
기 타	1,389	△28	124	28
전 체	9,678	457	1,904	2,005

제조업의 지역별 영업이익률은 아시아 3.9%, 유럽 3.8%, 북미는 1.3%를 기록,
기타지역은 브라질의 실적호조로 7.1%를 시현

- ▶ 전기전자는 아시아 5.1%, 유럽 3.6%, 북미 0.2% 순이며, 자동차는 유럽 4.2%, 북미 2.7% 순으로 높게 나타남.

브라질 전기전자 및 자동차 제조업 영업이익률이 각각 20.6%, 5.1%를 시현하면서 기타지역의 영업이익률이 타 지역 대비 높은 수준을 보임.

표 V-8 제조업 세부업종 및 지역별 영업이익률 현황

(단위: %)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 기 전 자	5.1	0.2	3.6	19.4
자 동 차	0.1	2.7	4.2	0.9
1 차 금 속	2.0	2.9	4.5	△0.8
화 학	9.1	△2.2	1.2	11.9
기 타 기 계	5.6	0.1	0.3	△18.1
전 기 장 비	3.0	△0.9	4.2	1.2
기 타 운 송 장 비	△10.8	-	△1.3	12.7
고 무 / 플 라 스틱	4.1	6.5	0.1	5.1
식 료 품	4.0	7.4	9.8	△14.5
의 복	1.1	△0.3	△0.5	△1.9
기 타	5.6	△0.9	4.9	2.0
전 체	3.9	1.3	3.8	7.1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과 마찬가지로 전기전자와 화학이 높은 비중을 차지

- ▶ 전기전자의 당기순이익은 제조업 현지법인 중 가장 많은 수준인 74.3억 달러, 당기순이익률은 5.6%를 기록 하였으며, 화학은 당기순이익 11.6억 달러, 당기순이익률 6.3%를 시현함.

현지법인의 당기순이익률이 국내기업의 제조업 평균 당기순이익률(4.7%)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

전기전자의 경우, 국내기업의 영업이익률 및 당기순이익률이 전년대비 각각 9.5%p, 7.6%p 개선되면서 현지법인 이익률과의 격차는 10.3%, 7.2%로 확대되었음. 2017년에는 모든 제조업 세부업종의 당기순이익률이 국내기업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함.

기타 세부 업종별, 지역별 특성은 손익 구조상 전반적으로 영업이익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음.

표 V-9 ▶ 제조업 세부업종별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현지법인		국내기업
	금액	당기순이익률	당기순이익률
전 기 전 자	7,427	5.6	12.8
자 동 차	1,150	1.1	2.7
1 차 금 속	△304	△1.3	4.0
화 학	1,162	6.3	7.6
기 타 기 계	65	0.8	5.2
전 기 장 비	412	1.6	3.0
기 타 운 송 장 비	15	0.4	6.9
고 무 / 플 라 스틱	176	3.0	3.4
식 료 품	86	1.5	5.5
의 복	△32	△0.6	1.9
기 타	886	2.8	4.5
전 체	11,043	3.0	4.7

표 V-10 제조업 세부업종 및 지역별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 기 전 자	5,285	△22	629	1,535
자 동 차	△83	212	996	25
1 차 금 속	21	40	△14	△351
화 학	1,198	△76	9	31
기 타 기 계	214	△15	△40	△94
전 기 장 비	462	△61	13	△2
기 타 운 송 장 비	△205	-	81	139
고 무 / 플 라 스틱	150	20	1	5
식 료 품	99	△12	11	△13
의 복	△18	19	△20	△13
기 타	962	△138	118	△57
전 체	8,085	△33	1,785	1,206

표 V-11 제조업 세부업종 및 지역별 당기순이익률 현황

(단위: %)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 기 전 자	5.1	△0.2	6.4	16.8
자 동 차	△0.2	1.7	3.3	0.2
1 차 금 속	0.1	2.0	△1.7	△9.4
화 학	7.5	△9.9	0.7	8.1
기 타 기 계	3.8	△1.8	△4.3	△22.7
전 기 장 비	2.3	△2.2	0.5	△1.0
기 타 운 송 장 비	△12.1	-	15.2	10.9
고 무 / 플 라 스틱	3.1	5.1	0.2	3.0
식 료 품	2.2	△1.1	9.5	△17.9
의 복	△0.4	11.5	△3.2	△4.1
기 타	3.9	△4.6	4.7	△4.2
전 체	3.2	△0.1	3.6	4.3

다. 매출입구조

제조업 전반적으로 현지매출 비중이 가장 높으나, 전기전자, 의복은 한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남.

- ▶ 전기전자의 경우 한국수출 비중이 51.4%로 현지매출 비중(34.9%)보다 높아, 현지법인 생산 제품의 절반 이상이 한국으로 수출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동차의 경우는 현지매출(76.4%)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식료품, 고무, 기타기계 및 1차 금속 등 대부분의 제조업에서 현지판매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나, 의복은 한국수출 비중이 60.6%로 현지매출 비중(27.3%)보다 높았음.

표 V-12 제조업 세부업종별 매출비중

(단위: 백만 달러,%)

	금액			비중		
	현지매출	한국수출	제3국수출	현지매출	한국수출	제3국수출
전 기 전 자	46,601	68,610	18,152	34.9	51.4	13.6
자 동 차	78,883	1,937	22,447	76.4	1.9	21.7
1 차 금 속	19,519	1,640	2,608	82.1	6.9	11.0
화 학	14,586	797	3,041	79.2	4.3	16.5
기 타 기 계	5,427	1,906	447	69.8	24.5	5.7
전 기 장 비	14,376	7,291	3,677	56.7	28.8	14.5
기 타 운 송 장 비	739	646	2,118	21.1	18.5	60.5
고 무 / 플 라 스 틱	4,078	422	1,374	69.4	7.2	23.4
식 료 품	4,297	240	1,210	74.8	4.2	21.1
의 복	1,446	3,205	641	27.3	60.6	12.1
기 타	17,675	8,564	5,530	55.6	27.0	17.4
전 체	207,627	95,260	61,246	57.0	26.2	16.8

제조업의 매입구조는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38.2%로, 매출(26.2%)에 비해 한국 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현지매입 비중은 46.9%로 한국수입(38.2%) 및 제3국수입(14.8%)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함.

- ▶ 전기전자의 경우 한국수입 비중이 55.8%로 타 업종 대비 가장 높았으며, 매출입 모두에서 한국과의 거래가 매우 활발한 업종임을 알 수 있음.

자동차의 경우 현지매입 비중이 67.7%로 높지만 현지매출 비중 76.4%에 비해서는 낮았으며, 한국수입 비중은 24.3%로 매출에서의 한국 거래 비중(1.9%)보다 크게 높은 수준을 기록함.

식료품의 경우 매출(74.8%)에서와 마찬가지로 매입도 현지 거래 비중이 71.6%로 높게 나타나 생산과 판매의 현지화가 가장 활발한 업종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의복의 경우 한국수입 비중이 12.6%로 한국 수출 비중(60.6%)보다 크게 낮았음.

표 V-13 제조업 세부업종별 매입비중

(단위: 백만 달러,%)

	금액			비중		
	현지매입	한국수입	제3국수입	현지매입	한국수입	제3국수입
전 기 전 자	26,396	60,052	21,142	24.5	55.8	19.7
자 동 차	59,814	21,455	7,033	67.7	24.3	8.0
1 차 금 속	8,548	5,405	1,958	53.7	34.0	12.3
화 학	7,845	3,546	2,630	56.0	25.3	18.8
기 타 기 계	3,243	1,687	304	62.0	32.2	5.8
전 기 장 비	9,523	8,075	3,265	45.6	38.7	15.7
기 타 운 송 장 비	878	1,221	439	34.6	48.1	17.3
고 무 / 플 라 스틱	1,609	1,628	431	43.9	44.4	11.7
식 료 품	2,167	232	626	71.6	7.7	20.7
의 복	2,111	436	924	60.8	12.6	26.6
기 타	11,150	4,834	3,356	57.7	25.0	17.4
전 체	133,285	108,573	42,107	46.9	38.2	14.8

라. 투자수익 및 배당금

제조업 현지법인의 투자수익은 136억 달러였으며, 17.1%의 투자수익률을 기록함.

- ▶ 당기순이익 양상과 마찬가지로, 한국측 지분율을 반영한 투자자순이익 또한 전기전자(67억 달러)가 자동차(14억 달러)보다 높게 나타남.

로열티 수입은 자동차가 전기전자보다 높았으며, 투자수익률은 전기전자가 41.8%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자동차 22.0%, 전기장비 16.0%, 화학 11.5% 순

투자자순이익 및 로열티의 대부분은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였으며, 대부이자는 전반적으로 그 규모가 크지 않음.

표 V-14 제조업 세부업종별 투자수익률

(단위: 백만 달러,%)

	투자수익				투자잔액 (B)	투자 수익률 (A/B)
	투자자 순이익	로열티	대부이자	합계(A)		
전 기 전 자	6,676	1,053	14	7,743	18,541	41.8
자 동 차	1,368	1,937	15	3,320	15,121	22.0
1 차 금 속	△164	10	4	△150	7,527	△2.0
화 학	733	27	1	761	6,604	11.5
기 타 기 계	72	16	6	94	5,423	1.7
전 기 장 비	483	167	7	656	4,100	16.00
기 타 운 송 장 비	1	30	1	32	3,764	0.8
고 무 / 플 라 스틱	172	98	4	274	2,738	10.0
식 료 품	77	63	2	143	2,694	5.3
의 복	△27	0	5	△22	2,161	△1.0
기 타	596	139	11	746	10,819	6.9
전 체	9,985	3,541	69	13,595	79,492	17.1

한편, 제조업 현지법인은 총 28.9억 달러의 배당금을 한국투자자 앞 지급하였으며, 이 중 아시아의 비중이 66.9%를 차지함.

- ▶ 이는 제조업 현지법인 당기순이익(110억 달러)의 26.3% 및 투자자순이익(99.9억 달러)의 28.9%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제조업이 제조업 전체의 53.6%에 해당하는 10.4억 달러, 자동차는 11.1%에 해당하는 2.1억 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였음.

표 V-15 제조업 세부업종 및 지역별 배당금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 기 전 자	1,038	4	367	1
자 동 차	214	10	391	48
1 차 금 속	19	41	30	19
화 학	121	1	1	-
기 타 기 계	37	-	-	-
전 기 장 비	46	7	-	-
기 타 운 송 장 비	5	-	-	-
고 무 / 플 라 스틱	139	-	-	5
식 료 품	9	1	1	0
의 복	12	-	-	-
기 타	296	20	8	3
전 체	1,935	83	799	75

마. 수출입 유발효과

현지법인의 매출입 구조를 통해 분석된 제조업 현지법인을 통한 수출은 1,086억 달러, 수입은 953억 달러를 기록함.

- ▶ 업종별로는 전기전자의 경우 현지법인 앞 수출액이 601억 달러, 현지법인으로부터의 수입액은 686억 달러로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85억 달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자동차의 경우 수출액 215억 달러, 수입액 19억 달러로 196억 달러의 순수출을 기록하여 전기전자와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으며, 1차 금속, 전기장비, 화학, 고무의 경우 현지법인 앞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더 컸음.

의복의 경우에는 현지법인을 통한 수입액이 현지법인 앞 수출액을 28억 달러 초과하여, 순수출액을 투자 잔액으로 나눈 무역수지개선효과가 타 업종 대비 가장 낮은 수준($\Delta 128.1\%$)을 보임.

표 V-16 제조업 세부업종별 수출입 유발효과

(단위: 백만 달러,%)

	투자잔액	수출	수입	순수출	무역수지 개선효과
전 기 전 자	18,541	60,052	68,610	△8,558	△46.2
자 동 차	15,121	21,455	1,937	19,518	129.1
1 차 금 속	7,527	5,405	1,640	3,765	50.0
화 학	6,604	3,546	797	2,749	41.6
기 타 기 계	5,423	1,687	1,906	△219	△4.0
전 기 장 비	4,100	8,075	7,291	784	19.1
기 타 운 송 장 비	3,764	1,221	646	575	15.3
고 무 / 플 라 스틱	2,738	1,628	422	1,206	44.1
식 료 품	2,694	232	240	△8	△0.3
의 복	2,161	436	3,205	△2,769	△128.1
기 타	10,819	4,834	8,564	△3,730	△34.5
전 체	79,492	108,573	95,260	13,313	16.70

4. 최근 3년 경영성과

가. 매출액 및 매출입구조

최근 3년간 제조업 현지법인의 매출실적 분석결과 2016년에는 일시 자동차 제조업 매출액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2017년에는 다시 전기전자 제조업의 매출이 가장 높게 나타남.

- ▶ 전기전자는 전년대비 27.2% 증가한 1,333.6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자동차는 전년대비 5.2% 감소한 1,032.7억 달러를 기록

2017년에는 대부분의 주요업종에서 매출액이 증가하였으나, 자동차, 기타기계, 운송장비, 고무업종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하락하였으며, 전년대비 13.4% 하락한 운송장비는 중소조선사 해외법인의 매출액 감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침.

표 V-17 제조업 세부업종별 매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2015	2016	2017
전 기 전 자	117,502	104,886	133,364
자 동 차	108,484	108,908	103,268
1 차 금 속	18,554	18,171	23,767
화 학	15,676	16,279	18,424
기 타 기 계	9,093	8,429	7,780
전 기 장 비	24,130	23,630	25,345
기 타 운 송 장 비	3,925	4,047	3,503
고 무 / 플 라 스틱	6,971	7,011	5,874
식 료 품	6,254	5,705	5,747
의 복	5,861	5,146	5,292
기 타	28,080	30,185	31,770
전 체	344,530	332,396	364,133

표 V-18 제조업 세부업종별 매출 증가율 추이

(단위: %)

	2015	2016	2017	평균
전 기 전 자	△11.7	△10.7	27.2	1.6
자 동 차	△3.0	0.4	△5.2	△2.6
1 차 금 속	△13.5	△2.1	30.8	5.1
화 학	△21.4	3.8	13.2	△1.5
기 타 기 계	△12.2	△7.3	△7.7	△9.1
전 기 장 비	△12.1	△2.1	7.3	△2.3
기 타 운 송 장 비	8.3	3.1	△13.4	△0.7
고 무 / 플 라 스틱	12.1	0.6	△16.2	△1.2
식 료 품	△7.4	△8.8	0.7	△5.2
의 복	4.3	△12.2	2.8	△1.7
기 타	△7.4	7.5	5.3	1.8
전 체	△8.5	△3.5	9.5	△0.8

제조업 현지법인의 현지매출(57.0%) 비중은 전년대비 하락하였으나, 한국수출(26.2%) 제3국수출(16.8%) 비중은 전년대비 상승함.

- ▶ 현지매출 비중이 2016년 61.3%에서 2017년 57.0%로 크게 하락한 반면 한국수출 비중은 23.6%에서 26.2%로 상승함.

이는 자동차 부문의 현지매출 비중이 하락(2015년 82.7% → 2017년 76.4%)하고 제3국수출 비중이 상승(2015년 15.7% → 2017년 21.7%)한 것이 주요 원인임.

특히, 중국 자동차 제조업 부문의 2017년 순수출액이 34.3억 달러로 전년대비 32.3% 하락하였고, 전기 전자부문의 순수입액도 2017년 231.3억달러로 전년대비 5.7% 확대되면서 중국 제조업 전체의 순수입 규모는 2017년 211.8억달러로 전년대비 19.5% 확대되었음.

자동차의 경우 현지매출 비중이 75~80%를 넘고 있어, 국내 완성차 업체가 해외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대부분이 현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운송비, 관세 및 국내 공장의 높은 가동률 등으로 인해 자동차업종의 한국 앞 수출비중은 2% 이하로 미미한 수준이나, 중국 등에서 생산된 부품을 제3국으로 수출해서 조립생산하는 CKD 방식 수출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한편, 전기전자 및 의복의 경우 한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50% 내외로 다른 업종에 비해 한국수출 비중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지매출 비중 또한 35% 내외를 보이면서 판매경로가 한국과 현지시장으로 비교적 분산되어 있는 모습을 보임.

매입 구조에서도 제조업 전반적으로 현지에서의 조달 비중이 한국 및 제3국을 통한 조달대비 높은 수준을 보임.

- ▶ 현지법인의 매출입 구조를 종합적으로 볼 때, 현지매입 비중은 점차 확대되는 기초였으나 2017년에는 중국의 자동차업과 조선 등 기타운송장비업에서 현지 부품조달보다 한국에서의 부품 조달 비중이 확대된 결과 현지 매입 비중이 하락하고 한국수입 비중이 증가하였음.

전기전자의 경우 아직 제조업 평균(38.2%)에 비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높은 편으로, 2014년 44.0%에서 2017년 55.8%로 11.8%p 상승함.

자동차의 경우 2017년 현지매입 비중이 67.7%인데 반해, 한국수입 비중은 24.3%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소싱의 결과로 볼 수도 있으나, 자동차 산업 관련 한국부품 업체들의 활발한 해외 동반진출로 현지에서 가치사슬을 형성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됨.

식료품의 경우 현지매입 비중이 70~75%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제3국수입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음. 이는 식료품이 여타 업종 대비 현지화의 정도가 훨씬 높음을 시사함.

표 V-19 제조업 세부업종별 매출비중 추이

(단위: %)

		2015	2016	2017
전 기 전 자	현 지 매 출	35.4	35.7	34.9
	한 국 수 출	49.3	52.4	51.4
	제 3 국 수 출	15.3	11.8	13.6
자 동 차	현 지 매 출	82.7	81.8	76.4
	한 국 수 출	1.6	1.7	1.9
	제 3 국 수 출	15.7	16.5	21.7
1 차 금 속	현 지 매 출	86.3	87.8	82.1
	한 국 수 출	6.3	4.5	6.9
	제 3 국 수 출	7.3	7.7	11.0
화 학	현 지 매 출	79.5	78.4	79.2
	한 국 수 출	4.5	3.8	4.3
	제 3 국 수 출	16.0	17.9	16.5
기 타 기 계 및 장 비	현 지 매 출	77.7	76.9	69.8
	한 국 수 출	18.0	18.5	24.5
	제 3 국 수 출	4.3	4.7	5.7
전 기 장 비	현 지 매 출	57.6	59.1	56.7
	한 국 수 출	24.0	27.2	28.8
	제 3 국 수 출	18.4	13.7	14.5
기 타 운 송 장 비	현 지 매 출	7.3	17.0	21.1
	한 국 수 출	21.6	22.9	18.5
	제 3 국 수 출	71.1	60.1	60.5
고 무 / 플 라 스틱	현 지 매 출	66.8	66.1	69.4
	한 국 수 출	6.1	4.7	7.2
	제 3 국 수 출	27.2	29.2	23.4
식 료 품	현 지 매 출	78.9	82.0	74.8
	한 국 수 출	4.1	3.7	4.2
	제 3 국 수 출	17.0	14.4	21.1
의 복	현 지 매 출	38.6	31.4	27.3
	한 국 수 출	50.3	57.5	60.6
	제 3 국 수 출	11.0	11.1	12.1
기 타	현 지 매 출	56.7	54.1	55.6
	한 국 수 출	27.3	26.2	27.0
	제 3 국 수 출	16.0	19.6	17.4
전 체	현 지 매 출	60.6	61.3	57.0
	한 국 수 출	23.6	23.6	26.2
	제 3 국 수 출	15.8	15.1	16.8

표 V-20 제조업 세부업종별 매입비중 추이

(단위: %)

		2015	2016	2017
전 기 전 자	현 지 매 입	28.9	28.9	24.5
	한 국 수 입	43.6	48.0	55.8
	제 3 국 수 입	27.4	23.1	19.7
자 동 차	현 지 매 입	67.2	72.3	67.7
	한 국 수 입	25.8	22.7	24.3
	제 3 국 수 입	7.0	5.0	8.0
1 차 금 속	현 지 매 입	50.8	51.6	53.7
	한 국 수 입	34.8	34.5	34.0
	제 3 국 수 입	14.4	13.8	12.3
화 학	현 지 매 입	52.2	52.5	56.0
	한 국 수 입	25.6	23.3	25.3
	제 3 국 수 입	22.2	24.2	18.8
기 타 기 계 및 장 비	현 지 매 입	73.2	74.3	62.0
	한 국 수 입	22.0	20.5	32.2
	제 3 국 수 입	4.7	5.2	5.8
전 기 장 비	현 지 매 입	41.9	40.4	45.6
	한 국 수 입	41.5	43.1	38.7
	제 3 국 수 입	16.6	16.5	15.7
기 타 운 송 장 비	현 지 매 입	14.9	58.0	34.6
	한 국 수 입	39.5	27.4	48.1
	제 3 국 수 입	45.6	14.6	17.3
고 무 / 플 라 스틱	현 지 매 입	35.6	38.8	43.9
	한 국 수 입	36.0	33.1	44.4
	제 3 국 수 입	28.4	28.1	11.7
식 료 품	현 지 매 입	75.6	73.8	71.6
	한 국 수 입	5.7	7.2	7.7
	제 3 국 수 입	18.7	19.1	20.7
의 복	현 지 매 입	53.6	52.9	60.8
	한 국 수 입	17.1	17.3	12.6
	제 3 국 수 입	29.2	29.9	26.6
기 타	현 지 매 입	59.1	58.3	57.7
	한 국 수 입	28.0	24.5	25.0
	제 3 국 수 입	12.9	17.2	17.4
전 체	현 지 매 입	47.5	51.4	46.9
	한 국 수 입	34.3	33.4	38.2
	제 3 국 수 입	18.3	15.2	14.8

나. 수익성

2015년에는 자동차 제조업의 영업이익의 규모가 가장 컸으나, 2016~17년에는 전기전자 제조업이 가장 큰 영업이익을 시현함.

- ▶ 전기전자와 자동차의 영업이익을 합할 경우 그 비중이 제조업 전체의 65.6%를 차지하며, 투자잔액 기준 두 업종의 비중이 42.3%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타 제조업종 대비 양호한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음.

전기전자의 경우 2015~2016년에는 영업이익이 보합세를 보였으나, 2017년에는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한편, 자동차는 2014년에는 전기전자를 제치고 가장 큰 영업이익을 시현하였으나, 2017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하였음.

이외 업종 중에는 화학의 영업이익 규모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기타운송장비는 최근 3개년 모두 적자를 기록함.

표 V-21 제조업 세부업종별 영업이익 추이

(단위: 백만 달러)

	2015	2016	2017
전 기 전 자	4,649	4,594	7,437
자 동 차	4,809	4,474	1,779
1 차 금 속	△ 126	186	402
화 학	988	1,100	1,492
기 타 기 계 및 장 비	228	508	245
전 기 장 비	556	782	674
기 타 운 송 장 비	△ 31	△ 434	△ 28
고 무 / 플 라 스 틱	457	595	232
식 료 품	342	376	262
의 복	258	96	37
기 타	687	816	1,512
전 체	12,817	13,092	14,045

영업이익률은 글로벌 경제성장률 둔화 및 자동차 업종 부진에도 불구하고,
전기전자 업종의 실적 호조로 전년수준 유지

- ▶ 전기전자 부문은 2015년 4.0%에서 2016년 4.4%, 2017년 5.6%로 상승세를 시현하였으며, 자동차 부문은 2017년 1.7%로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전기전자 업종과 영업이익률이 역전된 모습을 보임.

화학의 경우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되어, 영업이익률이 2015년 6.3%에서 2017년 8.1%로 크게 상승함.

표 V-22 제조업 세부업종별 영업이익률 추이

(단위: %)

	2015	2016	2017
전 기 전 자	4.0	4.4	5.6
자 동 차	4.4	4.1	1.7
1 차 금 속	△0.7	1.0	1.7
화 학	6.3	6.8	8.1
기 타 기 계 및 장 비	2.5	6.0	3.2
전 기 장 비	2.3	3.3	2.7
기 타 운 송 장 비	△0.8	△10.7	△0.8
고 무 / 플 라 스 틱	6.6	8.5	4.0
식 료 품	5.5	6.6	4.6
의 복	4.4	1.90	0.7
기 타	2.4	2.7	4.8
전 체	3.7	3.9	3.9

당기순이익률의 추이는 영업이익률 추이와 대체적으로 유사하며, 전기전자의 경우 영업이익 개선세와 함께 당기순이익도 증가하면서 당기순이익률 또한 전년대비 0.5%p 상승한 5.6%를 시현함.

- ▶ 자동차의 경우는 영업이익 흐름과 유사하게 2015~2016년은 각각 2.9%, 3.0%의 당기순이익률을 기록하였으나, 2017년에는 당기순이익이 크게 감소하면서 1.1%로 제조업 평균보다 낮은 수익률을 기록함.

화학 부문의 당기순이익률은 2017년 6.3%로 주요 제조업종 중 가장 높았으며, 기타운송장비는 7년만에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였음.

표 V-23 제조업 세부업종별 당기순이익 추이

(단위: 백만 달러)

	2015	2016	2017
전 기 전 자	2,998	5,331	7,427
자 동 차	3,156	3,259	1,150
1 차 금 속	△ 1,671	18	△ 304
화 학	545	766	1,162
기 타 기 계 및 장 비	△ 392	239	65
전 기 장 비	121	495	412
기 타 운 송 장 비	△ 272	△ 792	15
고 무 / 플 라 스틱	203	385	176
식 료 품	75	191	86
의 복	142	55	△ 32
기 타	△ 78	282	886
전 체	4,828	10,229	11,0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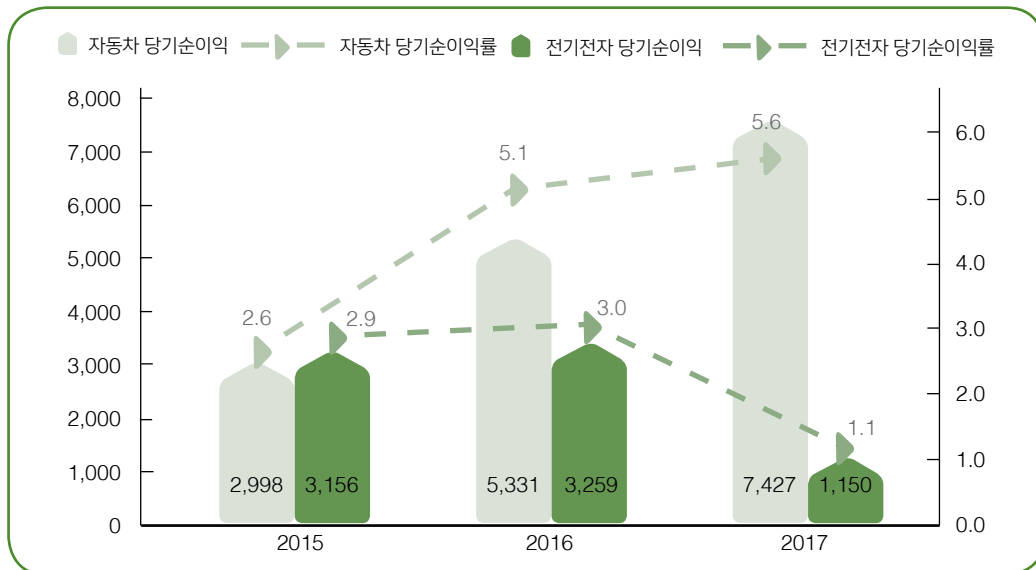
표 V-24 제조업 세부업종별 당기순이익률 추이

(단위: %)

	2015	2016	2017
전 기 전 자	2.6	5.1	5.6
자 동 차	2.9	3.0	1.1
1 차 금 속	△9.0	0.1	△1.3
화 학	3.5	4.7	6.3
기 타 기 계 및 장 비	△4.3	2.8	0.8
전 기 장 비	0.5	2.1	1.6
기 타 운 송 장 비	△6.9	△19.6	0.4
고 무 / 플 라 스틱	2.9	5.5	3.0
식 료 품	1.2	3.3	1.5
의 복	2.4	1.1	△0.6
기 타	△0.3	0.9	2.8
전 체	1.4	3.1	3.0

그림 V-1 전기전자 및 자동차 제조업 현지법인의 수익성 비교

(단위: 백만 달러, %)



다. 투자수익

투자자순이익은 2015년 37.0억 달러에서 2017년 99.9억 달러로 증가

- ▶ 전기전자와 자동차제조업의 당기순이익 차이는 6.5배이나 투자자순이익 규모 차이는 4.9배로, 이는 투자자순이익이 당기순이익 및 한국투자자 지분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임.

표 V-25 제조업 세부업종별 투자자순이익 추이

(단위: 백만 달러)

	2015	2016	2017
전 기 전 자	2,264	4,571	6,676
자 동 차	2,317	2,473	1,368
1 차 금 속	△ 1,080	△ 58	△ 164
화 학	256	480	733
기 타 기 계 및 장 비	△ 386	238	72
전 기 장 비	157	568	483
기 타 운 송 장 비	△ 194	△ 736	1
고 무 / 플 라 스틱	196	351	172
식 료 품	87	190	77
의 복	114	53	△ 27
기 타	△ 30	388	596
전 체	3,699	8,518	9,985

로열티 지급액은 2015년 29.2억 달러에서 2017년 35.4억 달러로 증가세

- ▶ 2017년 기준 자동차(54.7%)와 전기전자(29.7%)의 로열티 금액이 전체 로열티 지급액의 대부분을 차지함.

자동차 제조업은 전반적인 실적과 수익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로열티 지급액은 증가하여 로열티 수익은 현지법인의 개별 수익성과 연관성이 적은 편임을 보여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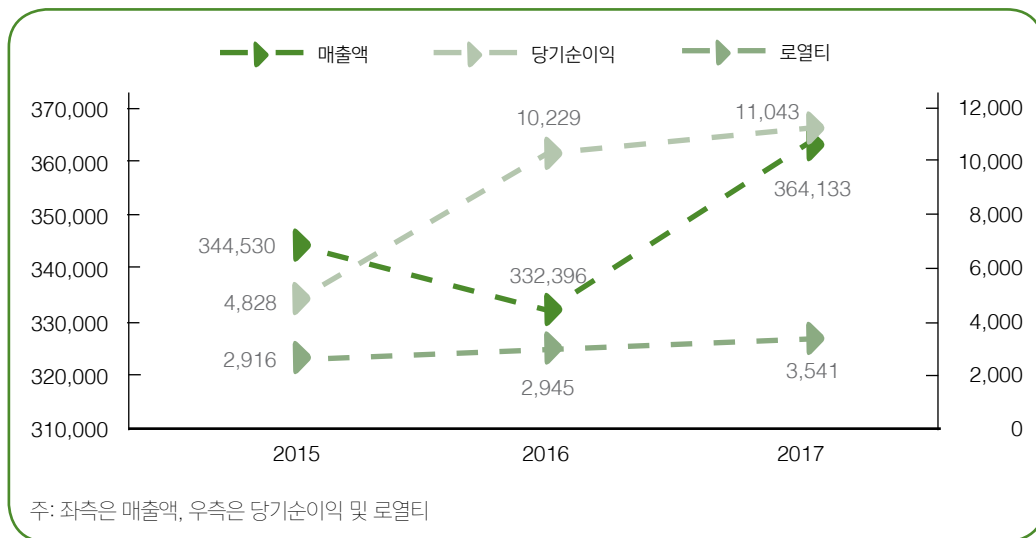
표 V-26 제조업 세부업종별 로열티 추이

(단위: 백만 달러)

	2015	2016	2017
전 기 전 자	764	806	1,053
자 동 차	1,409	1,643	1,937
1 차 금 속	23	17	10
화 학	43	27	27
기 타 기 계 및 장 비	21	16	16
전 기 장 비	107	83	167
기 타 운 송 장 비	251	20	30
고 무 / 플 라 스틱	153	119	98
식 료 품	35	62	63
의 복	5	4	0
기 타	107	150	139
전 체	2,916	2,945	3,541

그림 V-2 제조업 로열티 지급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한국투자자 앞 대부이자 지급액은 2015년 53백만 달러에서 2016년 125백만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가 2017년에는 다시 69백만 달러로 감소

- ▶ 전기전자나 자동차의 경우 투자잔액 규모 대비 대부이자 지급액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음.

표 V-27 제조업 세부업종별 대부이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2015	2016	2017
전 기 전 차	10	23	14
자 동 차	4	5	15
1 차 금 속	2	5	4
화 학	0	1	1
기 타 기 계 및 장 비	2	3	6
전 기 장 비	4	6	7
기 타 운 송 장 비	0	2	1
고 무 / 플 라 스틱	5	5	4
식 료 품	4	2	2
의 복	10	15	5
기 타	11	59	11
전 체	53	125	69

투자자순이익, 로열티, 대부이자를 합한 투자수익을 투자잔액으로 나눈 투자수익률은 2015년 9.1%에서 2017년 17.1%로 증가

- ▶ 2017년 제조업 당기순이익률은 3.0%로 전년도의 3.1%에 비해 0.1%p 하락하였으나, 투자수익률의 경우 전기전자 및 화학의 투자자순이익 증가에 따라 2016년(15.0%) 대비 2.1%p 증가한 17.1%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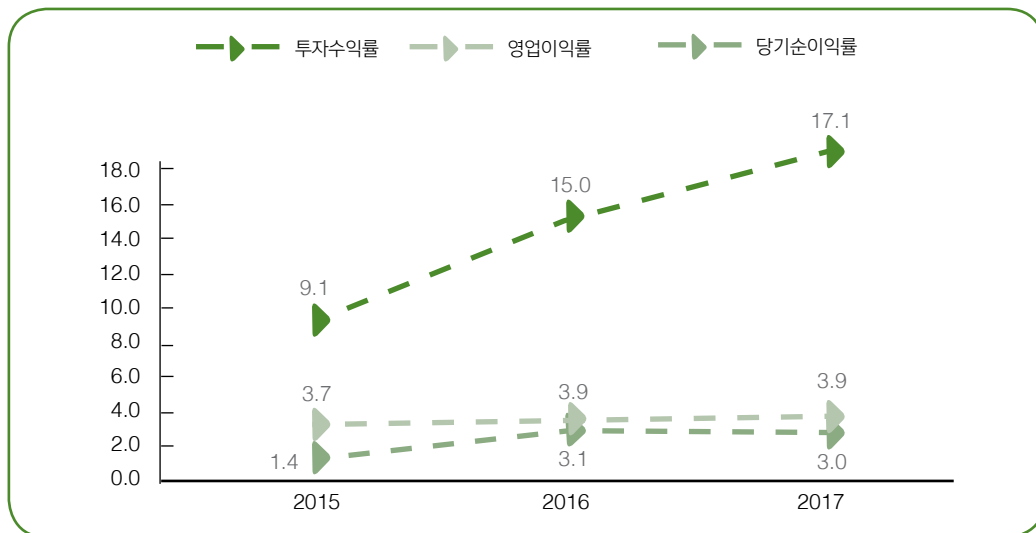
표 V-28 제조업 세부업종별 투자수익률 추이

(단위: %)

	2015	2016	2017
전 기 전 자	17.8	31.2	41.8
자 동 차	29.8	31.1	22.0
1 차 금 속	△15.0	△0.5	△2.0
화 학	5.0	7.1	11.5
기 타 기 계 및 장 비	△5.7	4.0	1.7
전 기 장 비	7.7	16.0	16.0
기 타 운 송 장 비	1.7	△19.0	0.8
고 무 / 플 라 스틱	10.4	14.0	10.0
식 료 품	5.5	10.0	5.3
의 복	5.8	3.5	△1.0
기 타	0.9	6.2	6.9
전 체	9.1	15.0	17.1

그림 V-3 제조업 투자수익률 추이

(단위: %)



현지법인의 한국 투자자 앞 배당금 지급액은 2015년 15.9억 달러에서
2017년 28.9억 달러로 큰 폭의 증가세 시현

- ▶ 전기전자는 전년대비 36.3% 증가한 14.1억 달러를 기록하며 비중이 34.9%에서 48.7%로 늘어났으나, 자동차의 경우 전년대비 41.5% 감소한 6.6억 달러를 기록, 비중은 38.2%에서 22.9%로 하락함.

한편, 화학, 전기장비의 경우 각각 △34.3%, △18.1%의 감소세를 시현함.

표 V-29 제조업 세부업종별 배당금 추이

(단위: 백만 달러)

	2015	2016	2017
전 기 전 자	299	1,034	1,410
자 동 차	832	1,134	663
1 차 금 속	82	78	109
화 학	91	187	123
기 타 기 계 및 장 비	12	6	37
전 기 장 비	40	64	53
기 타 운 송 장 비	1	0	5
고 무 / 플 라 스 틱	65	64	144
식 료 품	9	11	11
의 복	39	6	12
기 타	116	383	327
전 체	1,588	2,968	2,892

라. 수출입 유발효과

현지법인 앞 수출은 2015년 894억 달러에서 2017년 1,086억 달러로 증가

- ▶ 2017년 전기전자 현지법인 앞 수출액은 601억 달러로 2016년 415억 달러 대비 44.6% 증가하였으며, 전체 제조업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48.4%에서 2017년 55.3%로 상승함.

자동차의 경우 2017년 215억 달러를 기록하며 2015년의 193억 달러 대비 11.3% 증가하였으나, 비중은 2015년 21.6%에서 2017년 20.0%로 하락하였음. 현지에서의 매출입 비중이 높은 이유로 인해 자동차 업종 현지법인의 수출비중은 매출액 규모·비중 대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1차금속의 경우 2015년 45억 달러에서 2017년 54억 달러로 최근 3년간 현지법인 앞 수출액 규모가 19.1% 확대됨.

표 V-30 제조업 세부업종별 수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2015	2016	2017
전 기 전 자	43,223	41,520	60,052
자 동 차	19,278	20,283	21,455
1 차 금 속	4,538	4,106	5,405
화 학	3,202	2,768	3,546
기 타 기 계 및 장 비	1,491	1,177	1,687
전 기 장 비	8,563	8,358	8,075
기 타 운 송 장 비	1,135	864	1,221
고 무 / 플 라 스 틱	1,730	1,548	1,628
식 료 품	213	200	232
의 복	602	559	436
기 타	5,381	4,452	4,834
전 체	89,356	85,833	108,573

표 V-31 제조업 세부업종별 수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2015	2016	2017
전 기 전 자	57,978	54,999	68,610
자 동 차	1,766	1,833	1,937
1 차 금 속	1,178	813	1,640
화 학	708	615	797
기 타 기 계	1,636	1,557	1,906
전 기 장 비	5,783	6,430	7,291
기 타 운 송 장 비	847	926	646
고 무 / 플 라 스틱	422	329	422
식 료 품	254	209	240
의 복	2,951	2,958	3,205
기 타	7,676	7,917	8,564
전 체	81,197	78,585	95,260

표 V-32 제조업 세부업종별 순수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2015	2016	2017
전 기 전 자	△ 14,754	△ 13,479	△ 8,558
자 동 차	17,512	18,450	19,518
1 차 금 속	3,360	3,293	3,765
화 학	2,494	2,153	2,749
기 타 기 계 및 장 비	△ 144	△ 381	△ 219
전 기 장 비	2,780	1,928	784
기 타 운 송 장 비	288	△ 62	575
고 무 / 플 라 스틱	1,307	1,219	1,206
식 료 품	△ 41	△ 9	△ 8
의 복	△ 2,349	△ 2,399	△ 2,769
기 타	△ 2,294	△ 3,465	△ 3,730
전 체	8,159	7,248	13,313

제조업 현지법인을 통한 순수출액을 투자잔액으로 나눈 무역수지 개선효과는
2015년 11.1%에서 2017년에는 16.7%로 상승

- ▶ 전기전자의 경우 2017년 $\Delta 46.2\%$ 를 기록하며 최근 3년간 모두 마이너스 효과를 나타냈으나, 가장 개선된 수치를 시현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경우 129.1%를 시현하며 제조업 세부 업종 중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1차 금속, 화학, 전기장비 및 고무/플라스틱의 경우 3년 모두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양(+)의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기타기계및장비·식료품·의복의 경우 3년 연속 마이너스를 시현하고 있으며, 의복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는 제조업 세부 업종 중 가장 낮은 수준($\Delta 128.1\%$)을 기록함.

표 V-33 제조업 세부업종별 무역수지 개선효과 추이

(단위: %)

	2015	2016	2017
전 기 전 자	$\Delta 86.6$	$\Delta 77.9$	$\Delta 46.2$
자 동 차	140.0	139.1	129.1
1 차 금 속	47.7	42.3	50.0
화 학	42.0	30.3	41.6
기 타 기 계 및 장 비	$\Delta 2.3$	$\Delta 6.0$	$\Delta 4.0$
전 기 장 비	80.2	46.9	19.1
기 타 운 송 장 비	8.5	$\Delta 1.6$	15.3
고 무 / 플 라 스틱	38.6	35.9	44.1
식 료 품	$\Delta 1.8$	$\Delta 0.3$	$\Delta 0.3$
의 복	$\Delta 106.9$	$\Delta 118.0$	$\Delta 128.1$
기 타	$\Delta 23.5$	$\Delta 36.1$	$\Delta 34.5$
전 체	11.1	9.4	16.7

VI. 시사점

1. 성장세 반등, 수익성은 2년 연속 개선

2017년 분석대상 6,463개 현지법인의 매출액은 총 7,087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법인당 평균 매출액은 1.1억 달러로 2016년 1.0억 달러 대비 6.8% 증가

- ▶ 업종별 매출액 비중은 제조업 및 도소매업이 각각 51.4%, 40.6%로 전체 매출액의 92.0%를 차지하였으며, 매출액 상위 2개 국가는 중국(1,812억 달러, 25.6%)과 미국(1,456억 달러, 20.5%)으로 두 국가의 매출액이 전체의 46.1%를 차지함.

전체 해외 현지법인의 영업이익률 및 당기순이익률은 3.0%, 1.8%로 2016년 대비 각각 0.5%p, 0.4%p 상승하는 등 2년 연속 수익성이 개선

- ▶ 아시아 지역은 제조업, 광업을 중심으로 당기순이익의 86%에 해당하는 110억달러, 유럽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27억달러의 순이익을 시현하였으며, 대양주 지역의 부진을 브라질을 중심으로 하는 중남미 지역이 호조를 보이며 상쇄효과가 발생하여 전체 수익성은 일부 개선됨.

전기전자업종의 수익성 개선으로 제조업종의 수익성이 견조세를 유지하고, 원자재가격 회복 등으로 광업 현지법인의 손실폭이 2015년 △108억 달러에서 2016년 △33억 달러, 2017년 △7억 달러로 크게 감소하면서 전체 수익률이 2년 연속 상승함.

현지법인의 성장성은 2017년 매출증가율이 10.4%를 시현하면서 3년간의 하락세 지속 이후 4년만에 반등

- ▶ 2017년 투자잔액 대비 총 매출액은 3.6배로, 2014년 4.8배, 2015년 4.0배, 2016년 3.5배 등 최근 3년간의 하락세에서는 벗어났으나, 개선폭은 2014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함.

2. 對중국 투자 감소, 對베트남 및 아세안 투자 확대

최근 지속적인 임금상승 및 외국인 투자 우대정책 축소 등 제조업 투자매력이 감소하는 중국을 대신하는 투자처로 베트남과 아세안이 부상

- ▶ 중국 현지법인 총매출액은 2013년 2,502억 달러에서 2017년에는 1,812억 달러로 감소하였으나, 베트남 총 매출액은 동기간 164억 달러에서 494억 달러로, 베트남을 포함한 아세안 10개국 현지법인 총 매출액은 1,071억 달러에서 1,444억 달러로 확대되어 2017년 기준 아세안 총매출액은 중국 대비 0.8배 수준까지 성장

현지법인 당기순이익 면에서도 중국은 2013년 87억 달러에서 2017년 51억달러로 감소한 반면, 베트남은 동 기간 3억달러에서 20억달러, 아세안은 16억 달러에서 48억달러로 증가하였음.

중국 진출 제조업 현지법인의 투자잔액은 2013년 275억 달러에서 2017년 330억 달러로 19.9% 증가하였으나, 베트남 제조업 현지법인의 투자잔액은 2013년 37억 달러에서 2017년 71억 달러로 91.6% 증가하여, 제조업 투자의 상당 부분이 베트남으로 빠르게 이전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냄.

3. 해외직접투자의 수익성 확대를 위한 경영전략 강화 필요

최근 2년간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수익성이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2010년 이후 영업이익이익률과 당기순이익이익률이 2~3% 범위내에서 정체되고 있어, 향후 수익성 확대를 위한 경영전략이 필요

- ▶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이 1990년대 이후 확대되면서 전세계 교역이 증가하고, 현지 법인을 통한 분업 생산이 확대되었으나, 최근에는 보호무역 강화, 중국, 아세안 등 주요 생산기지 역할을 하던 국가들의 내수시장 확대와 현지시장 진출목적 직접투자의 증가로 글로벌 생산분업이 약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지법인의 역할이 제3국 수출을 위해 현지의 값싼 원자재와 저렴한 노동력 등에 의존한 조립·생산기지에서 신흥국과 선진국의 현지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확대되면서, 관련 역량이 중요시 되고 있음.

향후, 비주력사업 정리, 고부가가치 제품비중 확대, 현지조달 비중 제고를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현지법인의 수익성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음.

2017 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부 록

171p

-

I.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현황
(2017년말 현재)

181p

-

II. 2017 회계연도 분석대상 현지법인 통계

199p

-

III. 최근 5년간 분석대상 현지법인 통계

225P

-

IV. 2017 회계연도 금융보험업 현지법인
경영분석



Supplement
Contents

I.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현황(2017년말 현재)	171
1. 연도별.....	171
2. 업종별.....	172
3. 지역별.....	175
4. 국가별.....	177
5. 투자자 기업규모별.....	179
6. 투자목적별.....	180
II. 2017 회계연도 분석대상 현지법인 통계	181
1. 분석대상 현지법인 현황.....	181
가. 지역별.....	181
나. 업종별.....	183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183
2. 주요 경영성과 비율.....	184
가. 지역별.....	184
나. 업종별.....	186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186
3. 매출 및 매입비중 현황.....	187
가. 지역별.....	187
나. 업종별.....	189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189
4. 주요 재무비율.....	190
가. 지역별.....	190
나. 업종별.....	192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192
5. 투자수익 및 투자수익률.....	193
가. 지역별.....	193
나. 업종별.....	195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195

6. 수출입효과 및 무역수지 개선효과 196

 가. 지역별 196

 나. 업종별 198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198

III. 최근 5년간 분석대상 현지법인 통계 199

1. 분석대상 현지법인 현황 199

 가. 지역별 199

 나. 업종별 201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203

2. 주요 경영성과 204

 (1) 매출액 204

 가. 지역별 204

 나. 업종별 205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206

 (2)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 206

 가. 지역별 206

 나. 업종별 207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208

 (3) 당기순이익 및 당기순이익률 208

 가. 지역별 208

 나. 업종별 209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210

3. 매출현황 210

 가. 지역별 210

 나. 업종별 211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212

4. 매입현황 212

 가. 지역별 212

 나. 업종별 213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214



Supplement
Contents

5. 순수출 및 무역수지 개선효과	214
(1) 수출액 및 수입액	214
가. 지역별	214
나. 업종별	215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216
(2) 순수출 및 무역수지 개선효과	216
가. 지역별	216
나. 업종별	217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218
6. 주요 재무비율	218
(1) 부채비율 및 차입금의존도	218
가. 지역별	218
나. 업종별	219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220
(2) 유동비율 및 이자보상배율	220
가. 지역별	220
나. 업종별	221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222
7. 투자수익 및 투자수익률	222
가. 지역별	222
나. 업종별	223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224
IV. 2017 회계연도 금융보험업 현지법인 경영분석	225
1. 개요	225
가. 분석 배경	225
나. 분석대상 현지법인 현황	225
2. 경영성과	227
가. 재무현황	227
나. 손익현황	229

I.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현황 (2017년말 현재)

1. 연도별

(단위: 개, 백만 달러, %)

연도	신규법인수	신규법인수증감율	투자금액	투자금액증감율
1968~1980	352	-	145	-
1981	49	-	64	-
1982	50	2.0	112	75.1
1983	57	14.0	168	49.6
1984	45	△21.1	50	△70.4
1985	39	△13.3	112	126.2
1986	51	30.8	316	181.7
1987	92	80.4	410	29.7
1988	172	87.0	231	△43.5
1989	271	57.6	571	147.0
1990	345	27.3	1,074	87.9
1991	449	30.1	1,318	22.8
1992	503	12.0	1,356	2.8
1993	694	38.0	1,450	6.9
1994	1,491	114.8	2,354	62.4
1995	1,348	△9.6	3,234	37.4
1996	1,483	10.0	4,562	41.1
1997	1,366	△7.9	3,906	△14.4
1998	615	△55.0	4,812	23.2
1999	1,104	79.5	3,403	△29.3
2000	2,122	92.2	5,360	57.5
2001	2,185	3.0	5,396	0.7
2002	2,530	15.8	4,064	△24.7
2003	2,827	11.7	4,811	18.4
2004	3,797	34.3	6,601	37.2
2005	4,451	17.2	7,318	10.9
2006	5,211	17.1	11,910	62.7
2007	5,690	9.2	22,741	90.9
2008	4,038	△29.0	24,086	5.9
2009	2,473	△38.8	20,784	△13.7
2010	2,893	17.0	25,342	21.9
2011	2,757	△4.7	29,292	15.6
2012	2,553	△7.4	29,095	△0.7
2013	2,832	10.9	30,649	5.3
2014	2,813	△0.7	28,187	△8.0
2015	2,999	6.6	29,786	5.7
2016	3,120	4.0	38,781	30.2
2017	3,213	3.0	43,445	12.0
합 계	69,080	-	397,295	-

2. 업종별

(단위: 개, 백만 달러)

연도	제조업		광업		금융보험업		도소매업	
	신규 법인수	투자금액	신규 법인수	투자금액	신규 법인수	투자금액	신규 법인수	투자금액
1968~ 1980	35	32	4	3	-	-	210	32
1981	7	5	-	7	1	29	25	8
1982	5	6	4	62	1	15	21	13
1983	16	27	1	43	2	60	16	13
1984	10	13	1	14	1	0	15	10
1985	12	27	2	70	1	0	16	6
1986	20	77	-	83	2	134	21	12
1987	29	156	4	219	-	-	39	20
1988	71	80	2	65	1	1	64	55
1989	147	278	1	76	-	-	78	59
1990	200	567	6	152	4	104	75	140
1991	280	650	3	123	7	211	90	172
1992	346	672	7	150	6	111	82	308
1993	519	555	8	146	5	185	94	447
1994	1,093	1,488	17	115	4	51	166	547
1995	952	2,040	5	77	6	83	162	326
1996	1,030	2,928	17	253	5	42	171	597
1997	900	1,978	13	235	6	39	159	542
1998	372	2,327	8	132	3	22	106	1,794
1999	687	1,595	10	225	2	25	109	1,069
2000	1,077	1,635	12	137	16	1,457	274	886
2001	1,270	4,017	6	80	9	60	307	823
2002	1,606	1,896	10	213	15	209	334	1,169
2003	1,776	2,647	16	329	8	487	369	710
2004	2,200	3,901	29	322	15	327	486	874
2005	2,119	4,230	23	392	22	315	841	806
2006	2,268	5,879	67	1,221	30	692	945	1,245
2007	2,257	11,053	73	1,715	63	1,660	1,014	3,037
2008	1,428	8,718	109	3,869	78	1,730	787	4,369
2009	844	6,723	74	5,509	44	1,065	532	2,118
2010	1,123	7,688	53	7,556	64	2,961	678	1,547
2011	1,046	10,837	54	8,526	60	2,053	609	1,944
2012	911	9,466	44	7,981	57	2,567	607	1,674
2013	1,085	9,628	27	7,415	64	2,580	614	2,257
2014	1,090	7,760	22	6,053	76	3,841	589	1,620
2015	1,093	7,878	20	3,507	99	6,526	687	2,292
2016	1,085	8,097	16	2,776	150	9,136	740	5,775
2017	1,025	9,075	15	1,574	172	13,275	739	8,224
합계	32,034	136,627	783	61,423	1,099	52,052	12,871	47,540

(단위: 개, 백만 달러)

연도	부동산업		정보통신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신규 법인수	투자금액	신규 법인수	투자금액	신규 법인수	투자금액	신규 법인수	투자금액
1968~1980	2	11	-	-	34	26	12	2
1981	-	-	-	-	6	4	2	0
1982	-	-	-	-	6	6	2	0
1983	-	-	-	-	9	3	3	0
1984	-	-	-	-	7	4	2	0
1985	-	-	-	-	2	2	-	-
1986	-	-	-	-	1	2	-	-
1987	1	0	1	0	4	3	4	1
1988	1	1	1	5	8	5	6	1
1989	6	9	1	3	3	13	5	2
199-	5	7	-	18	7	5	6	1
1991	5	16	3	4	4	13	6	9
1992	-	4	3	10	4	1	3	10
1993	1	2	1	2	17	20	6	5
1994	9	12	9	12	31	31	26	13
1995	17	94	25	299	42	87	16	38
1996	11	50	23	201	33	92	21	27
1997	14	206	39	428	29	84	25	31
1998	6	119	18	145	14	103	16	9
1999	4	50	20	46	22	63	69	50
2000	5	98	46	196	26	120	20	37
2001	10	38	28	74	17	43	14	6
2002	17	76	31	106	22	64	21	13
2003	29	102	41	115	34	53	12	15
2004	30	192	37	139	48	83	22	14
2005	65	167	99	196	145	206	53	111
2006	141	575	201	402	255	484	83	279
2007	333	1,599	220	550	268	691	114	510
2008	267	1,791	174	732	199	899	102	545
2009	73	2,439	127	366	158	461	75	667
2010	68	2,139	125	494	156	347	77	506
2011	49	1,850	146	496	161	367	66	1,084
2012	46	2,528	144	654	141	591	78	420
2013	78	4,726	140	472	142	590	76	608
2014	116	3,587	194	913	121	1,066	84	664
2015	87	4,500	223	667	153	1,720	79	261
2016	108	6,060	219	1,336	143	1,459	97	1,155
2017	150	3,623	295	2,610	144	744	97	1,359
합계	1,754	36,670	2,634	11,691	2,616	10,553	1,400	8,455

(단위: 개, 백만 달러)

연도	전기가스업		기타		전체	
	신규 법인수	투자금액	신규 법인수	투자금액	신규 법인수	투자금액
1968~1980	-	-	55	40	352	145
1981	-	-	8	11	49	64
1982	-	-	11	10	50	112
1983	-	-	10	23	57	168
1984	-	-	9	8	45	50
1985	-	-	6	8	39	112
1986	-	-	7	9	51	316
1987	-	-	10	11	92	410
1988	-	-	18	19	172	231
1989	-	-	30	132	271	571
1990	-	-	42	80	345	1,074
1991	-	-	51	121	449	1,318
1992	-	-	52	90	503	1,356
1993	-	-	43	86	694	1,450
1994	-	-	136	84	1,491	2,354
1995	1	20	122	168	1,348	3,234
1996	1	1	171	373	1,483	4,562
1997	2	12	179	352	1,366	3,906
1998	-	20	72	142	615	4,812
1999	-	79	181	200	1,104	3,403
2000	3	92	643	703	2,122	5,360
2001	1	3	523	251	2,185	5,396
2002	1	11	473	305	2,530	4,064
2003	-	0	542	353	2,827	4,811
2004	1	4	929	745	3,797	6,601
2005	6	158	1,078	738	4,451	7,318
2006	5	272	1,216	861	5,211	11,910
2007	22	634	1,326	1,292	5,690	22,741
2008	11	172	883	1,261	4,038	24,086
2009	26	539	520	897	2,473	20,784
2010	23	737	526	1,368	2,893	25,342
2011	21	609	545	1,525	2,757	29,292
2012	39	943	486	2,271	2,553	29,095
2013	23	588	583	1,786	2,832	30,649
2014	22	909	499	1,774	2,813	28,187
2015	27	689	531	1,746	2,999	29,786
2016	30	996	532	1,990	3,120	38,781
2017	33	899	543	2,062	3,213	43,445
합계	298	8,387	13,591	23,896	69,080	397,295

3. 지역별

(단위: 개, 백만 달러)

연도	아시아		북미		유럽		중남미	
	신규 법인수	투자금액	신규 법인수	투자금액	신규 법인수	투자금액	신규 법인수	투자금액
1968~1980	87	48	118	33	51	5	20	5
1981	17	5	14	33	1	2	3	1
1982	12	22	16	42	5	2	5	1
1983	18	28	24	109	2	13	5	0
1984	7	10	24	19	1	1	3	1
1985	15	18	12	27	3	39	3	3
1986	13	94	26	81	3	6	3	3
1987	18	132	41	189	11	7	14	4
1988	66	60	57	96	16	15	15	14
1989	126	128	73	283	16	19	29	56
1990	188	371	87	455	22	82	26	67
1991	270	550	82	455	40	172	36	42
1992	363	565	61	411	36	215	28	37
1993	556	663	61	416	32	175	28	43
1994	1,217	1,187	134	560	56	376	37	55
1995	1,053	1,772	143	584	75	641	31	124
1996	1,090	1,952	199	1,605	71	601	41	283
1997	943	1,906	230	909	77	490	35	280
1998	398	2,027	136	994	39	1,274	15	253
1999	675	1,298	326	1,445	42	306	24	179
2000	1,208	1,697	731	1,564	67	311	50	1,506
2001	1,457	1,507	538	1,586	69	2,134	23	104
2002	1,857	1,950	475	612	70	1,081	32	271
2003	2,097	2,690	560	1,490	71	265	32	218
2004	2,718	3,782	869	1,615	99	735	36	309
2005	3,033	4,370	1,108	1,364	141	651	51	515
2006	3,485	6,690	1,342	2,297	162	1,151	69	862
2007	3,805	12,779	1,332	3,665	247	4,032	76	995
2008	2,773	12,613	810	5,112	202	3,214	75	1,766
2009	1,605	8,010	531	5,775	123	4,355	64	956
2010	1,939	10,387	552	4,818	149	6,802	90	1,560
2011	1,841	11,856	476	8,307	155	3,239	111	2,971
2012	1,724	11,945	490	6,906	124	4,050	90	2,591
2013	1,936	12,284	515	7,513	152	3,911	86	2,336
2014	1,912	10,031	518	7,400	164	3,685	106	3,121
2015	2,043	11,477	561	8,342	171	3,513	113	2,752
2016	2,180	11,437	557	16,898	190	4,171	80	3,293
2017	2,231	13,159	555	17,988	243	7,279	67	2,597
합 계	46,976	161,501	14,384	111,996	3,198	59,021	1,652	30,175

(단위: 개, 백만 달러)

연도	대양주		중동		아프리카		전체	
	신규 법인수	투자금액	신규 법인수	투자금액	신규 법인수	투자금액	신규 법인수	투자금액
1968~1980	26	6	30	23	20	25	352	145
1981	4	18	6	3	4	1	49	64
1982	4	38	5	7	3	1	50	112
1983	1	15	5	3	2	0	57	168
1984	3	11	4	7	3	1	45	50
1985	4	15	1	10	1	0	39	112
1986	4	53	2	80	-	-	51	316
1987	5	6	1	71	2	1	92	410
1988	15	3	1	41	2	1	172	231
1989	21	45	1	32	5	8	271	571
1990	20	32	0	40	2	27	345	1,074
1991	16	23	0	59	5	18	449	1,318
1992	9	24	2	75	4	29	503	1,356
1993	6	35	4	86	7	32	694	1,450
1994	35	25	4	38	8	114	1,491	2,354
1995	38	39	1	32	7	42	1,348	3,234
1996	69	73	5	26	8	22	1,483	4,562
1997	61	142	3	72	17	107	1,366	3,906
1998	17	137	1	28	9	100	615	4,812
1999	23	69	4	80	10	26	1,104	3,403
2000	55	90	4	34	7	157	2,122	5,360
2001	87	21	4	27	7	18	2,185	5,396
2002	75	78	11	49	10	22	2,530	4,064
2003	58	92	5	27	4	29	2,827	4,811
2004	53	76	9	37	13	48	3,797	6,601
2005	82	155	17	132	19	130	4,451	7,318
2006	96	205	36	497	21	207	5,211	11,910
2007	108	521	90	512	32	237	5,690	22,741
2008	98	732	50	393	30	255	4,038	24,086
2009	59	427	58	634	33	628	2,473	20,784
2010	74	747	64	643	25	384	2,893	25,342
2011	77	1,870	69	644	28	404	2,757	29,292
2012	61	2,483	35	656	29	463	2,553	29,095
2013	80	3,427	34	836	29	341	2,832	30,649
2014	50	1,926	30	1,608	33	417	2,813	28,187
2015	38	1,100	38	2,404	35	196	2,999	29,786
2016	61	1,510	27	1,309	25	163	3,120	38,781
2017	59	1,075	37	818	21	530	3,213	43,445
합계	1,652	17,346	698	12,072	520	5,183	69,080	397,295

각 지역의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금액 비중 (2017년말 누적 기준)

(단위: %)

	아시아	북미	유럽	중남미	대양주	중동	아프리카
제조업	52.3	18.8	34.6	27.4	4.4	6.5	15.2
광업	6.9	15.1	8.0	33.4	59.2	41.5	63.6
금융보험업	11.0	19.7	11.8	14.9	3.3	0.6	2.4
도소매업	9.9	19.4	12.9	4.6	2.3	1.5	5.7
부동산업	6.5	12.8	15.3	1.2	11.2	3.3	0.7
정보통신업	2.7	4.8	2.7	0.7	0.0	0.1	2.0
건설업	2.2	0.7	1.8	2.3	1.3	34	1.4
운수창고업	1.9	1.0	2.9	3.9	7.6	0.7	0.2
전기가스업	1.9	1.2	2.9	2.1	1.2	11.3	1.6
기타	4.7	6.5	7.0	9.6	9.4	0.4	7.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 국가별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2017년말 누적 기준)

(단위: 개, 백만 달러, %)

	구분		투자비중		법인당 투자금액
	현지법인수	투자금액	현지법인수	투자금액	
미국	13,649	95,194	19.8	24.0	7.0
중국	26,276	72,839	38.0	18.3	2.8
베트남	5,105	18,012	7.4	4.5	3.5
오스트레일리아	698	14,585	1.0	3.7	20.9
영국	393	12,321	0.6	3.1	31.4
인도네시아	1,990	11,747	2.9	3.0	5.9
캐나다	670	10,923	1.0	2.7	16.3
홍콩	1,953	10,433	2.8	2.6	5.3
브라질	278	8,600	0.4	2.2	30.9
일본	3,037	8,013	4.4	2.0	2.6
전체	69,080	397,295	100.0	100.0	5.8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개, 백만 달러, %)

	2013		2014		2015		2016		2017	
	투자금액	비중	투자금액	비중	투자금액	비중	투자금액	비중	투자금액	비중
미 국	6,196	20.2	6,072	21.5	6,781	22.8	13,633	35.2	15,570	35.8
중 국	6,086	19.9	3,852	13.7	5,147	17.3	4,293	11.1	5,056	11.6
베 트 남	1,180	3.8	1,622	5.8	1,601	5.4	2,517	6.5	2,109	4.9
오스트레일리아	2,888	9.4	1,729	6.1	971	3.3	1,330	3.4	1,056	2.4
영 국	955	3.1	444	1.6	287	1.0	334	0.9	1,354	3.1
인 도 네 시 아	592	1.9	842	3.0	754	2.5	714	1.8	813	1.9
캐 나 다	1,136	3.7	653	2.3	472	1.6	1,145	3.0	711	1.6
홍 콩	459	1.5	247	0.9	418	1.4	563	1.5	1,038	2.4
브 라 질	626	2.0	481	1.7	776	2.6	688	1.8	483	1.1
일 본	808	2.6	491	1.7	1,023	3.4	389	1.0	846	1.9
전 체	30,649	100.0	28,187	100.0	29,786	100.0	38,781	100.0	43,445	100.0

연도별 상위 5대 투자 국가

	2013	2014	2015	2016	2017
1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2	중국	중국	중국	중국	중국
3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베트남	베트남
4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5	캐나다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5. 투자자 기업규모별

투자자 기업규모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2017년말 누적 기준)

(단위: 개, 백만 달러, %)

	구 분		투자비중		법인당 투자금액
	현지법인수	투자금액	현지법인수	투자금액	
대 기 업	9,678	315,931	14.0	79.5	33
중 소 기 업	32,321	62,471	46.8	15.7	2
기 타 ¹⁾	27,081	18,894	39.2	4.8	1
전 체	69,080	397,295	100.0	100.0	6

투자자 규모 및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금액 비중 (2017년말 누적 기준)

(단위: %)

	아시아	북미	유럽	중남미	대양주	중동	아프리카
대 기 업	72.2	81.9	89.2	79.2	84.8	96.4	90.6
중 소 기 업	23.2	11.8	9.9	12.4	8.4	2.9	8.9
기 타	4.7	6.3	0.9	8.4	6.8	0.6	0.5

투자자 규모 및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금액 비중 (2017년말 누적 기준)

(단위: %)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제 조 업	32.5	47.4	22.4
광 업	18.1	2.0	15.9
금 융 보 험 업	14.1	10.1	6.3
도 소 매 업	12.9	7.9	10.0
부 동 산 업	8.8	12.2	7.5
정 보 통 신 업	2.6	5.0	2.4
건 설 업	2.6	3.3	1.7
운 수 창 고 업	2.2	1.7	1.8
전 기 가 스 업	2.4	0.9	1.8
기 타	3.9	9.6	30.1
전 체	100.0	100.0	100.0

1) 기타는 개인, 개인기업, 집합투자자, 비영리단체 등을 포함

6. 투자목적별

투자목적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2017년말 누적 기준)

(단위: 개, 백만 달러, %)

	구 분		투자비중		법인당 투자금액
	현지법인수	투자금액	현지법인수	투자금액	
현지시장진출	25,387	157,359	36.8	39.6	6
자원개발	3,349	70,003	4.8	17.6	21
수출촉진	15,431	55,351	22.3	13.9	4
제3국진출	1,453	53,128	2.1	13.4	37
선진기술도입	1,851	25,987	2.7	6.5	14
저임활용	10,652	18,795	15.4	4.7	2
보호무역타개	9,414	13,738	13.6	3.5	1
원자재확보	594	2,273	0.9	0.6	4
기타	949	660	1.4	0.2	1
전체	69,080	397,295	100.0	100.0	6

각 지역의 투자목적별 해외직접투자 금액 비중 (2017년말 누적 기준)

(단위: %)

	아시아	북미	유럽	중남미	대양주	중동	아프리카
현지시장진출	45.6	39.5	35.8	30.3	21.1	39.7	12.6
자원개발	8.9	17.0	10.0	35.3	61.9	48.5	67.5
수출촉진	15.0	11.1	25.7	7.7	2.1	4,012.0	7.3
제3국진출	12.1	12.0	21.0	16.6	9.8	7.2	4.7
선진기술도입	2.5	17.4	3.2	1.6	0.2	0.3	0.0
저임활용	10.3	0.3	1.4	1.9	2.2	0.0	1.9
보호무역타개	1.0	0.3	0.3	0.3	0.1	0.0	0.1
원자재확보	0.2	0.1	0.1	0.3	0.3	0.0	0.1
기타	4.3	2.4	2.6	6.0	2.3	0.3	6.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II. 2017 회계연도 분석대상 현지법인 통계

1. 분석대상 현지법인 현황

가. 지역별

(단위: 개, 백만 달러, %)

	현지법인수	법인수비중	투자잔액	잔액비중
아 시 아	4,426	68.5	80,275	41.3
중 국	2,036	31.5	40,274	20.7
A S E A N	1,754	27.1	26,859	13.8
베 트 남	940	14.5	10,490	5.4
인 도 네 시 아	303	4.7	6,176	3.2
싱 가 포 르	94	1.5	2,650	1.4
말 레 이 시 아	67	1.0	2,283	1.2
필 리 핀	100	1.5	2,263	1.2
태 국	103	1.6	1,273	0.7
캄 보 디 아	102	1.6	886	0.5
그 외	45	0.7	837	0.4
홍 콩	142	2.2	4,180	2.2
일 본	203	3.1	3,267	1.7
카 자 흐 스 탄	27	0.4	1,845	0.9
인 도	104	1.6	1,623	0.8
그 외	160	2.5	2,228	1.1
북 미	980	15.2	51,932	26.7
미 국	912	14.1	44,606	23.0
캐 나 다	68	1.1	7,326	3.8
유럽	521	8.1	29,026	14.9
E U	390	6.0	21,264	10.9
영 국	54	0.8	5,227	2.7

	현지법인수	법인수비중	투자잔액	잔액비중
독 일	78	1.2	3,795	2.0
아 일 랜 드	2	0.0	2,877	1.5
벨 기 에	10	0.2	1,760	0.9
체 코	27	0.4	1,270	0.7
네 델 란 드	24	0.4	1,257	0.6
슬로바키아	38	0.6	1,015	0.5
폴 란 드	43	0.7	851	0.4
그 외	114	1.8	3,211	1.7
러 시 아	66	1.0	2,582	1.3
터 키	48	0.7	1,913	1.0
그 외	17	0.3	3,267	1.7
중 남 미	286	4.4	13,307	6.8
브 라 질	61	0.9	4,583	2.4
멕 시 코	104	1.6	3,835	2.0
파 나 마	65	1.0	2,180	1.1
그 외	56	0.9	2,708	1.4
대 양 주	122	1.9	10,633	5.5
오스트레일리아	59	0.9	9,054	4.7
그 외	63	1.0	1,578	0.8
중 동	79	1.2	5,879	3.0
사우디아라비아	29	0.4	3,159	1.6
아랍에미리트	29	0.4	1,754	0.9
그 외	21	0.3	965	0.5
아 프 리 카	49	0.8	3,296	1.7
전 체	6,463	100.0	194,347	100.0
개 도 국	4,812	74.5	106,968	55.0
선 진 국	1,651	25.5	87,379	45.0
B R I C s	2,276	35.2	49,246	25.3

나. 업종별

(단위: 개, 백만 달러, %)

	현지법인수	법인수비중	투자잔액	잔액비중
제 조 업	3,804	58.9	79,492	40.9
전 기 전 자	643	9.9	18,541	9.5
자 동 차	688	10.6	15,121	7.8
1 차 금 속	180	2.8	7,527	3.9
화 학	313	4.8	6,604	3.4
기 타 기 계	242	3.7	5,423	2.8
전 기 장 비	199	3.1	4,100	2.1
운 송 장 비	39	0.6	3,764	1.9
고 무 / 플 라 스틱	185	2.9	2,738	1.4
식 료 품	125	1.9	2,694	1.4
의 복	278	4.3	2,161	1.1
섬 유	140	2.2	1,796	0.9
금 속 제 품	209	3.2	1,603	0.8
기 타 제 품	110	1.7	1,423	0.7
신 발	122	1.9	1,143	0.6
기 타	331	5.1	4,854	2.5
광 업	155	2.4	37,422	19.3
도 소 매 업	753	11.7	34,656	17.8
부 동 산 업	426	6.6	11,809	6.1
정 보 통 신 업	285	4.4	6,183	3.2
건 설 업	158	2.4	5,369	2.8
전 기 가 스 업	89	1.4	4,844	2.5
전 문 과 학 기 술 업	174	2.7	4,357	2.2
운 수 창 고 업	161	2.5	2,825	1.5
기 타	458	7.1	7,389	3.8
전 체	6,463	100.0	194,347	100.0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단위: 개, 백만 달러, %)

	현지법인수	법인수비중	투자잔액	잔액비중
대 기 업	2,960	45.8	166,734	85.8
중 소 기 업	2,930	45.3	21,812	11.2
기 타	573	8.9	5,802	3.0
전 체	6,463	100.0	194,347	100.0

2. 주요 경영성과 비율

가. 지역별

(단위: %)

	영업이익률	당기순이익률
아 시 아	3.7	2.8
중 국	3.8	2.8
A S E A N	3.7	3.3
베 트 남	4.8	4.2
인 도 네 시 아	13.3	7.2
싱 가 포 르	0.0	1.9
말 레 이 시 아	2.8	2.2
필 리 핀	△1.0	△2.8
태 국	1.6	1.9
캄 보 디 아	4.0	0.7
그 외	36.2	14.6
홍 콩	0.7	0.2
일 본	2.6	1.4
카 자 흐 스 탄	7.0	△21.1
인 도	7.6	5.2
그 외	2.4	1.8
북 미	0.2	△0.2
미 국	0.1	△0.3
캐 나 다	4.2	0.2
유 럽	2.9	2.3
E U	2.7	2.2
영 국	3.9	3.6
독 일	1.0	0.5
아 일 랜 드	0.7	△0.6

	영업이익률	당기순이익률
벨 기 에	9.7	7.4
체 코	4.4	3.8
네 델 란 드	3.7	2.9
슬 로 바 키 아	3.9	2.9
폴 란 드	2.6	1.9
그 외	2.7	3.1
러 시 아	4.8	2.8
터 키	3.1	2.1
그 외	0.0	5.6
중 남 미	6.3	3.3
브 라 질	13.9	8.6
멕시코	△0.2	△0.5
파 나 마	0.3	△2.4
그 외	△0.4	△3.7
대 양 주	3.7	△16.2
오 스트 레 일 리 아	3.1	△17.9
그 외	9.8	2.3
중 동	9.3	△0.4
사 우 디 아 라 비 아	0.3	△10.7
아 랍 에 미 리 트	9.6	1.4
그 외	25.6	2.4
아 프 리 카	0.1	△6.6
전 체	3.0	1.8
개 도 국	4.1	2.8
선 진 국	1.3	0.2
B R I C s	4.8	3.4

나. 업종별

(단위: %)

				영업이익률	당기순이익률			
제	조	업		3.9	3.0			
전	기	전	자	5.6	5.6			
자	동	차		1.7	1.1			
1	차	금	속	1.7	△1.3			
화			학	8.1	6.3			
기	타	기	계	3.2	0.8			
전	기	장	비	2.7	1.6			
운	송	장	비	△0.8	0.4			
고	무 /	플	라	스	틱	4.0	3.0	
식	료		품	4.6	1.5			
의			복	0.7	△0.6			
섬			유	4.3	2.7			
금	속	제	품	4.9	2.8			
기	타	제	품	7.7	5.0			
신			발	3.1	1.7			
기			타	4.5	2.4			
광			업	24.0	△4.7			
도	소	매	업	0.4	0.5			
부	동	산	업	25.5	10.9			
정	보	통	신	업	△0.2	△3.9		
건		설	업	3.9	△3.6			
전	기	가	스	업	16.7	11.6		
전	문	과	학	기	술	업	△5.1	△4.7
운	수	창	고	업	9.6	4.7		
기			타	1.1	△1.1			
전			체	3.0	1.8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단위: %)

				영업이익률	당기순이익률
대	기	업		3.1	1.9
중	소	기	업	1.6	0.2
기			타	2.0	△2.9
전			체	3.0	1.8

3. 매출 및 매입비중 현황

가. 지역별

(단위: %)

	매출비중			매입비중		
	현지매출	한국수출	제3국수출	현지매입	한국수입	제3국수입
아 시 아	55.5	29.7	14.9	44.4	40.5	15.1
중 국	60.1	34.8	5.1	59.4	30.5	10.1
A S E A N	45.9	32.8	21.3	30.6	46.1	23.3
베 트 남	47.6	42.6	9.8	34.2	55.1	10.7
인 도 네 시 아	61.7	20.1	18.2	59.2	17.7	23.1
싱 가 포 르	36.2	34.0	29.8	22.6	45.5	31.9
말 레 이 시 아	72.5	10.5	17.0	18.6	43.0	38.4
필 리 핀	43.5	19.5	37.0	30.3	55.8	13.9
태 국	53.0	16.2	30.8	37.0	46.0	17.0
캄 보 디 아	31.4	63.7	4.9	82.6	9.0	8.4
그 외	20.3	7.7	71.9	45.1	13.2	41.6
홍 콩	64.8	7.9	27.4	29.9	56.1	14.1
일 본	59.3	13.8	26.9	29.9	65.1	5.0
카 자 흐 스 탄	87.9	2.4	9.7	38.6	61.4	0.0
인 도	82.5	0.7	16.8	75.6	21.7	2.7
그 외	47.5	6.1	46.4	15.7	72.9	11.5
북 미	85.1	1.7	13.2	26.8	68.0	5.1
미 국	84.6	1.6	13.7	27.7	67.6	4.7
캐 나 다	94.1	3.8	2.0	8.3	77.1	14.6
유 럽	61.4	2.9	35.7	30.8	33.7	35.5
E U	57.2	3.4	39.4	28.5	33.4	38.2
영 국	85.7	4.7	9.6	28.0	18.2	53.7
독 일	44.3	1.0	54.6	12.6	46.3	41.1

	매출비중			매입비중		
	현지매출	한국수출	제3국수출	현지매입	한국수입	제3국수입
아 일 랜 드	90.0	10.0	0.0	90.0	10.0	0.0
벨 기 에	97.5	1.9	0.6	6.3	78.6	15.2
체 코	44.2	0.0	55.7	60.9	22.7	16.4
네 덜 란 드	78.8	0.1	21.0	9.2	18.6	72.2
슬 로 바 키 아	52.9	0.1	47.0	46.4	34.3	19.4
폴 란 드	51.3	32.9	15.7	26.3	16.1	57.6
그 외	74.2	1.7	24.1	28.4	26.0	45.6
러 시 아	96.1	0.3	3.7	41.4	42.6	15.9
터 키	51.8	0.2	48.1	49.4	21.2	29.4
그 외	74.9	1.7	23.4	11.1	10.3	78.5
중 남 미	79.5	3.6	16.9	35.3	44.6	20.2
브 라 질	92.5	3.7	3.9	36.4	32.6	31.0
멕 시 코	71.8	1.4	26.8	43.4	48.0	8.7
파 나 마	66.1	5.6	28.3	0.1	63.4	36.5
그 외	55.2	11.3	33.5	17.7	49.9	32.4
대 양 주	92.7	5.4	1.9	25.4	71.6	3.1
오 스트레일리아	98.1	0.6	1.3	22.7	75.3	2.0
그 외	33.9	57.9	8.1	66.5	13.3	20.1
중 동	75.3	11.3	13.4	14.0	37.5	48.5
사우디아라비아	81.5	0.2	18.3	96.9	1.2	2.0
아 랍 에 미 리 트	77.6	14.4	8.0	2.8	42.0	55.2
그 외	34.8	0.0	65.2	15.1	72.5	12.4
아 프 리 카	42.9	6.1	51.0	19.6	76.7	3.7
전 체	64.6	17.4	18.0	37.2	46.0	16.8
개 도 국	58.6	26.3	15.1	43.5	40.0	16.5
선 진 국	74.3	2.9	22.8	27.4	55.4	17.2
B R I C s	65.9	28.3	5.8	57.8	31.4	10.9

나. 업종별

(단위: %)

	매출비중			매입비중		
	현지매출	한국수출	제3국수출	현지매입	한국수입	제3국수입
제조업	57.0	26.2	16.8	46.9	38.2	14.8
전기전자	34.9	51.4	13.6	24.5	55.8	19.7
자동차	76.4	1.9	21.7	67.7	24.3	8.0
1차금속	82.1	6.9	11.0	53.7	34.0	12.3
화학	79.2	4.3	16.5	56.0	25.3	18.8
기타기계	69.8	24.5	5.7	62.0	32.2	5.8
전기장비	56.7	28.8	14.5	45.6	38.7	15.7
운송장비	21.1	18.5	60.5	34.6	48.1	17.3
고무/플라스틱	69.4	7.2	23.4	43.9	44.4	11.7
식료품	74.8	4.2	21.1	71.6	7.7	20.7
의복	27.3	60.6	12.1	60.8	12.6	26.6
섬유	59.1	20.7	20.2	61.1	12.9	26.0
금속제품	70.2	19.2	10.5	62.4	30.9	6.7
기타제품	49.1	17.4	33.5	53.7	13.4	33.0
신발	19.1	70.3	10.7	53.5	32.1	14.4
기타	62.7	16.4	21.0	56.2	24.5	19.3
광업	74.3	13.0	12.7	90.1	9.5	0.3
도소매업	70.7	8.1	21.2	21.6	57.9	20.5
부동산업	97.0	0.1	3.0	99.0	0.4	0.6
전체	64.6	17.4	18.0	37.2	46.0	16.8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단위: %)

	매출비중			매입비중		
	현지매출	한국수출	제3국수출	현지매입	한국수입	제3국수입
대기업	64.0	17.5	18.5	35.6	47.1	17.2
중소기업	72.4	17.3	10.2	62.1	28.7	9.3
기타	66.1	12.4	21.5	58.9	18.7	22.4
전체	64.6	17.4	18.0	37.2	46.0	16.8

4. 주요 재무비율

가. 지역별

(단위: %, 배)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유동비율	이자보상배율	금융비용부담률
아 시 아	125.9	21.8	125.3	6.4	0.6
중 국	104.6	15.3	134.1	7.7	0.5
A S E A N	161.3	32.0	108.2	5.4	0.7
베 트 남	287.7	44.1	85.6	6.7	0.7
인 도 네 시 아	121.3	31.8	121.3	7.0	1.9
싱 가 포 르	133.9	8.3	118.9	0.1	0.1
말 레 이 시 아	51.9	13.7	217.3	5.9	0.5
필 리 핀	174.8	38.8	70.0	△0.7	1.4
태 국	64.3	12.8	236.7	6.4	0.3
캄 보 디 아	823.3	58.1	191.8	1.2	3.2
그 외	170.1	54.0	98.4	1.9	19.1
홍 콩	189.8	28.3	112.5	1.2	0.5
일 본	132.8	26.3	130.6	7.9	0.3
카 자 흐 스 탄	506.8	55.0	221.8	0.7	9.7
인 도	123.6	19.1	148.1	12.3	0.6
그 외	142.1	12.7	129.7	15.2	0.2
북 미	177.3	34.7	169.2	0.3	0.7
미 국	180.9	35.0	172.3	0.1	0.7
캐 나 다	127.8	30.5	92.5	3.0	1.4
유 럽	178.1	16.8	123.3	6.2	0.5
E U	139.6	14.4	130.4	6.1	0.4
영 국	121.4	18.6	82.6	1.3	3.1
독 일	265.1	14.1	112.8	5.5	0.2
아 일 랜 드	37.5	14.5	131.1	0.2	3.1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유동비율	이자보상배율	금융비용부담률
벨 기 에	55.9	20.9	146.1	8.2	1.2
체 코	120.7	18.3	186.6	33.1	0.1
네 덜 란 드	95.0	6.8	138.7	17.8	0.2
슬 로 바 키 아	131.8	8.7	167.1	79.5	0.0
폴 란 드	109.3	14.2	136.1	9.3	0.3
그 외	174.0	13.4	134.2	4.8	0.6
러 시 아	189.2	27.3	162.0	10.1	0.5
터 키	390.0	47.2	94.3	4.1	0.7
그 외	611.4	10.2	99.3	0.0	2.4
중 남 미	182.0	37.8	122.5	3.9	1.6
브 라 질	124.3	28.6	161.8	8.1	1.7
멕 시 코	314.2	43.9	89.4	△0.2	0.9
파 나 마	3,362.4	73.8	81.7	0.2	2.0
그 외	127.1	36.3	106.4	△0.1	3.9
대 양 주	319.9	57.1	135.0	0.9	4.2
오스트레일리아	285.1	53.4	147.0	0.8	3.9
그 외	680.4	75.6	84.3	1.2	8.4
중 동	293.8	39.0	87.7	3.8	2.4
사우디아라비아	△528.4	81.8	61.4	0.0	12.3
아랍에미리트	144.1	20.6	109.5	17.7	0.5
그 외	60.2	12.8	157.7	9.3	2.8
아 프 리 카	313.5	55.4	121.8	0.0	6.7
전 체	153.0	26.8	133.1	4.1	0.7
개 도 국	142.0	24.8	123.6	5.3	0.8
선 진 국	173.7	30.2	151.2	1.9	0.7
B R I C s	109.3	17.0	137.4	8.2	0.6

나. 업종별

(단위: %, 배)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유동비율	이자보상배율	금융비용부담률
제 조 업	123.3	22.3	128.7	6.5	0.6
전 기 전 자	86.2	14.9	161.7	22.5	0.2
자 동 차	168.6	22.1	121.3	3.9	0.4
1 차 금 속	238.3	47.4	101.2	0.9	1.8
화 학	71.8	18.8	138.1	10.3	0.8
기 타 기 계	94.7	16.8	122.7	3.7	0.8
전 기 장 비	121.7	17.3	142.3	4.1	0.6
운 송 장 비	3,048.8	36.7	62.2	△0.5	1.5
고 무 / 플 라 스틱	149.5	34.6	90.7	2.5	1.6
식 료 품	103.4	30.4	111.8	3.2	1.4
의 복	168.7	24.3	116.9	1.0	0.7
섬 유	115.1	32.4	98.9	4.4	1.0
금 속 제 품	216.1	23.7	107.5	10.6	0.5
기 타 제 품	89.3	21.6	180.4	7.7	1.0
신 발	160.0	31.8	92.5	4.5	0.7
기 타	70.8	17.5	147.8	3.2	1.4
광 업	122.9	39.3	106.7	3.3	7.3
도 소 매 업	225.5	23.2	148.4	2.1	0.2
부 동 산 업	128.9	42.6	156.9	1.4	17.9
정 보 통 신 업	84.0	17.1	154.2	△0.3	0.8
건 설 업	△676.4	70.2	78.4	0.6	6.9
전 기 가 스 업	145.0	43.9	102.6	5.2	3.2
전 문 과 학 기 술 업	161.4	4.5	116.3	△5.2	1.0
운 수 창 고 업	124.9	28.0	119.4	3.1	3.1
기 타	364.3	57.3	103.1	0.3	3.4
전 체	153.0	26.8	133.1	4.1	0.7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단위: %, 배)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유동비율	이자보상배율	금융비용부담률
대 기 업	155.3	26.9	134.5	4.5	0.7
중 소 기 업	126.0	22.0	119.1	1.4	1.1
기 타	183.4	48.9	122.4	0.5	4.1
전 체	153.0	26.8	133.1	4.1	0.7

5. 투자수익 및 투자수익률

가. 지역별

(단위: 백만 달러, %)

	투자자 순이익(A)	대부이자 지급액(B)	로열티 지급액(C)	투자수익 (D=A+B+C)	투자잔액 (E)	투자수익률 (D/E)
아 시 아	7,870	89	2,232	10,192	80,275	12.7
중 국	3,371	13	1,084	4,467	40,274	11.1
A S E A N	3,516	65	738	4,319	26,859	16.1
베 트 남	1,874	23	490	2,387	10,490	22.8
인 도 네 시 아	153	12	172	337	6,176	5.5
싱 가 포 르	1,202	1	1	1,205	2,650	45.5
말 레 이 시 아	243	2	2	248	2,283	10.9
필 리 핀	△99	2	39	△57	2,263	△2.5
태 국	151	0	33	185	1,273	14.5
캄 보 디 아	△10	2	0	△8	886	△0.9
그 외	1	22	-	23	837	2.7
홍 콩	75	0	3	78	4,180	1.9
일 본	130	7	55	192	3,267	5.9
카 자 흐 스 탄	△109	3	38	△68	1,845	△3.7
인 도	701	0	313	1,013	1,623	62.4
그 외	188	1	1	190	2,228	8.5
북 미	265	66	331	663	51,932	1.3
미 국	310	59	331	700	44,606	1.6
캐 나 다	△45	7	1	△37	7,326	△0.5
유 럽	2,479	23	765	3,267	29,023	11.3
E U	1,951	21	571	2,543	21,264	12
영 국	152	0	3	156	5,227	3
독 일	178	11	3	192	3,795	5.1

	투자자 순이익(A)	대부이자 지급액(B)	로열티 지급액(C)	투자수익 (D=A+B+C)	투자잔액 (E)	투자수익률 (D/E)
아 일 랜 드	△5	0	-	△5	2,877	△0.2
벨 기 예	89	0	0	89	1,760	5.1
체 코	411	-	232	643	1,270	50.6
네 델 란 드	83	-	0	83	1,257	6.6
슬로바키아	352	0	321	673	1,015	66.2
폴 란 드	47	0	7	55	851	6.4
그 외	645	9	4	658	3,211	20.5
러 시 아	359	1	160	521	2,582	20.2
터 키	106	0	29	136	1,913	7.1
그 외	62	-	6	68	3,265	2.1
중 남 미	832	73	464	1,369	13,307	10.3
브 라 질	1,028	19	208	1,255	4,583	27.4
멕시코	△95	1	250	156	3,835	4.1
파 나 마	△48	49	4	4	2,180	0.2
그 외	△52	4	2	△46	2,708	△1.7
대 양 주	△1,375	101	5	△1,269	10,633	△11.9
오스트레일리아	△1,387	44	1	△1,342	9,054	△14.8
그 외	13	57	4	73	1,578	4.6
중 동	△15	23	1	9	5,882	0.2
사우디아라비아	△172	6	1	△166	3,159	△5.3
아랍에미리트	102	18	0	120	1,754	6.8
그 외	56	-	-	56	968	5.8
아 프 리 카	59	15	13	88	3,296	2.7
전 체	10,117	391	3,812	14,320	194,347	7.4
개 도 국	9,125	2,854	252	12,231	106,968	11.4
선 진 국	992	958	139	2,089	87,379	2.4
B R I C s	5,473	1,765	36	7,274	49,246	14.8

나. 업종별

(단위: 백만 달러, %)

	투자자 순이익(A)	대부이자 지급액(B)	로열티 지급액(C)	투자수익 (D=A+B+C)	투자잔액 (E)	투자수익률 (D/E)
제 조 업	9,985	69	3,541	13,595	79,492	17.1
전 기 전 자	6,676	14	1,053	7,743	18,541	41.8
자 동 차	1,368	15	1,937	3,320	15,121	22.0
1 차 금 속	△164	4	10	△150	7,527	△2.0
화 학	733	1	27	761	6,604	11.5
기 타 기 계	72	6	16	94	5,423	1.7
전 기 장 비	483	7	167	656	4,100	16.0
운 송 장 비	1	1	30	32	3,764	0.8
고 무 / 플 라 스틱	172	4	98	274	2,738	10.0
식 료 품	77	2	63	143	2,694	5.3
의 복	△27	5	0	△22	2,161	△1.0
섬 유	88	1	51	140	1,796	7.8
금 속 제 품	285	3	53	341	1,603	21.3
기 타 제 품	110	0	18	128	1,423	9.0
신 발	86	3	0	90	1,143	7.8
기 타	27	4	17	48	4,854	1.0
광 업	△1,639	69	42	△1,528	37,422	△4.1
도 소 매 업	1,554	7	110	1,671	34,656	4.8
부 동 산 업	157	59	3	218	11,809	1.8
정 보 통 신 업	△35	7	76	48	6,183	0.8
건 설 업	△124	7	4	△113	5,369	△2.1
전 기 가 스 업	257	20	3	280	4,844	5.8
전 문 과 학 기 술 업	△7	1	2	△3	4,357	△0.1
운 수 창 고 업	94	38	4	135	2,825	4.8
기 타	△126	116	27	17	7,389	0.2
전 체	10,117	391	3,812	14,320	194,347	7.4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단위: 백만 달러, %)

	투자자 순이익(A)	대부이자 지급액(B)	로열티 지급액(C)	투자수익 (D=A+B+C)	투자잔액 (E)	투자수익률 (D/E)
대 기 업	10,187	223	3,583	13,993	166,734	8.4
중 소 기 업	△41	60	219	237	21,812	1.1
기 타	△28	109	10	90	5,802	1.6
전 체	10,117	391	3,812	14,320	194,347	7.4

6. 수출입효과 및 무역수지 개선효과

가. 지역별

(단위: 백만 달러, %)

	투자잔액(A)	수출(B)	수입(C)	수출 유발효과 (D=B/A)	수입 유발효과 (E=C/A)	무역수지 개선효과 (D-E)
아 시 아	80,275	125,730	114,656	156.6	142.8	13.8
중 국	40,274	43,047	62,987	106.9	156.4	△49.5
A S E A N	26,859	55,113	47,341	205.2	176.3	28.9
베 트 남	10,490	20,955	21,031	199.8	200.5	△0.7
인 도 네 시 아	6,176	2,003	3,823	32.4	61.9	△29.5
상 가 포 르	2,650	25,964	19,679	979.8	742.6	237.2
말 레 이 시 아	2,283	1,697	590	74.4	25.9	48.5
필 리 핀	2,263	1,481	654	65.4	28.9	36.5
태 국	1,273	2,995	1,360	235.3	106.9	128.4
캄 보 디 아	886	13	158	1.4	17.9	△16.4
그 외	837	5	45	0.6	5.3	△4.7
홍 콩	4,180	10,833	1,646	259.1	39.4	219.8
일 본	3,267	6,713	1,799	205.5	55.1	150.5
카 자 흐 스 탄	1,845	2	13	0.1	0.7	△0.6
인 도	1,623	2,014	103	124.1	6.3	117.8
그 외	2,228	8,008	767	359.4	34.4	325.0
북 미	51,932	85,884	2,628	165.4	5.1	160.3
미 국	44,606	81,745	2,366	183.3	5.3	178.0
캐 나 다	7,326	4,139	263	56.5	3.6	52.9
유 럽	29,026	32,921	3,299	113.4	11.4	102.1
E U	21,264	27,185	3,241	127.8	15.2	112.6
영 국	5,227	610	229	11.7	4.4	7.3
독 일	3,795	13,753	336	362.4	8.8	353.6

	투자잔액(A)	수출(B)	수입(C)	수출 유발효과 (D=B/A)	수입 유발효과 (E=C/A)	무역수지 개선효과 (D-E)
아 일 랜 드	2,877	63	76	2.2	2.6	△0.5
벨 기 에	1,760	598	23	34.0	1.3	32.7
체 코	1,270	2,158	4	169.9	0.3	169.6
네 덜 란 드	1,257	628	6	50.0	0.5	49.5
슬 로 바 키 아	1,015	4,235	9	417.1	0.9	416.2
폴 란 드	851	873	2,213	102.5	259.9	△157.4
그 외	3,211	4,267	346	132.9	10.8	122.1
러 시 아	2,582	4,695	34	181.8	1.3	180.5
터 키	1,913	974	9	50.9	0.5	50.4
그 외	3,267	67	16	2.1	0.5	1.6
중 남 미	13,307	9,987	1,204	75.1	9	66
브 라 질	4,583	2,266	569	49.4	12.4	37.0
멕 시 코	3,835	5,486	184	143.0	4.8	138.2
파 나 마	2,180	1,096	114	50.3	5.2	45.0
그 외	2,708	1,139	337	42.1	12.4	29.6
대 양 주	10,633	4,670	449	43.9	4.2	39.7
오스트레일리아	9,054	4,617	46	51.0	0.5	50.5
그 외	1,578	52	403	3.3	25.6	△22.2
중 동	5,879	2,532	1,111	43.1	18.9	24.2
사우디아라비아	3,159	9	3	0.3	0.1	0.2
아랍에미리트	1,754	2,478	1,107	141.2	63.1	78.1
그 외	965	45	0	4.7	0.0	4.7
아 프 리 카	3,296	1,937	236	58.8	7.2	51.6
전 체	194,347	263,660	123,583	135.7	63.6	72.1
개 도 국	106,968	139,246	115,844	130.2	108.3	21.9
선 진 국	87,379	124,415	7,739	142.4	8.9	133.5
B R I C S	49,246	53,159	63,695	107.9	129.3	△21.4

나. 업종별

(단위: 백만 달러, %)

	투자잔액(A)	수출(B)	수입(C)	수출 유발효과 (D=B/A)	수입 유발효과 (E=C/A)	무역수지 개선효과 (D-E)
제 조 업	79,492	108,573	95,260	136.6	119.8	16.7
전 기 전 자	18,541	60,052	68,610	323.9	370.0	△46.2
자 동 차	15,121	21,455	1,937	141.9	12.8	129.1
1 차 금 속	7,527	5,405	1,640	71.8	21.8	50.0
화 학	6,604	3,546	797	53.7	12.1	41.6
기 타 기 계	5,423	1,687	1,906	31.1	35.1	△4.0
전 기 장 비	4,100	8,075	7,291	197.0	177.8	19.1
운 송 장 비	3,764	1,221	646	32.4	17.2	15.3
고무/플라스틱	2,738	1,628	422	59.5	15.4	44.1
식 료 품	2,694	232	240	8.6	8.9	△0.3
의 복	2,161	436	3,205	20.2	148.3	△128.1
섬 유	1,796	271	827	15.1	46.1	△31.0
금 속 제 품	1,603	1,646	1,908	102.7	119.0	△16.3
기 타 제 품	1,423	320	668	22.5	47.0	△24.5
신 발	1,143	1,125	3,740	98.4	327.2	△228.8
기 타	4,854	1,472	1,421	30.3	29.3	1.1
광 업	37,422	444	1,918	1.2	5.1	△3.9
도 소 매 업	34,656	148,502	23,333	428.5	67.3	361.2
부 동 산 업	11,809	1	1	0.0	0.0	0.0
전 체	194,347	263,660	123,583	135.7	63.6	72.1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단위: 백만 달러, %)

	투자잔액(A)	수출(B)	수입(C)	수출 유발효과 (D=B/A)	수입 유발효과 (E=C/A)	무역수지 개선효과 (D-E)
대 기 업	166,734	254,297	115,018	152.5	69	83.5
중 소 기 업	21,812	8,973	8,056	41.1	36.9	4.2
기 타	5,802	390	509	6.7	8.8	△2.1
전 체	194,347	263,660	123,583	135.7	63.6	72.1

III. 최근 5년간 분석대상 현지법인 통계

1. 분석대상 현지법인 현황

가. 지역별

(단위: 개, 백만 달러, %)

	2013			2014		
	법인수	투자잔액	잔액비중	법인수	투자잔액	잔액비중
아 시 아	4,032	63,119	46.5	3,952	68,688	45.6
중 국	2,159	34,415	25.3	2,019	34,565	23.0
A S E A N	1,285	19,256	14.2	1,322	21,153	14.1
그 외	588	9,448	7.0	611	12,970	8.6
북 미	783	31,224	23.0	788	34,944	23.2
미 국	722	25,770	19.0	727	28,502	18.9
캐 나 다	61	5,455	4.0	61	6,442	4.3
유 럽	438	21,885	16.1	465	23,035	15.3
E U	329	18,687	13.8	337	15,967	10.6
그 외	109	3,198	2.4	128	7,068	4.7
중 남 미	246	7,770	5.7	226	10,230	6.8
기 타	239	11,803	8.7	235	13,653	9.1
전 체	5,738	135,801	100.0	5,666	150,551	100.0
개 도 국	4,364	77,314	56.9	4,271	88,284	58.6
선 진 국	1,374	58,487	43.1	1,395	62,267	41.4
B R I C s	2,399	41,945	30.9	2,256	43,082	28.6

(단위: 개, 백만 달러, %)

	2015			2016			2017		
	법인수	투자잔액	잔액비중	법인수	투자잔액	잔액비중	법인수	투자잔액	잔액비중
아 시 아	4,132	75,362	44.4	4,247	79,242	42.9	4,426	80,275	41.3
중 국	2,032	38,483	22.7	2,036	40,243	21.8	2,036	40,274	20.7
A S E A N	1,465	23,396	13.8	1,583	25,388	13.7	1,754	26,859	13.8
그 외	635	13,483	7.9	628	13,612	7.4	636	13,143	6.8
북 미	881	40,167	23.7	922	47,408	25.7	980	51,932	26.7
미 국	813	33,259	19.6	855	39,984	21.6	912	44,606	23.0
캐 나 다	68	6,909	4.1	67	7,424	4.0	68	7,326	3.8
유 럽	487	24,238	14.3	484	24,624	13.3	521	29,026	14.9
E U	355	16,557	9.8	355	17,436	9.4	390	21,264	10.9
그 외	132	7,681	4.5	129	7,187	3.9	131	7,762	4.0
중 남 미	289	11,765	6.9	308	13,160	7.1	286	13,307	6.8
기 타	256	18,094	10.7	264	20,267	11.0	250	19,807	10.2
전 체	6,045	169,626	100.0	6,225	184,701	100.0	6,463	194,347	100.0
개 도 국	4,537	100,073	59.0	4,680	105,909	57.3	4,812	106,968	55.0
선 진 국	1,508	69,553	41.0	1,545	78,792	42.7	1,651	87,379	45.0
B R I C s	2,287	46,789	27.6	2,289	48,612	26.3	2,276	49,246	25.3

나. 업종별

(단위: 개, 백만 달러, %)

	2013			2014		
	법인수	투자잔액	잔액비중	법인수	투자잔액	잔액비중
제조업	3,451	64,740	47.7	3,313	67,082	44.6
전기전자	644	15,143	11.2	584	16,056	10.7
자동차	534	12,468	9.2	545	10,895	7.2
1차 금속	182	6,633	4.9	172	6,906	4.6
화학	251	4,455	3.3	246	5,145	3.4
기타 기계	240	6,069	4.5	207	5,847	3.9
전기 장비	194	3,531	2.6	200	3,627	2.4
운송 장비	43	2,317	1.7	39	3,492	2.3
고무 / 플라스틱	157	2,483	1.8	150	2,314	1.5
식품	121	1,815	1.3	127	2,252	1.5
의복	268	1,763	1.3	269	1,980	1.3
섬유	131	1,486	1.1	125	1,528	1.0
금속 제품	193	1,628	1.2	196	1,511	1.0
기타 제품	105	1,027	0.8	97	1,133	0.8
신발	98	737	0.5	99	804	0.5
기타	290	3,184	2.3	257	3,593	2.4
광업	169	26,477	19.5	183	33,611	22.3
도소매업	669	17,985	13.2	691	21,461	14.3
부동산업	301	6,240	4.6	284	4,533	3.0
정보통신업	196	1,950	1.4	219	2,531	1.7
건설업	139	2,428	1.8	143	3,358	2.2
전기 가스업	63	3,061	2.3	72	4,221	2.8
전문 과학 기술업	121	3,452	2.5	136	3,642	2.4
운수 창고업	153	2,807	2.1	149	2,358	1.6
기타	476	6,660	4.9	476	7,755	5.2
전체	5,738	135,801	100.0	5,666	150,551	100.0

(단위: 개, 백만 달러, %)

	2015			2016			2017		
	법인수	투자잔액	잔액비중	법인수	투자잔액	잔액비중	법인수	투자잔액	잔액비중
제 조 업	3,528	73,417	43.3	3,599	77,305	41.9	3,804	79,492	40.9
전 기 전 자	593	17,046	10.0	595	17,306	9.4	643	18,541	9.5
자 동 차	630	12,506	7.4	649	13,268	7.2	688	15,121	7.8
1 차 금 속	180	7,050	4.2	182	7,790	4.2	180	7,527	3.9
화 학	273	5,932	3.5	292	7,115	3.9	313	6,604	3.4
기 타 기 계	224	6,363	3.8	223	6,373	3.5	242	5,423	2.8
전 기 장 비	191	3,467	2.0	203	4,110	2.2	199	4,100	2.1
운 송 장 비	34	3,401	2.0	37	3,769	2.0	39	3,764	1.9
고 무 / 플 라 스틱	174	3,388	2.0	169	3,393	1.8	185	2,738	1.4
식 료 품	130	2,310	1.4	138	2,542	1.4	125	2,694	1.4
의 복	273	2,198	1.3	267	2,033	1.1	278	2,161	1.1
섬 유	139	2,734	1.6	140	1,501	0.8	140	1,796	0.9
금 속 제 품	194	1,413	0.8	189	1,639	0.9	209	1,603	0.8
기 타 제 품	104	862	0.5	101	1,419	0.8	110	1,423	0.7
신 발	104	859	0.5	107	996	0.5	122	1,143	0.6
기 타	285	3,887	2.3	307	4,052	2.2	331	4,854	2.5
광 업	177	36,751	21.7	176	39,773	21.5	155	37,422	19.3
도 소 매 업	723	24,049	14.2	775	28,892	15.6	753	34,656	17.8
부 동 산 업	335	7,753	4.6	385	10,905	5.9	426	11,809	6.1
정 보 통 신 업	246	3,094	1.8	248	3,491	1.9	285	6,183	3.2
건 설 업	149	4,228	2.5	159	5,440	2.9	158	5,369	2.8
전 기 가 스 업	74	4,345	2.6	78	4,477	2.4	89	4,844	2.5
전 문 과 학 기 술 업	144	2,321	1.4	159	2,762	1.5	174	4,357	2.2
운 수 창 고 업	145	2,661	1.6	149	2,687	1.5	161	2,825	1.5
기 타	524	11,006	6.5	497	8,968	4.9	458	7,389	3.8
전 체	6,045	169,626	100.0	6,225	184,701	100.0	6,463	194,347	100.0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단위: 개, 백만 달러, %)

	2013			2014		
	법인수	투자잔액	잔액비중	법인수	투자잔액	잔액비중
대 기 업	2,449	114,268	84.1	2,720	130,047	86.4
중 소 기 업	2,846	17,878	13.2	2,465	14,614	9.7
기 타	443	3,655	2.7	481	5,890	3.9
전 체	5,738	135,801	100.0	5,666	150,551	100.0

(단위: 개, 백만 달러, %)

	2015			2016			2017		
	법인수	투자잔액	잔액비중	법인수	투자잔액	잔액비중	법인수	투자잔액	잔액비중
대 기 업	2,839	144,249	85.0	2,932	159,168	86.2	2,960	166,734	85.8
중 소 기 업	2,630	17,413	10.3	2,740	19,459	10.5	2,930	21,812	11.2
기 타	576	7,964	4.7	553	6,074	3.3	573	5,802	3.0
전 체	6,045	169,626	100.0	6,225	184,701	100.0	6,463	194,347	100.0

2. 주요 경영성과

(1) 매출액

가. 지역별

(단위: 백만 달러)

	2013	2014	2015	2016	2017
아 시 아	430,346	418,743	368,737	347,309	386,385
중 국	250,151	241,175	213,639	192,931	181,212
A S E A N	107,092	111,371	95,154	105,174	144,420
그 외	73,103	66,196	59,943	49,204	60,753
북 미	133,760	134,470	153,696	148,658	152,444
미 국	122,349	127,860	147,377	142,513	145,616
캐 나 다	11,411	6,610	6,319	6,145	6,828
유 럽	124,476	115,071	106,763	100,949	114,358
E U	101,522	93,821	91,983	85,173	95,258
그 외	22,954	21,250	14,780	15,776	19,100
중 남 미	28,898	25,931	21,858	22,519	33,619
기 타	28,464	28,014	25,543	22,733	21,927
전 체	745,944	722,230	676,597	642,168	708,733
개 도 국	475,744	469,509	407,793	388,422	439,660
선 진 국	270,200	252,721	268,804	253,746	269,073
B R I C s	297,355	283,362	245,451	219,283	224,888

나. 업종별

(단위: 백만 달러)

	2013	2014	2015	2016	2017
제조업	406,815	376,720	344,530	332,396	364,133
전기전자	146,042	133,089	117,502	104,886	133,364
자동차	123,440	111,881	108,484	108,908	103,268
1차 금속	20,054	21,460	18,554	18,171	23,767
화학	15,399	19,943	15,676	16,279	18,424
기타 기계	9,945	10,360	9,093	8,429	7,780
전기장비	30,817	27,438	24,130	23,630	25,345
운송장비	2,394	3,623	3,925	4,047	3,503
고무 / 플라스틱	5,705	6,217	6,971	7,011	5,874
식료품	3,813	6,755	6,254	5,705	5,747
의복	4,710	5,618	5,861	5,146	5,292
섬유	3,636	3,997	3,570	3,452	4,003
금속제품	17,903	11,302	9,937	10,217	9,918
기타제품	3,261	3,739	2,731	4,382	3,848
신발	3,418	3,971	4,394	4,935	5,324
기타	16,277	7,327	7,449	7,199	8,677
광업	21,143	17,778	13,335	10,027	14,748
도소매업	280,079	278,651	273,387	264,291	287,585
부동산업	1,002	856	1,174	1,209	2,009
정보통신업	3,963	4,922	5,197	5,568	7,864
건설업	6,888	7,080	6,997	5,084	3,484
전기가스업	4,290	10,162	5,152	1,567	9,370
전문과학기술업	3,130	3,504	3,519	3,287	3,532
운수창고업	5,789	5,878	6,773	7,758	5,355
기타	12,845	16,679	16,533	10,982	10,654
전체	745,944	722,230	676,597	642,168	708,733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단위: 백만 달러)

	2013	2014	2015	2016	2017
대 기 업	692,314	677,468	629,999	594,382	658,092
중 소 기 업	50,396	39,950	39,680	42,797	46,536
기 타	3,235	4,812	6,919	4,989	4,105
전 체	745,944	722,230	676,597	642,168	708,733

(2)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

가. 지역별

(단위: 백만 달러, %)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아 시 아	17,145	14,061	14,405	12,930	14,237	4.0	3.4	3.9	3.7	3.7
중 국	12,294	11,046	10,167	8,914	6,961	4.9	4.6	4.8	4.6	3.8
A S E A N	2,803	2,178	2,337	2,870	5,409	2.6	2.0	2.5	2.7	3.7
그 외	2,048	836	1,902	1,146	1,868	2.8	1.3	3.2	2.3	3.1
북 미	2,977	4,618	1,433	905	366	2.2	3.4	0.9	0.6	0.2
미 국	3,039	4,389	1,613	936	81	2.5	3.4	1.1	0.7	0.1
캐 나 다	△63	229	△180	△30	285	△0.6	3.5	△2.8	△0.5	4.2
유 럽	3,298	2,060	1,793	2,546	3,314	2.6	1.8	1.7	2.5	2.9
E U	2,536	1,426	1,674	2,183	2,533	2.5	1.5	1.8	2.6	2.7
그 외	762	634	119	363	780	3.3	3.0	0.8	2.3	4.1
중 남 미	1,446	610	△1,148	△445	2,119	5.0	2.4	△5.3	△2.0	6.3
기 타	1,881	1,728	△198	3	1,221	6.6	6.2	△0.8	0.0	5.6
전 체	26,747	23,077	16,286	15,940	21,256	3.6	3.2	2.4	2.5	3.0
개 도 국	20,180	16,205	12,446	12,556	17,817	4.2	3.5	3.1	3.2	4.1
선 진 국	6,567	6,871	3,840	3,384	3,440	2.4	2.7	1.4	1.3	1.3
B R I C s	14,761	12,679	11,170	10,210	10,803	5.0	4.5	4.6	4.7	4.8

나. 업종별

(단위: 백만 달러, %)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제조업	18,658	15,238	12,817	13,092	14,045	4.6	4.0	3.7	3.9	3.9
전기전자	6,566	4,722	4,649	4,594	7,437	4.5	3.5	4.0	4.4	5.6
자동차	8,914	7,813	4,809	4,474	1,779	7.2	7.0	4.4	4.1	1.7
1차 금속	247	266	△126	186	402	1.2	1.2	△0.7	1.0	1.7
화학	306	△757	988	1,100	1,492	2.0	△3.8	6.3	6.8	8.1
기타 기계	235	419	228	508	245	2.4	4.0	2.5	6.0	3.2
전기 장비	820	797	556	782	674	2.7	2.9	2.3	3.3	2.7
운송 장비	△408	△297	△31	△434	△28	△17.0	△8.2	△0.8	△10.7	△0.8
고무 / 플라스틱	433	496	457	595	232	7.6	8.0	6.6	8.5	4.0
식품	243	319	342	376	262	6.4	4.7	5.5	6.6	4.6
의복	125	199	258	96	37	2.7	3.5	4.4	1.9	0.7
섬유	117	189	168	130	174	3.2	4.7	4.7	3.8	4.3
금속 제품	182	288	221	187	488	1.0	2.5	2.2	1.8	4.9
기타 제품	236	259	160	279	296	7.2	6.9	5.9	6.4	7.7
신발	110	94	119	122	164	3.2	2.4	2.7	2.5	3.1
기타	530	430	19	98	390	3.3	5.9	0.3	1.4	4.5
광업	1,400	1,000	△1,309	△274	3,539	6.6	5.6	△9.8	△2.7	24.0
도소매업	4,234	2,802	2,895	2,099	1,022	1.5	1.0	1.1	0.8	0.4
부동산업	222	199	325	348	513	22.2	23.3	27.6	28.8	25.5
정보통신업	31	175	△132	△138	△18	0.8	3.6	△2.5	△2.5	△0.2
건설업	△706	△1,272	△524	△108	137	△10.3	△180	△7.5	△2.1	3.9
전기 가스업	2,069	3,998	880	351	1,565	48.2	39.3	17.1	22.4	16.7
전문 과학 기술업	△15	71	△13	△109	△179	△0.5	2.0	△0.4	△3.3	△5.1
운수 창고업	76	317	584	491	513	1.3	5.4	8.6	6.3	9.6
기타	778	548	764	190	121	6.1	3.3	4.6	1.7	1.1
전체	26,747	23,077	16,286	15,940	21,256	3.6	3.2	2.4	2.5	3.0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단위: 백만 달러, %)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대 기 업	25,313	22,708	15,679	14,755	20,451	3.7	3.4	2.5	2.5	3.1
중 소 기 업	1,351	53	348	895	722	2.7	0.1	0.9	2.1	1.6
기 타	83	316	258	290	84	2.6	6.6	3.7	5.8	2.0
전 체	26,747	23,077	16,286	15,940	21,256	3.6	3.2	2.4	2.5	3.0

(3) 당기순이익 및 당기순이익률

가. 지역별

(단위: 백만 달러, %)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률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아 시 아	11,155	10,954	6,822	10,091	10,971	2.6	2.6	1.9	2.9	2.8
중 국	8,659	7,940	5,758	7,555	5,132	3.5	3.3	2.7	3.9	2.8
A S E A N	1,600	1,362	761	2,131	4,797	1.5	1.2	0.8	2.0	3.3
그 외	896	1,652	303	405	1,042	1.2	2.5	0.5	0.8	1.7
북 미	△152	1,639	△6,451	△320	△363	△0.1	1.2	△4.2	△0.2	△0.2
미 국	1,099	2,121	△4,709	△102	△374	0.9	1.7	△3.2	△0.1	△0.3
캐 나 다	△1,251	△482	△1,742	△219	11	△11.0	△7.3	△27.6	△3.6	0.2
유 럽	1,991	△41	982	2,002	2,663	1.6	0.0	0.9	2.0	2.3
E U	1,629	584	1,299	1,311	2,139	1.6	0.6	1.4	1.5	2.2
그 외	362	△625	△316	691	524	1.6	△2.9	△2.1	4.4	2.7
중 남 미	△225	△530	△1,694	△662	1,105	△0.8	△2.0	△7.7	△2.9	3.3
기 타	736	0	△3,702	△2,079	△1,628	2.6	0.0	△14.5	△9.1	△7.4
전 체	13,505	12,022	△4,042	9,032	12,748	1.8	1.7	△0.6	1.4	1.8
개 도 국	11,658	10,156	1,059	8,470	12,153	2.5	2.2	0.3	2.2	2.8
선 진 국	1,847	1,865	△5,102	563	594	0.7	0.7	△1.9	0.2	0.2
B R I C s	9,180	7,902	5,819	9,187	7,540	3.1	2.8	2.4	4.2	3.4

나. 업종별

(단위: 백만 달러, %)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률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제조업	11,345	10,773	4,828	10,229	11,043	2.8	2.9	1.4	3.1	3.0
전기전자	4,882	3,900	2,998	5,331	7,427	3.3	2.9	2.6	5.1	5.6
자동차	6,355	5,430	3,156	3,259	1,150	5.1	4.9	2.9	3.0	1.1
1차 금속	△97	△265	△1,671	18	△304	△0.5	△1.2	△9.0	0.1	△1.3
화학	△40	1,126	545	766	1,162	△0.3	5.6	3.5	4.7	6.3
기타 기계	△181	△148	△392	239	65	△1.8	△1.4	△4.3	2.8	0.8
전기장비	347	407	121	495	412	1.1	1.5	0.5	2.1	1.6
운송장비	△499	△711	△272	△792	15	△20.8	△19.6	△6.9	△19.6	0.4
고무 / 플라스틱	306	312	203	385	176	5.4	5.0	2.9	5.5	3.0
식품	△17	74	75	191	86	△0.5	1.1	1.2	3.3	1.5
의복	25	90	142	55	△32	0.5	1.6	2.4	1.1	△0.6
섬유	55	102	36	74	109	1.5	2.6	1.0	2.2	2.7
금속제품	△30	146	22	△15	282	△0.2	1.3	0.2	△0.1	2.8
기타제품	94	138	103	130	192	2.9	3.7	3.8	3.0	5.0
신발	27	48	35	96	92	0.8	1.2	0.8	1.9	1.7
기타	119	125	△274	△3	210	0.7	1.7	△3.7	0.0	2.4
광업	△1,604	△1,410	△10,760	△3,268	△696	△7.6	△7.9	△80.7	△32.6	△4.7
도소매업	3,674	1,896	1,874	2,134	1,552	1.3	0.7	0.7	0.8	0.5
부동산업	△132	△35	195	132	218	△13.2	△4.1	16.6	10.9	10.9
정보통신업	△91	△64	△465	△199	△303	△2.3	△1.3	△8.9	△3.6	△3.9
건설업	△834	△1,674	△933	△521	△124	△12.1	△23.6	△13.3	△10.3	△3.6
전기가스업	1,194	2,550	630	269	1,086	27.8	25.1	12.2	17.2	11.6
전문과학기술업	△146	△131	101	179	△167	△4.7	△3.7	2.9	5.4	△4.7
운수창고업	△67	6	278	210	253	△1.2	0.1	4.1	2.7	4.7
기타	166	111	210	△132	△115	1.3	0.7	1.3	△1.2	△1.1
전체	13,505	12,022	△4,042	9,032	12,748	1.8	1.7	△0.6	1.4	1.8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단위: 백만 달러, %)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률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대 기 업	13,606	12,735	△2,984	7,927	12,762	2.0	1.9	△0.5	1.3	1.9
중 소 기 업	5	△797	△788	1,288	104	0.0	△2.0	△2.0	3.0	0.2
기 타	△105	84	△270	△183	△118	△3.3	1.7	△3.9	△3.7	△2.9
전 체	13,505	12,022	△4,042	9,032	12,748	1.8	1.7	△0.6	1.4	1.8

3. 매출현황

가. 지역별

(단위: %)

	현지매출비중					한국수출비중					제3국수출비중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아 시 아	53.8	59.8	58.6	59.0	55.5	26.2	25.2	25.9	27.0	29.7	20.1	15.0	15.5	14.0	14.9
중 국	56.5	65.6	62.2	64.4	60.1	27.4	28.6	31.6	30.5	34.8	16.2	5.8	6.2	5.1	5.1
A S E A N	50.2	51.6	50.2	48.5	45.9	25.7	26.1	23.6	28.9	32.8	24.1	22.3	26.2	22.6	21.3
그 외	49.9	52.6	59.0	60.2	64.3	22.6	11.1	9.0	9.4	7.1	27.5	36.3	32.0	30.5	28.6
북 미	83.4	84.2	87.5	88.5	85.1	6.6	2.3	1.8	1.5	1.7	10.0	13.5	10.7	10.0	13.2
미 국	82.0	83.6	87.2	88.3	84.6	7.2	2.3	1.8	1.5	1.6	10.8	14.1	11.0	10.2	13.7
캐 나 다	98.5	96.2	94.1	93.1	94.1	0.1	2.2	2.0	2.2	3.8	1.3	1.6	4.0	4.7	2.0
유 럽	65.3	63.5	59.9	59.5	61.4	3.0	2.3	2.7	2.5	2.9	31.6	34.1	37.4	38.1	35.7
E U	59.8	59.0	57.9	55.5	57.2	3.7	2.8	3.0	2.9	3.4	36.5	38.2	39.0	41.6	39.4
그 외	89.7	83.7	72.5	80.7	82.5	0.2	0.2	0.3	0.3	0.3	10.1	16.0	27.3	19.0	17.2
중 남 미	78.7	90.2	90.4	84.1	79.5	3.8	1.7	1.7	2.8	3.6	17.5	8.2	7.8	13.0	16.9
기 타	77.4	72.8	74.6	75.5	76.2	2.8	8.1	8.2	7.3	8.2	19.8	19.2	17.3	17.2	15.7
전 체	62.9	66.5	67.0	67.3	64.6	17.0	15.8	15.3	15.7	17.4	20.1	17.7	17.7	16.9	18.0
개 도 국	58.5	63.1	61.4	61.5	58.6	21.6	22.6	23.7	24.3	26.3	19.9	14.3	14.9	14.2	15.1
선 진 국	70.6	73.0	75.6	76.3	74.3	8.9	3.0	2.5	2.5	2.9	20.5	24.0	21.9	21.2	22.8
B R I C s	61.8	69.8	65.6	67.4	65.9	23.3	24.5	27.7	27.1	28.3	14.9	5.7	6.7	5.5	5.8

나. 업종별

(단위: %)

	현지매출비중					한국수출비중					제3국수출비중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제조업	61.6	62.5	60.6	61.3	57.0	24.4	22.6	23.6	23.6	26.2	14.0	14.9	15.8	15.1	16.8
전기전자	42.1	39.4	35.4	35.7	34.9	41.5	45.9	49.3	52.4	51.4	16.3	14.7	15.3	11.8	13.6
자동차	85.5	83.4	82.7	81.8	76.4	1.7	1.8	1.6	1.7	1.9	12.8	14.8	15.7	16.5	21.7
1차 금속	84.1	84.8	86.3	87.8	82.1	5.0	6.4	6.3	4.5	6.9	10.9	8.9	7.3	7.7	11.0
화학	81.3	80.1	79.5	78.4	79.2	5.8	3.2	4.5	3.8	4.3	12.9	16.7	16.0	17.9	16.5
기타 기계	78.8	76.6	77.7	76.9	69.8	17.4	17.7	18.0	18.5	24.5	3.8	5.7	4.3	4.7	5.7
전기장비	62.8	59.3	57.6	59.1	56.7	23.5	23.2	24.0	27.2	28.8	13.7	17.6	18.4	13.7	14.5
운송장비	16.1	38.7	7.3	17.0	21.1	34.9	30.0	21.6	22.9	18.5	49.0	31.3	71.1	60.1	60.5
고무/플라스틱	62.5	61.7	66.8	66.1	69.4	7.6	8.0	6.1	4.7	7.2	29.9	30.4	27.2	29.2	23.4
식품	89.2	81.0	78.9	82.0	74.8	5.9	3.9	4.1	3.7	4.2	4.9	15.1	17.0	14.4	21.1
의복	34.3	38.0	38.6	31.4	27.3	52.4	50.8	50.3	57.5	60.6	13.4	11.3	11.0	11.1	12.1
섬유	58.9	64.0	57.0	57.5	59.1	22.1	21.1	23.2	23.1	20.7	19.0	14.9	19.8	19.4	20.2
금속제품	49.0	70.8	69.9	63.9	70.2	44.1	18.5	18.4	16.4	19.2	6.9	10.7	11.7	19.7	10.5
기타제품	75.3	71.2	52.9	51.7	49.1	11.5	9.5	22.0	15.0	17.4	13.2	19.4	25.1	33.3	33.5
신발	20.1	19.8	19.1	18.9	19.1	65.2	68.1	70.4	72.4	70.3	14.7	12.1	10.5	8.7	10.7
기타	23.2	61.0	62.6	64.2	62.7	64.1	17.4	17.8	16.9	16.4	12.7	21.5	19.6	18.9	21.0
광업	86.2	81.4	67.8	70.5	74.3	5.7	5.9	15.6	17.9	13.0	8.2	12.7	16.7	11.6	12.7
도소매업	61.3	69.9	73.3	73.4	70.7	8.0	8.0	6.3	6.8	8.1	30.7	22.1	20.4	19.7	21.2
부동산업	96.1	98.4	92.6	94.9	97.0	0.2	0.3	0.3	0.3	0.1	3.6	1.3	7.1	4.9	3.0
전체	82.2	90.4	86.2	86.6	88.0	5.9	6.1	6.8	5.7	5.2	11.9	3.5	7.1	7.7	6.8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단위: %)

	현지매출비중					한국수출비중					제3국수출비중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대 기 업	62.4	66.2	66.6	66.9	64.0	16.8	15.6	15.1	15.7	17.5	20.7	18.2	18.3	17.4	18.5
중 소 기 업	68.6	70.9	71.0	72.9	72.4	20.2	19.9	19.3	16.0	17.3	11.2	9.1	9.7	11.1	10.2
기 타	73.7	73.7	78.6	72.7	66.1	9.8	9.9	8.4	11.8	12.4	16.4	16.4	13.1	15.5	21.5
전 체	62.9	66.5	67.0	67.3	64.6	17.0	15.8	15.3	15.7	17.4	20.1	17.7	17.7	16.9	18.0

4. 매입현황

가. 지역별

(단위: %)

	현지매입비중					한국수입비중					제3국수입비중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아 시 아	43.3	51.5	45.9	48.6	44.4	34.9	33.5	37.5	36.2	40.5	21.9	15.0	16.5	15.2	15.1
중 국	51.0	63.9	56.4	60.9	59.4	26.7	26.1	30.1	28.7	30.5	22.3	10.0	13.6	10.4	10.1
A S E A N	37.7	37.7	35.1	36.1	30.6	38.9	38.9	42.0	40.3	46.1	23.4	23.4	22.9	23.6	23.3
그 외	25.6	27.6	29.8	30.1	35.3	56.2	53.1	54.5	55.0	55.2	18.2	19.3	15.7	14.9	9.5
북 미	49.0	41.3	36.4	31.3	26.8	45.3	50.6	54.9	60.9	68.0	5.8	8.1	8.7	7.8	5.1
미 국	48.3	42.6	37.6	32.5	27.7	46.7	50.0	54.6	60.2	67.6	5.0	7.4	7.8	7.3	4.7
캐 나 다	57.4	10.0	6.9	3.9	8.3	28.0	63.8	62.4	75.6	77.1	14.5	26.1	30.7	20.5	14.6
유 럽	30.6	28.3	29.4	29.5	30.8	35.8	33.8	30.9	32.2	33.7	33.7	37.9	39.7	38.3	35.5
E U	27.9	26.1	28.4	27.3	28.5	36.3	34.3	31.6	31.8	33.4	35.8	39.6	40.0	41.0	38.2
그 외	42.5	38.0	35.8	42.2	42.5	33.5	31.9	26.4	34.8	35.3	24.0	30.1	37.8	23.0	22.2
중 남 미	23.5	27.5	32.0	40.0	35.3	46.3	50.6	39.7	41.1	44.6	30.2	21.9	28.2	18.9	20.2
기 타	13.1	22.5	21.6	30.8	19.6	44.4	38.2	40.6	48.0	57.8	42.6	39.3	37.7	21.2	22.6
전 체	40.7	44.1	39.6	40.5	37.2	37.7	37.5	40.7	41.9	46.0	21.6	18.4	19.8	17.6	16.8
개 도 국	42.5	49.8	44.7	48.0	43.5	32.5	32.9	35.9	35.6	40.0	25.0	17.4	19.4	16.4	16.5
선 진 국	37.8	33.8	32.4	29.5	27.4	46.4	45.9	47.3	51.1	55.4	15.8	20.4	20.3	19.4	17.2
B R I C s	49.3	60.8	54.7	58.7	57.8	28.6	27.9	30.8	30.2	31.4	22.1	11.2	14.4	11.1	10.9

나. 업종별

(단위: %)

	현지매입비중					한국수입비중					제3국수입비중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제조업	50.0	53.8	47.5	51.4	46.9	35.0	30.8	34.3	33.4	38.2	15.0	15.4	18.3	15.2	14.8
전기전자	35.4	30.8	28.9	28.9	24.5	41.0	45.0	43.6	48.0	55.8	23.7	24.2	27.4	23.1	19.7
자동차	69.9	72.3	67.2	72.3	67.7	26.1	22.1	25.8	22.7	24.3	4.0	5.6	7.0	5.0	8.0
1차 금속	52.9	53.7	50.8	51.6	53.7	34.0	33.3	34.8	34.5	34.0	13.1	13.0	14.4	13.8	12.3
화학	54.3	63.3	52.2	52.5	56.0	32.2	24.0	25.6	23.3	25.3	13.5	12.7	22.2	24.2	18.8
기타 기계	69.2	67.0	73.2	74.3	62.0	27.1	25.5	22.0	20.5	32.2	3.7	7.5	4.7	5.2	5.8
전기장비	49.1	45.9	41.9	40.4	45.6	34.9	29.6	41.5	43.1	38.7	16.1	24.5	16.6	16.5	15.7
운송장비	16.7	47.7	14.9	58.0	34.6	69.5	45.5	39.5	27.4	48.1	13.8	6.8	45.6	14.6	17.3
고무/플라스틱	34.4	86.5	35.6	38.8	43.9	26.0	5.7	36.0	33.1	44.4	39.6	7.8	28.4	28.1	11.7
식료품	86.8	80.8	75.6	73.8	71.6	9.6	5.0	5.7	7.2	7.7	3.6	14.2	18.7	19.1	20.7
의복	51.4	43.1	53.6	52.9	60.8	26.9	24.4	17.1	17.3	12.6	21.7	32.6	29.2	29.9	26.6
섬유	56.8	58.7	60.2	62.0	61.1	21.1	18.7	16.4	12.5	12.9	22.1	22.6	23.5	25.5	26.0
금속제품	52.2	57.3	58.7	65.2	62.4	23.2	28.7	31.5	27.0	30.9	24.6	14.1	9.8	7.9	6.7
기타제품	76.3	70.2	52.6	53.0	53.7	14.2	10.6	29.6	20.0	13.4	9.4	19.2	17.8	27.0	33.0
신발	36.6	40.8	52.9	54.2	53.5	39.8	38.9	32.0	30.3	32.1	23.6	20.3	15.2	15.4	14.4
기타	20.3	59.4	65.9	53.9	56.2	75.9	30.1	24.9	24.9	24.5	3.9	10.5	9.2	21.2	19.3
광업	95.9	92.0	90.7	91.1	90.1	3.4	6.8	8.3	8.7	9.5	0.7	1.2	1.0	0.2	0.3
도소매업	22.5	28.5	27.9	24.9	21.6	44.1	48.6	49.7	53.7	57.9	33.4	22.9	22.4	21.4	20.5
부동산업	99.9	100.0	97.1	98.2	99	0.1	0.0	1.1	0.9	0.4	0.0	0.0	1.8	0.9	0.6
전체	81.2	84.5	79.9	67.6	79.5	18.2	14.4	17.5	28.9	13.1	0.6	1.0	2.6	3.6	7.4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단위: %)

	현지매입비중					한국수입비중					제3국수입비중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대 기 업	39.9	43.3	38.2	38.8	35.6	37.8	37.7	41.3	43.0	47.1	22.2	19.0	20.5	18.2	17.2
중 소 기 업	54.4	59.1	61.4	65.3	62.1	34.9	33.9	31.3	25.6	28.7	10.7	7.1	7.3	9.1	9.3
기 타	47.8	64.7	72.7	73.0	58.9	43.0	20.1	20.1	17.9	18.7	9.2	15.1	7.2	9.1	22.4
전 체	40.7	44.1	39.6	40.5	37.2	37.7	37.5	40.7	41.9	46.0	21.6	18.4	19.8	17.6	16.8

5. 순수출 및 무역수지 개선효과

(1) 수출액 및 수입액

가. 지역별

(단위: 백만 달러)

	수출액					수입액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아 시 아	119,910	116,985	104,748	99,682	125,730	112,550	105,257	95,379	93,874	114,656
중 국	52,321	53,182	46,141	42,688	43,047	68,486	68,846	67,554	58,855	62,987
A S E A N	35,156	36,926	32,848	34,782	55,113	27,508	29,067	22,426	30,412	47,341
그 외	32,433	26,877	25,760	22,212	27,570	16,556	7,344	5,399	4,607	4,328
북 미	51,215	57,361	69,009	73,829	85,884	8,828	3,090	2,815	2,291	2,628
미 국	48,795	54,473	65,852	70,067	81,745	8,814	2,942	2,690	2,157	2,366
캐 나 다	2,421	2,887	3,157	3,763	4,139	14	147	125	133	263
유 럽	33,042	33,042	28,314	27,575	32,921	3,768	2,675	2,834	2,481	3,299
E U	27,398	27,372	25,053	23,076	27,185	3,727	2,629	2,795	2,434	3,241
그 외	5,645	5,670	3,261	4,499	5,736	41	46	39	47	59
중 남 미	7,956	9,214	6,410	7,321	9,987	1,100	431	381	636	1,204
기 타	9,055	7,470	7,336	8,452	9,139	793	2,257	2,085	1,649	1,796
전 체	221,179	224,071	215,818	216,860	263,660	127,039	113,711	103,493	100,929	123,583
개 도 국	120,128	126,835	110,526	109,473	139,246	102,898	106,080	96,692	94,513	115,844
선 진 국	101,050	97,236	105,292	107,387	124,415	24,141	7,630	6,802	6,416	7,739
B R I C s	65,921	65,831	55,117	50,438	53,159	69,205	69,325	67,998	59,336	63,695

나. 업종별

(단위: 백만 달러)

	수출액					수입액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제 조 업	112,568	96,241	89,356	85,833	108,573	99,375	85,267	81,197	78,585	95,260
전 기 전 자	50,245	49,324	43,223	41,520	60,052	60,675	61,132	57,978	54,999	68,610
자 동 차	25,564	20,018	19,278	20,283	21,455	2,117	1,989	1,766	1,833	1,937
1 차 금 속	4,655	5,091	4,538	4,106	5,405	1,003	1,366	1,178	813	1,640
화 학	4,202	3,940	3,202	2,768	3,546	900	644	708	615	797
기 타 기 계	1,962	2,010	1,491	1,177	1,687	1,730	1,829	1,636	1,557	1,906
전 기 장 비	8,137	6,803	8,563	8,358	8,075	7,240	6,351	5,783	6,430	7,291
운 송 장 비	1,180	1,434	1,135	864	1,221	837	1,088	847	926	646
고무/플라스틱	999	1,149	1,730	1,548	1,628	431	494	422	329	422
식 료 품	141	175	213	200	232	227	266	254	209	240
의 복	694	773	602	559	436	2,466	2,852	2,951	2,958	3,205
섬 유	518	441	388	235	271	804	833	828	797	827
금 속 제 품	3,443	2,436	2,417	1,574	1,646	7,903	2,089	1,825	1,672	1,908
기 타 제 품	279	239	541	533	320	375	355	600	658	668
신 발	906	1,006	906	957	1,125	2,229	2,705	3,094	3,573	3,740
기 타	9,645	1,400	1,130	1,152	1,472	10,438	1,275	1,329	1,218	1,421
광 업	410	400	382	368	444	1,196	1,057	2,074	1,793	1,918
도 소 매 업	102,254	122,121	119,524	125,247	148,502	22,377	22,316	17,218	18,063	23,333
부 동 산 업	0	0	2	2	1	2	3	4	3	1
전 체	464	447	515	1,047	583	234	300	351	316	411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단위: 백만 달러)

	수출액					수입액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대 기 업	209,586	214,437	206,930	208,882	254,297	116,531	105,292	95,257	93,493	115,018
중 소 기 업	10,993	9,168	8,323	7,543	8,973	10,190	7,946	7,657	6,847	8,056
기 타	600	466	565	435	390	317	473	579	590	509
전 체	221,179	224,071	215,818	216,860	263,660	127,039	113,711	103,493	100,929	123,583

(2) 순수출 및 무역수지 개선효과

가. 지역별

(단위: 백만 달러, %)

	순수출					무역수지개선효과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아 시 아	7,360	11,728	9,370	5,809	11,074	11.7	17.1	12.4	7.3	13.8
중 국	△16,165	△15,665	△21,413	△16,167	△19,940	△47.0	△45.3	△55.6	△40.2	△49.5
A S E A N	7,648	7,859	10,422	4,370	7,771	39.7	37.2	44.5	17.2	28.9
그 외	15,878	19,533	20,361	17,606	23,242	168.1	150.6	151.0	129.3	176.8
북 미	42,387	54,271	66,194	71,539	83,256	135.8	155.3	164.8	150.9	160.3
미 국	39,981	51,531	63,162	67,909	79,379	155.1	180.8	189.9	169.8	178.0
캐 나 다	2,407	2,740	3,033	3,630	3,876	44.1	42.5	43.9	48.9	52.9
유 럽	29,275	30,367	25,480	25,095	29,622	133.8	131.8	105.1	101.9	102.1
E U	23,671	24,744	22,257	20,642	23,945	126.7	155.0	134.4	118.4	112.6
그 외	5,604	5,623	3,223	4,452	5,677	175.2	79.6	42.0	61.9	73.1
중 남 미	6,856	8,783	6,030	6,685	8,783	88.2	85.8	51.2	50.8	66.0
기 타	8,262	5,212	5,251	6,803	7,343	70.0	38.2	29.0	33.6	37.1
전 체	94,140	110,361	112,325	115,931	140,077	69.3	73.3	66.2	62.8	72.1
개 도 국	17,231	20,755	13,835	14,960	23,402	22.3	23.5	13.8	14.1	21.9
선 진 국	76,909	89,606	98,490	100,971	116,675	131.5	143.9	141.6	128.1	133.5
B R I C s	△3,284	△3,494	△12,881	△8,898	△10,536	△7.8	△8.1	△27.5	△18.3	△21.4

나. 업종별

(단위: 백만 달러, %)

	순수출					무역수지개선효과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제조업	13,193	10,974	8,159	7,248	13,313	20.4	16.4	11.1	9.4	16.7
전기전자	△10,430	△11,808	△14,754	△13,479	△8,558	△68.9	△73.5	△86.6	△77.9	△46.2
자동차	23,446	18,029	17,512	18,450	19,518	188.1	165.5	140.0	139.1	129.1
1차금속	3,652	3,726	3,360	3,293	3,765	55.1	54.0	47.7	42.3	50.0
화학	3,303	3,296	2,494	2,153	2,749	74.1	64.1	42.0	30.3	41.6
기타기계	232	181	△144	△381	△219	3.8	3.1	△2.3	△6.0	△4.0
전기장비	897	452	2,780	1,928	784	25.4	12.5	80.2	46.9	19.1
운송장비	343	346	288	△62	575	14.8	9.9	8.5	△1.6	15.3
고무/플라스틱	568	655	1,307	1,219	1,206	22.9	28.3	38.6	35.9	44.1
식료품	△86	△92	△41	△9	△8	△4.7	△4.1	△1.8	△0.3	△0.3
의복	△1,773	△2,079	△2,349	△2,399	△2,769	△100.5	△105.0	△106.9	△118.0	△128.1
섬유	△286	△392	△440	△561	△557	△19.2	△25.6	△16.1	△37.4	△31.0
금속제품	△4,460	347	592	△98	△261	△273.9	23.0	41.9	△6.0	△16.3
기타제품	△96	△115	△60	△125	△349	△9.3	△10.2	△6.9	△8.8	△24.5
신발	△1,323	△1,699	△2,187	△2,616	△2,615	△179.4	△211.3	△254.7	△262.7	△228.8
기타	△794	126	△199	△66	51	△24.9	3.5	△5.1	△1.6	1.1
광업	△786	△658	△1,693	△1,424	△1,474	△3.0	△2.0	△4.6	△3.6	△3.9
도소매업	79,877	99,805	102,306	107,184	125,169	444.1	465.1	425.4	371.0	361.2
부동산업	△2	△3	△1	△1	0	0.0	△0.1	0.0	0.0	0.0
전체	229	147	164	731	172	11.8	5.8	5.3	20.9	2.8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단위: 백만 달러, %)

	순수출					무역수지개선효과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대 기 업	93,055	109,145	111,673	115,390	139,280	81.4	83.9	77.4	72.5	83.5
중 소 기 업	802	1,222	666	696	917	4.5	8.4	3.8	3.6	4.2
기 타	282	△6	△14	△155	△120	7.7	△0.1	△0.2	△2.6	△2.1
전 체	94,140	110,361	112,325	115,931	140,077	69.3	73.3	66.2	62.8	72.1

6. 주요 재무비율

(1) 부채비율 및 차입금의존도

가. 지역별

(단위: %)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아 시 아	139.5	137.9	130.6	132.6	125.9	21.2	23.9	25.3	24.8	21.8
중 국	119.0	127.4	118.7	115.6	104.6	17.3	20.2	21.8	20.2	15.3
A S E A N	178.5	156.9	150.1	159.1	161.3	26.8	31.7	32.9	33.0	32.0
그 외	177.0	151.2	152.9	161.0	155.0	27.4	25.1	25.7	25.4	24.3
북 미	214.2	207.6	239.3	195.8	177.3	36.2	36.5	40.5	36.3	34.7
미 국	221.9	222.4	246.2	202.2	180.9	36.7	37.3	40.6	36.6	35.0
캐 나 다	149.5	100.3	165.0	116.8	127.8	31.6	26.9	38.8	30.1	30.5
유 럽	158.2	205.9	187.7	199.9	178.1	15.4	19.7	20.0	21.7	16.8
E U	152.8	182.1	164.2	157.3	139.6	13.7	17.6	16.4	17.8	14.4
그 외	183.0	281.1	276.7	420.4	373.0	22.6	24.4	29.6	31.5	22.9
중 남 미	231.0	183.9	201.1	247.8	182.0	33.4	31.5	40.7	43.7	37.8
기 타	175.4	197.6	187.6	279.1	310.7	39.7	43.2	45.0	50.2	51.6
전 체	161.4	164.8	163.7	166.7	153.0	25.5	28.0	30.4	30.2	26.8
개 도 국	151.9	152.1	146.2	154.3	142.0	23.8	26.1	28.6	28.2	24.8
선 진 국	180.0	192.4	201.7	189.3	173.7	28.4	31.5	33.4	33.2	30.2
B R I C s	126.5	135.1	126.7	123.7	109.3	17.6	20.2	23.2	21.9	17.0

나. 업종별

(단위: %)

체 조 업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전 기 전 자	92.1	100.5	94.8	87.6	86.2	11.6	15.4	14.1	12.5	14.9
자 동 차	143.0	153.1	155.6	160.7	168.6	15.1	16.4	18.2	19.4	22.1
1 차 금 속	154.1	173.7	231.9	209.4	238.3	41.0	41.7	48.0	45.9	47.4
화 학	113.6	133.0	105.5	100.5	71.8	32.2	34.6	26.3	27.1	18.8
기 타 기 계	199.2	193.9	182.8	151.8	94.7	31.0	35.6	31.8	28.8	16.8
전 기 장 비	192.8	151.9	146.0	148.7	121.7	24.4	20.9	21.7	22.7	17.3
운 송 장 비	145.7	107.6	128.3	117.8	3048.8	28.9	31.2	35.9	32.2	36.7
고 무 / 플 라 스틱	91.0	127.5	130.2	104.2	149.5	23.5	33.1	35.1	30.8	34.6
식 료 품	133.9	153.5	153.0	143.9	103.4	19.2	26.0	25.9	22.3	30.4
의 복	263.6	225.3	278.0	429.6	168.7	31.1	26.6	32.1	27.4	24.3
섬 유	149.2	147.7	111.3	113.6	115.1	39.5	37.3	26.3	31.1	32.4
금 속 제 품	183.0	193.1	193.1	168.1	216.1	34.0	32.6	33.2	31.4	23.7
기 타 제 품	241.3	112.0	105.9	98.1	89.3	48.5	44.3	43.2	37.4	21.6
신 발	131.5	101.5	111.2	108.1	160.0	19.0	17.3	15.2	12.0	31.8
기 타	164.6	240.6	187.3	249.4	70.8	31.4	37.8	29.4	34.4	17.5
광 업	118.8	101.3	118.3	123.3	122.9	30.1	34.6	40.4	39.6	39.3
도 소 매 업	296.6	281.3	275.1	255.6	225.5	26.3	26.4	33.2	32.1	23.2
부 동 산 업	170.7	147.8	121.4	153.7	128.9	49.8	42.4	45.0	49.0	42.6
정 보 통 신 업	1,044.5	△569.6	△787.3	△718.7	84.0	38.8	59.6	64.7	68.0	17.1
건 설 업	204.8	207.4	120.5	185.5	△676.4	50.5	51.3	40.9	52.5	70.2
전 기 가 스 업	122.4	150.7	157.2	170.9	145.0	17.6	6.3	10.4	10.1	43.9
전 문 과 학 기 술 업	71.7	114.2	136.3	78.1	161.4	17.3	20.2	21.5	13.0	4.5
운 수 창 고 업	324.3	361.7	252.6	155.5	124.9	27.0	24.6	27.8	32.1	28.0
기 타	163.3	138.3	139.9	162.3	364.3	33.9	37.7	37.8	44.3	57.3
전 체	161.4	164.8	163.7	166.7	153.0	25.5	28.0	30.4	30.2	26.8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단위: %)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대 기 업	161.3	165.8	164.7	168.3	155.3	24.9	28.0	30.5	30.1	26.9
중 소 기 업	158.0	159.2	158.8	142.9	126.0	28.1	24.4	22.9	25.5	22.0
기 타	197.5	141.5	146.7	200.9	183.4	46.8	38.1	44.0	47.5	48.9
전 체	161.4	164.8	163.7	166.7	153.0	25.5	28.0	30.4	30.2	26.8

(2) 유동비율 및 이자보상배율

가. 지역별

(단위: %, 배)

	유동비율					이자보상배율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아 시 아	121.6	122.2	122.3	122.6	125.3	9.4	6.1	6.2	5.5	6.4
중 국	124.1	123.4	121.7	125.9	134.1	13.3	11.4	9.8	8.6	7.7
A S E A N	109.5	116.0	115.3	112.2	108.2	4.3	2.0	2.4	3.0	5.4
그 외	129.7	126.9	137.1	128.0	128.8	8.1	3.5	6.8	3.2	5.9
북 미	183.5	183.3	172.2	182.4	169.2	3.9	4.7	1.3	0.8	0.3
미 국	192	186.3	176.6	187.7	172.3	4.6	5.1	1.6	1.0	0.1
캐 나 다	73.3	106.6	81.7	72.6	92.5	△0.6	2.2	△1.3	△0.2	3.0
유 럽	130.8	120.0	120.6	124.8	123.3	4.6	2.6	1.9	3.8	6.2
E U	129.5	129.9	134.3	133.0	130.4	4.4	3.1	2.5	5.0	6.1
그 외	136.5	101.5	91.8	110.1	110.9	5.3	1.9	0.4	1.6	6.4
중 남 미	92.6	103.2	109.5	121.0	122.5	1.9	1.1	△2.4	△1.0	3.9
기 타	100.4	93.9	87.1	91.4	108.7	5.5	3.4	△0.3	0.0	1.4
전 체	130.1	129.8	129.4	134.2	133.1	6.1	4.5	2.9	2.8	4.1
개 도 국	116.9	117.3	116.0	119.8	123.6	6.9	4.5	3.5	3.3	5.3
선 진 국	156.5	157.5	156.1	161.6	151.2	4.4	4.3	1.9	1.8	1.9
B R I C s	120.3	121.8	120.8	128.3	137.4	10.0	9.1	7.8	6.9	8.2

나. 업종별

(단위: %, 배)

	유동비율					이자보상배율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제조업	123.0	120.4	118.6	122.9	128.7	9.0	6.5	5.2	5.3	6.5
전기전자	147.4	137.7	136.4	152.3	161.7	27.2	16.6	14.1	6.8	22.5
자동차	132.7	133.6	129.1	128.3	121.3	24.3	20.3	17.4	13.1	3.9
1차 금속	101.9	94.5	93.1	103.8	101.2	0.4	1.1	△0.5	0.6	0.9
화학	123.9	88.7	98.4	110.5	138.1	3.0	△2.7	3.9	5.3	10.3
기타 기계	111.4	111.6	116.0	117.3	122.7	△0.9	2.0	1.2	3.8	3.7
전기장비	111.2	127.1	124.4	132.3	142.3	4.1	5.1	3.2	4.0	4.1
운송장비	94.8	98.9	85.2	95.1	62.2	3.5	7.4	3.3	4.8	△0.5
고무 / 플라스틱	134.3	114.6	113.9	138.6	90.7	5.2	2.5	2.7	4.6	2.5
식품	129.1	117.3	114.8	121.6	111.8	4.0	3.4	4.6	2.6	3.2
의복	72.4	105.4	95.8	79.3	116.9	0.8	5.7	3.4	3.4	1.0
섬유	105.4	107.9	97.0	111.3	98.9	1.5	2.7	3.3	3.3	4.4
금속제품	95.0	93.1	84.9	89.2	107.5	3.9	4.2	4.7	4.0	10.6
기타제품	122.1	172.4	165.1	161.3	180.4	7.9	2.2	0.5	0.6	7.7
신발	131.4	142.3	135.7	134.3	92.5	5.4	2.8	1.3	2.7	4.5
기타	80.3	92.5	90.7	77.4	147.8	△1.7	0.5	0.3	△0.6	3.2
광업	81.9	122.2	115.7	99.9	106.7	3.7	2.9	△1.0	△0.2	3.3
도소매업	152.0	154.4	156.3	159.7	148.4	12.9	7.5	6.9	4.1	2.1
부동산업	121.9	189.6	174.7	144.2	156.9	1.0	3.3	2.3	0.7	1.4
정보통신업	106.7	77.1	78.4	75.5	154.2	△7.9	△7.9	△1.7	△0.3	△0.3
건설업	92.2	104.7	94.3	126.0	78.4	1.4	5.2	5.1	1.1	0.6
전기가스업	130.2	119.4	107.9	123.0	102.6	1.5	1.1	△0.8	△1.5	5.2
전문과학기술업	188.3	121.3	121.4	178.4	116.3	6.9	3.3	△3.7	△3.9	△5.2
운수창고업	94.5	92.8	129.7	122.0	119.4	1.2	1.4	2.3	2.3	3.1
기타	106.8	103.3	99.9	88.1	103.1	0.3	△0.4	1.0	1.7	0.3
전체	130.1	129.8	129.4	134.2	133.1	6.1	4.5	2.9	2.8	4.1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단위: %, 배)

	유동비율					이자보상배율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대 기 업	133.1	131.3	131.4	136.1	134.5	6.8	4.9	3.2	2.9	4.5
중 소 기 업	107.5	114.7	109.8	118.3	119.1	2.4	0.2	1.1	2.5	1.4
기 타	112.7	117.3	119.9	114.2	122.4	0.7	1.7	0.8	1.1	0.5
전 체	130.1	129.8	129.4	134.2	133.1	6.1	4.5	2.9	2.8	4.1

7. 투자수익 및 투자수익률

가. 지역별

(단위: 백만 달러, %)

	투자수익					투자수익률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아 시 아	12,968	11,571	6,768	9,595	10,192	20.5	16.8	9.0	12.1	12.7
중 국	10,152	8,515	4,988	7,145	4,467	29.5	24.6	13.0	17.8	11.1
A S E A N	1,838	1,801	1,434	2,149	4,319	9.5	8.5	6.1	8.5	16.1
그 외	979	1,255	347	302	1,406	10.4	9.7	2.6	2.2	10.7
북 미	777	1,822	△2,226	673	663	2.5	5.2	△5.5	1.4	1.3
미 국	2,028	2,243	△624	876	700	7.9	7.9	△1.9	2.2	1.6
캐 나 다	△1,251	△421	△1,602	△203	△37	△22.9	△6.5	△23.2	△2.7	△0.5
유 럽	2,464	755	1,240	2,693	3,267	11.3	3.3	5.1	10.9	11.3
E U	1,820	1,119	1,430	1,923	2,543	9.9	7.0	8.6	11.0	12.0
그 외	644	△365	△190	770	724	18.9	△5.2	△2.5	10.7	9.3
중 남 미	803	531	△819	193	1,369	10.3	5.2	△7.0	1.5	10.3
기 타	△95	△1,084	△1,309	△1,619	△1,172	△0.8	△7.9	△7.2	△8.0	△5.9
전 체	16,917	13,596	3,653	11,534	14,320	12.5	9.0	2.2	6.2	7.4
개 도 국	13,920	10,992	4,609	9,310	12,231	18.0	12.5	4.6	8.8	11.4
선 진 국	2,997	2,604	△956	2,224	2,089	5.1	4.2	△1.4	2.8	2.4
B R I C s	12,135	9,913	4,990	8,960	7,274	29.1	23.0	10.7	18.4	14.8

나. 업종별

(단위: 백만 달러, %)

	투자수익					투자수익률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제조업	13,090	12,631	6,668	11,592	13,595	23.4	18.7	9.1	15.0	17.1
전기전자	7,348	5,058	3,039	5,411	7,743	52.5	31.0	17.8	31.3	41.8
자동차	5,108	5,888	3,700	4,090	3,320	50.9	55.1	29.8	31.1	22.0
1차 금속	△284	△144	△1,056	△36	△150	△4.5	△2.1	△15.0	△0.5	△2.0
화학	43	571	299	505	761	0.9	10.6	5.0	7.1	11.5
기타 기계	△297	△70	△363	257	94	△15.6	△1.2	△5.7	4.0	1.7
전기장비	345	659	268	657	656	11.5	18.3	7.7	16.0	16.0
운송장비	333	430	353	475	32	11.3	18.4	10.4	14.0	0.8
고무 / 플라스틱	73	153	126	249	274	4.2	6.3	5.5	9.5	10.0
식료품	△24	80	130	73	143	△1.3	4.0	5.9	3.6	5.3
의복	141	218	89	161	△22	9.6	14.6	6.3	9.8	△1.0
섬유	144	155	64	137	140	9.6	10.1	2.3	9.1	7.8
금속제품	21	40	39	87	341	3.0	5.3	4.7	8.9	21.3
기타제품	27	40	△28	9	128	6.4	6.0	△4.2	1.3	9.0
신발	26	△40	△14	△12	90	4.0	△5.8	△2.0	△1.7	7.8
기타	86	△407	21	△471	48	1.8	△5.7	0.3	△5.9	1.0
광업	△841	△499	△4,672	△2,308	△1,528	△3.1	△1.5	△12.7	△5.8	△4.1
도소매업	4,134	2,612	2,101	1,858	1,671	20.8	12.1	8.7	6.4	4.8
부동산업	△82	216	344	154	218	△1.2	3.8	3.5	1.2	1.8
정보통신업	△981	△1,497	△889	△526	48	△33.3	△43.5	△21.0	△9.7	0.8
건설업	111	242	246	168	△113	4.6	6.3	5.7	3.7	△2.1
전기가스업	1,119	△135	△126	304	280	9.5	△3.9	△3.5	7.0	5.8
전문과학기술업	431	126	△247	135	△3	16.2	4.6	△8.0	3.9	△0.1
운수창고업	100	52	214	166	135	3.4	2.3	8.0	6.2	4.8
기타	△164	△151	14	△9	17	△4.6	△2.5	0.2	△0.2	0.2
전체	16,917	13,596	3,653	11,534	14,320	12.5	9.0	2.2	6.2	7.4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단위: 백만 달러, %)

	투자수익					투자수익률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대 기 업	16,454	13,849	4,222	10,346	13,993	14.4	10.6	2.9	6.5	8.4
중 소 기 업	431	△379	△364	1,311	237	2.4	△2.6	△2.1	6.7	1.1
기 타	31	126	△205	△123	90	0.9	2.1	△2.6	△2.0	1.6
전 체	16,917	13,596	3,653	11,534	14,320	12.5	9.0	2.2	6.2	7.4

IV. 2017 회계연도 금융보험업 현지법인 경영분석

1. 개요

가. 분석 배경

- 국내 금융시장 경쟁 심화, 금융규제 완화 등에 따라 국내 기업의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 ▶ '17년말 기준 금융보험업에 대한 투자잔액은 493억 달러로 총 잔액의 16.4% 비중임. '17년 투자금액은 133억 달러로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금융보험업 영위 현지법인의 경영성과 분석 필요성이 높아짐.
- 그러나 금융보험업 현지법인의 경우 전통적인 제조업 현지법인과 손익구조 및 성과지표 등이 크게 상이하여, 재무제표의 단순 비교분석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 이에, 앞서 본문에서는 비금융보험업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금융보험업 현지법인은 본 파트에서 별도로 분석하고자 함.
- 분석 기초자료 : 각 투자자가 제출한 연간 사업실적보고서²⁾

나. 분석대상 현지법인 현황

- 분석대상 금융보험업 현지법인은 총 131개사로 '17년 말 기준 투자잔액은 93억 달러
 - ▶ 총 158개의 현지법인(투자잔액 97억 달러)이 자료수집 대상이었으나, 청산, 미결산 등의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한 자료가 미흡한 현지법인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업종별로 살펴보면, 투자잔액 기준 은행업이 28억 달러로 29.7%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증권중개업이 14억 달러로 15.2%, 보험업이 8억 달러로 8.3%를 차지

2)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거, 투자잔액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지법인에 대하여 현지법인의 재무제표 등을 기록하여 제출한 보고서

금융보험업 분석대상 현지법인 업종별³⁾ 현황

(단위: 개, 백만 달러, %)

	법인수	투자잔액	잔액비중
은행업	20	2,766	29.7
증권중개업	17	1,414	15.2
보험업	10	778	8.3
금융리스업	10	650	7.0
기타 ⁴⁾	74	3,718	39.9
전체	131	9,325	100.0

- 현지법인 지역별로 살펴보면, 투자잔액 기준 아시아가 69억 달러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74.5%)을 차지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북미 지역이 10.2억 달러(10.9%), 유럽 지역이 6.9억 달러(7.3%), 중남미 지역이 6.8억 달러(7.3%)를 차지. 분석대상 현지법인 중 상기 4개 지역 외에 소재한 법인은 없었음.

금융보험업 분석대상 현지법인 지역별 현황

(단위: 개, 백만 달러, %)

	법인수	투자잔액	잔액비중
아시아	89	6,945	74.5
북미	18	1,017	10.9
유럽	18	685	7.3
중남미	6	678	7.3
전체	131	9,325	100.0

3) '은행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국내은행, 외국은행, 상호저축은행을, '보험업'은 생명보험업과손해보험업을 포함

4) '기타'는 자산운용회사, 투자자문업, 기타 투자기관 등 포함

2. 경영성과

가. 재무현황

(1) 업종별 현황

■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총 자산규모는 1,640억 달러이며, 부채총계는 1,473억 달러, 자본총계는 167억 달러 수준을 기록

▶ 총 자산규모는 은행업(760억 달러), 증권중개업(317억 달러), 금융리스업(130억 달러), 보험업(46억 달러) 순으로 높았으며, 현지법인당 평균 자산규모 역시 동일한 순서

분석대상 전체 현지법인의 자기자본비율은⁵⁾ 10.2%을 기록하였으며, 업종별로는 보험업(30.0%), 금융리스업(15.0%), 은행업(8.3%), 증권중개업(5.6%) 순

금융보험업 분석대상 현지법인 업종별 재무현황

(단위: 백만 달러)

	은행업	증권중개업	보험업	금융리스업	전체
자 산 총 계	76,028	31,711	4,636	12,977	164,039
현 금 및 예 치 금	10,135	468	1,563	1,020	21,288
유 가 증 권	10,670	1,236	1,235	154	17,150
부 채 총 계	69,743	29,920	3,245	11,034	147,279
예 수 부 채	47,645	64	0	15	74,114
차 입 부 채	15,645	2,321	0	7,760	31,527
자 본 총 계	6,285	1,790	1,392	1,943	16,760
자 본 금	2,688	1,354	1,552	1,575	10,692

5) 자본총계/자산총계

(2) 지역별 현황

- 지역별로 현지법인의 자산규모를 분석하면 아시아 1,202억 달러, 북미 357억 달러, 유럽 71억 달러, 중남미 10억 달러 순임.
- ▶ 자기자본비율은 중남미(26.0%), 유럽(13.5%), 아시아(12.0%), 북미(3.2%)순

금융보험법 분석대상 현지법인 지역별 재무현황

(단위: 백만 달러)

	아시아	북미	유럽	중남미	전체
자 산 총 계	120,236	35,741	7,094	967	164,039
현 금 및 예 치 금	19,613	635	916	125	21,288
유 가 증 권	15,438	619	816	277	17,150
부 채 총 계	105,842	34,583	6,139	716	147,279
예 수 부 채	68,333	4,219	1,243	320	74,114
차 입 부 채	23,542	2,873	4,766	346	31,527
자 본 총 계	14,394	1,158	956	252	16,760
자 본 금	9,058	838	468	328	10,692

나. 손익현황

- 분석대상 현지법인은 영업수익 73억 달러, 영업손익 14억 달러, 당기순이익 11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총자산순이익률(ROA)⁶⁾은 0.73% 시현

(1) 업종별 현황

- 영업수익 규모는 은행업(22억 달러), 보험업(19억 달러), 금융리스업(9.2억 달러), 증권중개업(3.2억 달러) 순을 기록
- 당기순이익 규모로는, 은행업(6.0억 달러), 금융리스업(1.9억 달러), 증권중개업(0.2억 달러) 순이며 보험업에서는 당기순손실(△0.2억 달러) 기록
- 총자산순이익률(ROA)은 금융리스업(1.47%)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은행업(0.79%), 증권중개업(0.06%), 보험업(△0.44%) 순
 - ▶ 금융리스업의 경우 전체 10개사 중 7개(70.0%)의 현지법인이 흑자를 기록하며 흑자 현지법인의 비중이 은행업(90.0%)에 이어 두번째로 높게 나타남.

금융보험업 분석대상 현지법인 업종별 손익현황⁷⁾

(단위: 백만 달러)

	은행업	증권중개업	보험업	금융리스업	전체
영 업 수 익	2,219	321	1,912	923	7,332
영 업 비 용	1,434	298	1,932	676	5,916
영 업 손 익	785	22	△20	247	1,415
당 기 순 이 익	598	20	△20	191	1,072
R O A	0.79%	0.06%	△0.44%	1.47%	0.73%

6) 당기순이익/자산총계

7) 영업수익은 이자수익, 보험료수익, 유가증권평가및처분이익, 외환거래이익, 수수료이익 등 포함

(2) 지역별 현황

- 지역별로는, 아시아 지역에서 전체 영업수익의 86.6%에 달하는 63억 달러의 수익이 발생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북미(4.6억 달러), 유럽(3.4억 달러), 중남미(1.9억 달러) 순임.
- ▶ 당기순이익 규모로는, 아시아(10.2억 달러), 유럽(34백만 달러), 중남미(18백만 달러), 북미(3백만 달러) 순
- ROA는 중남미 지역이 1.8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아시아(0.85%), 유럽(0.48%), 북미(0.01%) 순임.
- ▶ 분석대상 현지법인 중 흑자 법인의 비중은 중남미와 유럽에서 가장 높았으며(83.3%), 그 뒤를 이어 북미(72.2%), 아시아(68.5%) 순을 기록함.

금융보험업 분석대상 현지법인 지역별 손익현황

(단위: 백만 달러)

	아시아	북미	유럽	중남미	전체
영 업 수 익	6,349	462	336	185	7,332
영 업 비 용	5,033	439	292	153	5,916
영 업 손 익	1,316	23	44	32	1,415
당 기 순 이 익	1,017	3	34	18	1,072
R O A	0.85%	0.01%	0.48%	1.89%	0.65%

2017 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참고자료

232p

-

1. 한국표준산업분류

236p

-

2. 지역분류표

241p

-

3. 연간사업실적보고서

< 참고 1 > 한국표준산업분류¹⁾

A 농업, 임업 및 어업 (01~03)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01	농업	Agriculture
02	임업	Forestry
03	어업	Fishing
B 광업 (05~08) Mining and quarrying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Mining of coal, crude petroleum and natural gas
06	금속 광업	Mining of metal ores
07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Mining of non-metallic minerals, except fuel
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Mining support service activities
C 제조업 (10~34) Manufacturing		
10	식품 제조업	Manufacture of food products
11	음료 제조업	Manufacture of beverages
12	담배 제조업	Manufacture of tobacco products
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Manufacture of textiles, except apparel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 제품 제조업	Manufacture of wearing apparel, clothing accessories and fur articles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Manufacture of leather, luggage and footwear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Manufacture of wood and of products of wood and cork; except furniture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Manufacture of pulp, paper and paper products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Printing and reproduction of recorded media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Manufacture of coke, briquettes and refined petroleum products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Manufacture of chemicals and chemical products; except pharmaceuticals and medicinal chemicals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Manufacture of pharmaceuticals, medicinal chemicals and botanical products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Manufacture of rubber and plastic products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Manufacture of other non-metallic mineral products

1) 소분류 및 세분류는 통계청 홈페이지(www.kostat.go.kr)내 통계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참조

24	1차 금속 제조업	Manufacture of basic metals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Manufacture of fabricated metal products, except machinery and furniture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Manufacture of electronic components, computer; visual, sounding and communication equipment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Manufacture of medical, precision and optical instruments, watches and clocks
28	전기장비 제조업	Manufacture of electrical equipment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Manufacture of other machinery and equipment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Manufacture of motor vehicles, trailers and semitrailers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Manufacture of other transport equipment
32	가구 제조업	Manufacture of furniture
33	기타 제품 제조업	Other manufacturing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Maintenance and repair services of industrial machinery and equipment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 Electricity, gas, steam and air conditioning supply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Electricity, gas, steam and air conditioning supply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36~39) Water supply; sewage, waste management, materials recovery		
36	수도업	Water supply
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sewage, wastewater, human and animal waste treatment services
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Waste collection, treatment and disposal activities; materials recovery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Remediation activities and other waste management services
F 건설업 (41~42) Construction		
41	종합 건설업	General construction
42	전문직별 공사업	Specialized construction activities
G 도매 및 소매업 (45~47) Wholesale and retail trade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Sale of motor vehicles and parts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Wholesale trade on own account or on a fee or contract basis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Retail trade, except motor vehicles and motorcycles

H 운수 및 창고업 (49~52) Transportation and storage		
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Land transport and transport via pipelines
50	수상 운송업	Water transport
51	항공 운송업	Air transport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Warehousing and support activities for transportation
I 숙박 및 음식점업 (55~56) 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 activities		
55	숙박업	Accommodation
56	음식점 및 주점업	Food and beverage service activities
J 정보통신업 (58~63)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58	출판업	Publishing activities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Motion picture, video and television programme production, sound recording and music publishing activities
60	방송업	Broadcasting activities
61	우편 및 통신업	Postal activities and telecommunications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Computer programming, consultancy and related activities
63	정보서비스업	Information service activities
K 금융 및 보험업 (64~66) Financial and insurance activities		
64	금융업	Financial services activities, except insurance and pension funding
65	보험 및 연금업	Insurance and pension funding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Activities auxiliary to financial service and insurance activities
L 부동산업 (68) Real estate activities		
68	부동산업	Real estate activities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73)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activities		
70	연구개발업	Research and development
71	전문서비스업	Professional services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Architectural, engineering and other scientific technical services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4~76) Business facilities management and business support services; rental and leasing activities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Business facilities management and landscape services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Business support services
76	임대업: 부동산 제외	Renting and leasing activities; except real estate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Public administration and defence ; compulsory social security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Public administration and defence ; compulsory social security
P 교육 서비스업 (85) Education		
85	교육 서비스업	Education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6~87) Human health and social work activities		
86	보건업	Human health activities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Social work activities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91) Arts, sports and recreation related services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Creative, arts and recreation related services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Sports activities and amusement activities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4~96) Membership organizations, repair and other personal services		
94	협회 및 단체	Membership organizations
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Maintenance and repair services of personal and household goods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Other personal services activities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97~98) Activities of households as employers; undifferentiated goods- and services-producing activities of households for own use		
97	가구 내 고용활동	Private households as employers of domestic personnel
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Undifferentiated goods- and services-producing activities of private households for own use
U 국제 및 외국기관 (99) Activities of extraterritorial organizations and bodies		
99	국제 및 외국기관	Activities of extraterritorial organizations and bodies

< 참고 2 > 지역 분류표

국 명		국 명	
한글표기	영문표기	한글표기	영문표기
1. 아시아	Asia	태 국	Thailand
아 프 가 니 스 탄	Afghanistan	우 즈 베 키 스 탄	Timor-Leste
방 글 라 데 시	Bangladesh	투 르 크 메 니 스 탄	Turkmenistan
부 탄	Bhutan	우 즈 베 키 스 탄	Uzbekistan
브 루 나 이	Brunei	베 트 남	Vietnam
캄 보 디 아	Cambodia	합 계	30개국
중 국	China	2. 대양주	Oceania
홍 콩	Hong Kong	오 스트 레 일 리 아	Australia
인 도	India	피 지	Fiji
인 도 네 시 아	Indonesia	뉴 질 랜 드	New Zealand
일 본	Japan	파 푸 아 뉴 기 니	Papua New Guinea
카 자 흐 스 탄	Kazakstan	사 모 아	Samoa
키 르 기 즈 스 탄	Kyrgyzstan	솔 로 몬 제 도	Solomon Islands
라 오 스	Laos	통 가	Tonga
마 카 오	Macao	바 누 아 투	Vanuatu
말 레 이 시 아	Malaysia	서 사 모 아	Western Samoa
몰 디 브	Maldives	미 국 령 사 모 아	American Samoa
몽 골	Mongolia	프랑스령폴리네시아	French Polynesia
미 안 마	Myanmar	괌	Guam
네 팔	Nepal	키 리 바 시	Kiribati
파 키 스 탄	Pakistan	마 셜 제 도	Marshall Islands
필 리 핀	Philippines	미 크 로 네 시 아 연 방	Micronesia
싱 가 포 르	Singapore	뉴 칼 레 도 니 아	New Caledonia
스 리 랑 카	Sri Lanka	북 마 리 아 나	Northern Mariana
대 만	Taiwan	팔 라 우	Palau
타 지 키 스 탄	Tajikistan	투 발 루	Tuvalu
		합 계	19개국

*아세안(ASEAN)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국 명		국 명	
한글표기	영문표기	한글표기	영문표기
3. 북 미	North America	그 레 나 다	Grenada
캐 나 다	Canada	과 테 말 라	Guatemala
미 국	U.S.A.	가 이 아 나	Guyana
그 린 란 드	Greenland	아 이 티	Haiti
생 피 에 르 미 크 론	St. Pierre and Miquelon	온 두 라 스	Honduras
합 계	4개국	자 메 이 카	Jamaica
4. 중남미	Latin America	멕 시 코	Mexico
엔 티 가 바 부 다	Antigua and Barbuda	니 카 라 과	Nicaragua
아 르 헨 티 나	Argentina	파 나 마	Panama
아 루 바	Aruba	파 라 과 이	Paraguay
바 하 마	Bahamas	페 루	Peru
바 베 이 도 스	Barbados	푸 에 르 토 리 코	Puerto Rico
벨 리 즈	Belize	세 인 트 킷츠 네 비 스	St. Kitts and Nevis
버 뮤 다	Bermuda	세 인 트 루 시 아	St. Lucia
볼 리 비 아	Bolivia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브 라 질	Brazil	수 리 남	Suriname
케 이 만 군 도	Cayman Islands	트리니다드토바고	Trinidad and Tobago
칠 레	Chile	우 루 과 이	Uruguay
콜 롬 비 아	Colombia	베 네 수 엘 라	Venezuela
코 스타 리 카	Costa Rica	프 랑 스 령 기 아 나	French Guiana
쿠 바	Cuba	과 데 로 프	Guadeloupe
도 미 니 카 연 방	Dominica, Commonwealth	마 르 티 니 끄	Martinique
도 미 니 카 공 화 국	Dominican Republic	미 국 령 버 진 제도	Virgin Islands(U.S)
에 과 도 르	Ecuador	영 국 령 버 진 제도	Virgin Islands(U.K)
엘 살 바 도 르	El Salvador		
		합 계	42개국

국 명		국 명	
한글표기	영문표기	한글표기	영문표기
5. 유 럽	Europe	마 케 도 니 아	Macedonia
알 바 니 아	Albania	몰 타	Malta
아 르 메 니 아	Armenia	몰 도 바	Moldova
오 스 트 리 아	Austria	네 덜 란 드	Netherlands
아 제 르 바 이 잔	Azerbaijan	노 르 웨 이	Norway
벨 라 루 시	Belarus	폴 란 드	Poland
벨 기 에	Belgium	포 르 투 갈	Portugal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Bosnia-Herzegovina	루 마 니 아	Romania
불 가 리 아	Bulgaria	러 시 아 연 방	Russia
크 로 아 티 아	Croatia	슬 로 바 키 아	Slovak Republic
키 프 로 스	Cyprus	슬 로 베 니 아	Slovenia
체 코	Czech Republic	스 페 인	Spain
덴 마 크	Denmark	스 웨 덴	Sweden
에 스토니아	Estonia	스 위 스	Switzerland
핀 란 드	Finland	터 키	Turkey
프 랑 스	France	영 국	U. K.
그 루 지 야	Georgia	우 크 라 이 나	Ukraine
독 일	Germany	안 도 라	Andorra
그 리 스	Greece	채 널 아 일 랜 드	Channel Islands
헝 가 리	Hungary	패 로 아 일 랜 드	Faroe Islands
아 이 슬 란 드	Iceland	지 브 롤 터	Gibraltar
아 일 랜 드	Ireland	맨 아 일	Isle of Man
이 탈 리 아	Italy	리 히 텐 슈 타 인	Liechtenstein
라 트 비 아	Latvia	모 나 코	Monaco
리 투 아 니 아	Lithuania	몬 테 네 그 로	Montenegro
룩셈부르크	Luxembourg	산 마 리 노	San Marino
		합 계	51개국

국 명		국 명	
한글표기	영문표기	한글표기	영문표기
6. 아프리카	Africa	말 라 위	Malawi
알 제 리	Algeria	말 리	Mali
앙 골 라	Angola	모 리 타 니	Mauritania
베 녕	Benin	모 리 셔 스	Mauritius
보 츠 와 나	Botswana	모 로 코	Morocco
부 르 키 나 파 소	Burkina Faso	모 잠 비 크	Mozambique
부 룬 디	Burundi	나 미 비 아	Namibia
카 메 룬	Cameroon	니 제 르	Niger
카 보 베 르 데	Cape Verde	나 이 지 리 아	Nigeria
중앙아프리카공화국	Central African Rep.	르 완 다	Rwanda
차 드	Chad	상 투 메 프 린 시 페	Sao Tome and Principe
코 모 로	Comoros	세 네 갈	Senegal
콩 고 인 민 공 화 국	Congo, Rep.	세 이 셸	Seychelles
콩 고 민 주 공 화 국	Congo, Democratic Rep.	시 에 라 리 온	Sierra Leone
코 트 디 부 아 르	Côte d'Ivoire	소 말 리 아	Somalia
지 부 티	Djibouti	남아프리카공화국	South Africa
이 집 트	Egypt	세 인 트 헬 레 나	St. Helena
적 도 기 니	Equatorial Guinea	수 단	Sudan
에 리 트 리 아	Eritrea	스 와 질 란 드	Swaziland
에 디 오 피 아	Ethiopia	탄 자 니 아	Tanzania
가 봉	Gabon	토 고	Togo
감 비 아	Gambia	튀 니 지	Tunisia
가 나	Ghana	우 간 다	Uganda
기 니	Guinea	자 이 르	Zaire
기 니 비 사 우	Guinea-Bissau	잠 비 아	Zambia
케냐	Kenya	짐 바 브 웨	Zimbabwe
레 소 토	Lesotho	마 요 뜨	Mayotte
라 이 베 리 아	Liberia	레 위 니 옹	Réunion
리 비 아	Libya	남 수 단	Republic of South Sudan
마 다 가 스 카 르	Madagascar		
		합 계	58개국

국 명		
한글표기		영문표기
7. 중 동		Middle East
바 레 인		Bahrain
이 란		Iran
이 라 크		Iraq
이 스 라 엘		Israel
요 르 단		Jordan
쿠 웨 이 트		Kuwait
레 바 논		Lebanon
오 만		Oman
팔 레 스 타 인		Palestine
카 타 르		Qatar
사우디 아라비아		Saudi Arabia
시 리 아		Syria
아랍에미리트		U.A.E
예 멘		Yemen
합 계		14개국

< 참고 3 > 연간사업실적보고서

(결산기 : 년 월 일 ~ 년 월 일)

1. 한국투자자(모기업) 개요

투 자 자 명			계열명		
담 당 자	소속부서:		직성명:		전화:
업 종 (중 분 류) ¹⁾		자기자본	백만원	사후관리은행	
투 자 자 법 인 성 격	<input type="checkbox"/> 실제영업법인		<input type="checkbox"/> 특수목적회사(SPC)		
외국인투자기업 ²⁾ 여부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 최대주주명:		(지분율: %) ³⁾	
		- 최대주주 소속 국가 :			

주) 1.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코드 병기(예:의복제조 1810), 업종이 두가지 이상의 경우 매출액이 많은 업종순으로 모두 기재

2.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출자한 기업을 말함.

3. 지분율이 50%를 초과할 경우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소속국가: _____ 및
 최대주주명: _____ (지분율: %)

2. 현지법인 개요

법 인 명 ¹⁾			대 표 자	
소 재 지 (국가, 주, 성) ²⁾				
투 자 업 종 ³⁾			주요취급품목 ⁴⁾	
인 원 현 황	임원: () 관리직: () 생산직: () 영업직: ()		* ()는 한국인	
설 립 등 기 일			영 업 개 시 일	
법 인 성 격	<input type="checkbox"/> 실제영업법인 <input type="checkbox"/> 특수목적회사(SPC) - 최종 투자목적국: - 최종 투자업종:		설 립 태	<input type="checkbox"/> 신설법인 설립 <input type="checkbox"/> 기존법인 지분인수 - 지분인수비율: % (구주: %, 신주: %) ⁵⁾
투 자 형 태 ⁶⁾	<input type="checkbox"/> 단독투자 <input type="checkbox"/> 공동투자 <input type="checkbox"/> 합작투자(한국측 투자비율: %)			
지 배 구 조	<input type="checkbox"/> 비주회사 <input type="checkbox"/> 지주회사(자회사수: 개, 주된 매출 자회사 업종:)			

주주 현황 ⁷⁾	국 가	상호 또는 성명	지분율 (%)		순투자액 ⁸⁾ (천미불)		계열 여부 ⁹⁾
			금기말	전기말	금기말		
					천미불	천미불	
		합 계	100.0				
현 지 법 인 자 본 현 황			전기말		금기말		
	자 본 금		천미불	천미불	천미불	천미불	
	자 본 잉 여 금		천미불	천미불	천미불	천미불	
	자 본 조 정		천미불	천미불	천미불	천미불	
	기 타 포 괄 손 익 누 계 액		천미불	천미불	천미불	천미불	
	이 익 잉 여 금		천미불	천미불	천미불	천미불	
합 계 (A)		천미불	천미불	천미불	천미불		
한 국 투 자 자 지 분 투 자 내 역	한국투자자 지분율 합(B)			%		%	
	지 분 투 자 (A × B)			천미불		천미불	

주) 1. 현지법인의 법정상호는 영어 full-name으로 기재하고 법적명칭이 영문이 아닌 경우에도 ()속에 영문명칭을 반드시 함께 표시. 중국 및 일본의 경우는 한자명칭을 < >속에 함께 표시함.
 2. 국가명은 영문기재를 원칙. 중국은 성(省), 미국은 주(州)를 포함하여 우편물 배달이 가능토록 법정소재지를 상세히 기재. 중국의 성(省)은 국한문 모두 기재하며 홍콩은 중국과 별도의 국가로 기재함.
 3.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코드 병기(예:의복제조 1810), 업종이 두가지 이상의 경우 매출액이 많은 업종순으로 모두 기재함.
 4. 제조업, 무역업의 경우 현지법인이 생산 또는 취급하는 주요 제품명을 기재하고 기타 업종의 경우 세부사업 내용을 기재 (예:신사의류제조)하며 매출액 기준으로 품목 및 매출비중을 기재함.
 5. 구주 및 신주 비율의 합은 지분인수비율임.
 6. "공동투자"는 국내투자자와 공동으로 투자하는 경우를 말하며, "합작투자"는 비거주자와 합작으로 투자하는 경우를 말함.
 7. 주주현황은 지분율 합이 100이 되도록 투자자 모두를 국가별로 기록하여 함.
 8. 순투자액은 투자액에서 회수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록함.
 9. 계열여부 코드: 한국측 최대지분투자자 또는 한국측 최대지분투자자와 계열관계(1), 한국측 최대지분투자자와 비계열관계(2)

3. 현지법인에 대한 한국투자자 대부투자 내역 (금기말 현재)

대부투자자	대여금 (단위 : 천미불)		전기말	금기말
	- 지분을 10% 이상 투자자			
	- 지분을 10% 미만	주투자자 관계사 ¹⁾		
		기타		
	계(A)			
	채권인수 ²⁾ (단위 : 천미불)		전기말	금기말
	- 지분을 10% 이상 투자자			
	- 지분을 10% 미만	주투자자 관계사 ¹⁾		
		기타		
	계(B)			
합계(A+B)				

주) 1. 주투자자 관계사란 주투자자가 10%이상 투자한 한국소재 회사를 말함.

2. 채권인수는 채권, 무보증회사채, 상업어음, 약속어음, 비참가적 우선주를 말함.

4. 현지법인의 모기업에 대한 역투자³⁾ 현황

	금 액(천미불)		지 분 율(%)		배당금 및 이자 (금기, 천미불)
	전기말	금기말	전기말	금기말	
지 분 투 자					배당금:
대 부 투 자 (대여금 및 채권인수)					이자:
매 출 채 권					
합 계					

주) 1. 현지법인의 모기업에 대한 의결권이 10% 미만일 경우에만 역투자에 해당됨. 10% 이상일 경우에는 역투자가 아니라 독립된 직접투자에 해당됨.

5. 현지법인 경영현황

가. 현지법인의 투자자 및 근로자 앞 지급액¹⁾

(단위: 천미불)

배 당 금		한국투자자앞 대부이자지급액	한국투자자앞 로얄티 등 기타 지급액	한국인근로자앞 임금지급액
지급총액	한국투자자앞 지급액			

주) 1. 당 회계기간 중 현지법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기준

나. 현지법인의 장단기 차입금 현황 (금기말 현재)

(단위: 천미불)

차입처	코드 ¹⁾	차입 금액	보증자	코드 ¹⁾	차입기간		금리		용도 ³⁾
					1년미만	1년이상	변동 ²⁾	고정	

주) 1. 코드가 2개 이상일 경우 반드시 코드별로 분리 작성 :

① 차입처코드 : 1.한국금융기관, 2.한국금융기관의 해외법인, 3.현지국금융기관, 4.외국계금융기관, 5.관계회사(모기업 포함), 6.신디케이트론, 7.회사채 등 기타

② 보증자코드 : 1.관계회사(모기업 포함), 2.한국금융기관, 3.한국금융기관 해외법인, 4.외국계 금융기관, 5.현지법인 물적담보, 6.현지법인 신용, 7.합작투자자, 8.기타(구체적 기재)

2. Libor(Sibor, TB) + spread 형태로 기록할 것

3. 용도코드 : 1.시설자금, 2.운전자금, 3.채무상환, 4.기타(구체적 기재)

다. 현지법인의 판매처별 매출금액 및 비중 (당 회계기간 중)

	현지판매		대 한국 수출		제3국 수출		계
	관계회사앞	기 타	관계회사앞	기 타	관계회사앞	기 타	
금 액							
비 중							100.0%

주) 관계회사는 국내모기업 또는 현지법인과 지분관계에 있는 법인임.

라. 현지법인의 매입처별 매입금액 및 비중 (당 회계기간 중)

	현지판매		대 한국 수입		제3국 수입		계
	관계회사앞	기 타	관계회사앞	기 타	관계회사앞	기 타	
금 액							
비 중							100.0%

주) 관계회사는 국내모기업 또는 현지법인과 지분관계에 있는 법인임

마. 현지법인 요약대차대조표¹⁾

(단위: 천미분)

자 산			부채와 자본		
항 목	전 기	금 기	항 목	전 기	금 기
1. 유동자산(매출채권) -한국 투자자 앞 -한국투자자의 관계사 ²⁾ 앞 (재고자산) (기타유동자산) 2. 고정자산(투자자산) -관계회사출자금 -장기대여금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1. 유동부채(매입채무) -한국 투자자 앞 -한국투자자의 관계사 ²⁾ 앞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부채) (기타유동부채)		
			2.비유동부채 (사채) (장기차입금) (장기성매입채무) (기타비유동부채)		
			부 채 총 계		
			3. 자본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자 본 총 계		
자 산 총 계			부 채 및 자 본 총 계		

주) 1. 각 항목은 회계연도말 환율 적용. 현지법인의 자회사가 있는 경우 자회사를 포함한 연결대차대조표 작성

2. 한국 투자자의 관계사란 한국 투자자가 10% 이상 투자한 한국 소재 회사를 말함.

바. 현지법인 손익계산서 (당 회계기간 중)

(단위: 천미불)

항 목	전 기	금 기	항 목	전 기	금 기
2. 매출원가(당기매입액)			8.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 매출총이익			9. 법인세비용		
4. 판매비와 관리비			10. 당기순이익		
5. 영업이익					
6. 영업외수익 (이자수익)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					

주) 회계기간중 평균환율 적용. 현지법인의 자회사가 있는 경우 자회사를 포함한 연결손익계산서 작성

사. 현지법인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등에 대한 투자현황

(1) 자회사

(단위: 천미불)

자회사명	소재지	업종	지분율	투자잔액		
				증권투자	대부투자	합계

주요 재무지표

자회사명	총자산	총부채	자기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 손자회사

(단위: 천미불)

손자회사명	소재지	업종	지분율	투자잔액		
				증권투자	대부투자	합계
주요 재무 지표						
손자회사명	총자산	총부채	자기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3) 증손자회사 이하

(단위: 천미불)

현지법인 과의관계	회사명	소재지	업종	지분율	투자잔액		
					증권투자	대부투자	합계
주요 재무 지표							
현지법인 과의관계	회사명	총자산	총부채	자기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 이익

아. 기타사항

구분	내용					
	구분	매우 열악	열악	보통	양호	매우 양호
현 지 법 인 영 업 환 경	현지업체와의 경쟁관계					
	향후 영업전망					
	1. 현지법인 운영상 애로사항 (복수선택 가능) <input type="checkbox"/> 인사/노무관련 요인(고용/현지종업원 또는 노동조합과의 불화 등) <input type="checkbox"/> 생산관련 요인(노동생산성/부품·원자재 조달) <input type="checkbox"/> 마케팅관련 요인(홍보/판매) <input type="checkbox"/> 재무관련 요인(현지금융 조달/과실 송금 등) <input type="checkbox"/> 사회간접자본관련 요인(도로/항만/전력/용수 등) <input type="checkbox"/> 현지국 정부의 간섭(과도한 준조세/현지기업과의 차별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2. 개선이 필요한 투자국의 법규나 제도 (복수선택 가능) <input type="checkbox"/> 노동관련 분야: <input type="checkbox"/> 공장부지 확보 등 토지관련 분야: <input type="checkbox"/> 분쟁해결 절차: <input type="checkbox"/> 세제: <input type="checkbox"/> 금융: <input type="checkbox"/> 회계: <input type="checkbox"/> 기타:					
현 지 법 인 운 영 상 애 로 사 항	1. 현지법인의 향후 계획					
	철 수	투자축소	현상유지	투자확대		
	2. 현지법인 철수 및 이전 계획인 경우, 향후 투자 대상 국가					
현 지 법 인 향 후 계 획	국가명					
대 정 부 건 의 사 항						

6. 첨부서류

- 현지법인 감사보고서(결산서) 또는 세무보고서



2017년 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발행일 2018년 12월 14일

발행인 은성수

편집인 이승건

발행처 한국수출입은행

우편번호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8

